

碩士學位 論文

國立公園의 實態와 그 效率的인 管理方案에
관한 研究

— 漢拏山國立公園을 中心으로 —

指導教授 韓 昌 榮



濟州大學校 行政大學院

行政學科 地方自治專攻

高 祥 麟

1993年 12月 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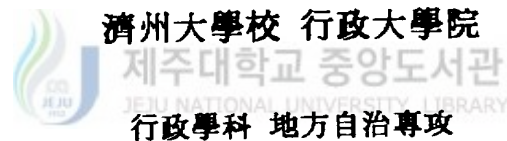
國立公園의 實態와 그 效率的인 管理方案에 관한 研究

- 漢拏山國立公園을 中心으로 -

指導教授 韓 昌 榮

이 論文을 行政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3年 12月 日



高 祥 麟

高祥麟의 行政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3年 12月 日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A Study on the Effective Management of
National Parks:

Concerning Halla-san National Park

Sang-lin Koh

(Supervised by Professor Han, Chang-Young)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1993. 12

目次

I. 序論	1
1. 研究의 必要性和 目的	1
2. 研究의 內容 및 方法	2
3. 研究의 範圍 및 限界	2
II. 國立公園의 實態	4
1. 國立公園의 意義	4
1) 國立公園의 概念과 由來	4
2) 國內 國立公園의 設定 背景과 制度의 發展	7
3) 國立公園의 利用과 起源	8
2. 外國 國立公園의 管理實態	11
1) 地域別 國立公園의 特性	11
2) 各國의 國立公園 管理實態	15
3. 韓國 國立公園의 實態	30
1) 國立公園의 概要와 管理	30
2) 國立公園의 現況	33
3) 漢拏山 國立公園	38
4. 實態의 要約	48
III. 韓國의 國立公園管理의 課題	51
1. 國立公園의 管理體系	51
2. 國立公園이 當面하고 있는 問題點	52
3. 國立公園의 管理課題 및 保護	53
1) 管理課題	53
2) 公園의 保護	55

IV. 漢拏山國立公園 探訪客의 行態分析	58
1. 調査의 概要	58
1) 調査의 對象 및 方法	58
2) 設問의 調査時期 및 構成	58
3) 調査의 分析方法 및 限界	58
4) 標本의 人口統計的 分布	59
2. 假說의 檢證과 調査資料의 分析	60
1) 假說의 設定	60
2) 假說檢證 및 資料分析	61
3. 分析結果의 要約	90
4. 效率的 管理方案의 提言	91
 V. 結 論	 96
 參考文獻	 99
Summary	101
設問紙	105



表 目 次

<표 II-1> 공원탐방 이용성향 유형	9
<표 II-2> 세계의 국립공원 현황	11
<표 II-3> 미국 국립공원 현황	16
<표 II-4> 영국의 경관보전지역 현황	20
<표 II-5> 영국의 국립공원 현황	21
<표 II-6> 일본의 국립공원 일람표	24
<표 II-7> 현행법에 의한 용도지구별 기준 및 허용행위	31
<표 II-8> 국내의 국립공원 및 그 범위	33
<표 II-9> 국립공원의 시설현황	34
<표 II-10> 국내 국립공원의 현황	35
<표 II-11> 국립공원의 탐방객 추이	37
<표 II-12> 한라산의 탐방객 현황	41
<표 II-13> 국립공원개발 투자계획	42
<표 II-14> 한라산국립공원 주요시설에 대한 연도별 투자현황	43
<표 II-15> 연도별·공원별 투자현황	44
<표 II-16> 국립공원의 동물분포 현황	45
<표 II-17> 국립공원의 식물분포 현황	47
<표 II-18> 한라산국립공원의 자원 현황	48
<표 IV-1> 인구통계적 분포	59
<표 IV-2> 한라산보호에 기여하는 변수의 중요도 순위	61
<표 IV-3> 휴지버린 경험의 성별 총 구성비	63
<표 IV-4> 휴지버린 경험의 연령별 총 구성비	63
<표 IV-5> 휴지버린 경험의 직업별 총 구성비	64
<표 IV-6> 휴지버린 경험의 거주지별 총 구성비	64
<표 IV-7> 휴지버린 경험의 학력별 총 구성비	64
<표 IV-8> 환경훼손 경험의 직업별 총 구성비	65

<표 IV-9> 환경훼손 경험의 거주지별 총 구성비	66
<표 IV-10> 환경훼손 경험의 학력별 총 구성비	66
<표 IV-11> 등산로이탈 경험의 성별 총 구성비	67
<표 IV-12> 등산로이탈 경험의 연령별 총 구성비	67
<표 IV-13> 등산로이탈 경험의 직업별 총 구성비	68
<표 IV-14> 등산로이탈 경험의 거주지별 총 구성비	68
<표 IV-15> 등산로이탈 경험의 학력별 총 구성비	68
<표 IV-16> 안내시설 중요도의 연령별 총 구성비	69
<표 IV-17> 안내시설 중요도의 거주지별 총 구성비	69
<표 IV-18> 공공도덕 어긋난 경험의 성별 총 구성비	70
<표 IV-19> 공공도덕 어긋난 경험의 직업별 총 구성비	71
<표 IV-20> 공공도덕 어긋난 경험의 거주지별 총 구성비	71
<표 IV-21> 공공도덕 어긋난 경험의 학력별 총 구성비	71
<표 IV-22> 동반객의 성별 총 구성비	72
<표 IV-23> 동반객의 연령별 총 구성비	73
<표 IV-24> 동반객의 직업별 총 구성비	73
<표 IV-25> 동반객의 거주지별 총 구성비	73
<표 IV-26> 동반객의 학력별 총 구성비	74
<표 IV-27> 이용한 등산로의 성별 총 구성비	74
<표 IV-28> 이용한 등산로의 연령별 구성비	74
<표 IV-29> 이용한 등산로의 직업별 총 구성비	75
<표 IV-30> 이용한 등산로의 학력별 총 구성비	75
<표 IV-31> 이용한 하산로의 성별 총 구성비	76
<표 IV-32> 이용한 하산로의 연령별 구성비	76
<표 IV-33> 이용한 하산로의 직업별 총 구성비	76
<표 IV-34> 이용한 하산로의 거주지별 총 구성비	77
<표 IV-35> 성별에 따른 편의시설과 관리상황에 대한 평가의 차이검증	78
<표 IV-36> 연령별 집단에 따른 편의시설 및 관리상황평가에 대한 변량분석	78
<표 IV-37> 직업별 집단에 따른 편의시설 및 관리상황평가에 대한 변량분석	79

<표 IV-38> 거주지별 집단에 따른 편의시설 및 관리상황평가에 대한 변량분석	79
<표 IV-39> 학력별 집단에 따른 편의시설 및 관리상황평가에 대한 변량분석	80
<표 IV-40> 이용한 교통편의 성별 총 구성비	81
<표 IV-41> 이용한 교통편의 연령별 구성비	81
<표 IV-42> 이용한 교통편의 거주지별 총 구성비	81
<표 IV-43> 이용한 교통편의 학력별 총 구성비	82
<표 IV-44> 자연경관 매력에 대한 성별 총 구성비	83
<표 IV-45> 자연경관 매력에 대한 연령별 총 구성비	83
<표 IV-46> 자연경관 매력에 대한 거주지별 총 구성비	84
<표 IV-47> 동물자원 매력에 대한 성별 총 구성비	85
<표 IV-48> 동물자원 매력에 대한 연령별 총 구성비	85
<표 IV-49> 동물자원 매력에 대한 학력별 총 구성비	85
<표 IV-50> 동물자원 매력에 대한 직업별 총 구성비	86
<표 IV-51> 식물자원 매력에 대한 거주지별 총 구성비	87
<표 IV-52> 문화경관 매력에 대한 거주지별 총 구성비	88

圖 目 次

<도 I-1> 연구과정의 도식화	3
<도 II-1> 중규모 공원의 기관	17
<도 II-2> 대규모 공원의 기관	18
<도 II-3> North York Moors국립공원의 직원조직	22
<도 II-4> 영국의 관리계획의 과정	23
<도 III-1> 국립공원의 관리과정	51
<도 III-2> 국립공원의 관리체제	51



I. 序 論

1. 研究의 必要性和 目的

경제적인 여유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인간은 여가의 활용 등에 관심을 갖게 된다. 우리 나라는 지난 1960년대 이후 30여년간에 걸친 개발과정에서 成長據點·總量增大爲主의 개발을 지속해 옴으로써 경제적인 급성장을 이룩하였다. 더우기 산업혁명 이후 지속적인 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여가가 꾸준히 증가해 국민의 다양한 여가선용 욕구를 증대시켰고, 그 성향도 공원의 이용과 같은 自然志向의인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어 國立公園은 생태계의 자연자원을 간직하는 寶庫로서 보존할 가치 뿐만 아니라 國民의 保健, 休養 및 情緒生活에 기여하는 여가선용의 대상으로도 그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어 가고 있다.

濟州道는 1985년부터 시작된 제1차 濟州道綜合開發計劃이 이루어지면서 개발과 관련한 환경보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능률성만을 중시하는 인식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으며 환경보존이 제주발전의 부가적 조건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즉, 1970년대 이후 점진적인 國民所得增大 및 餘暇의 增加 등에 의한 여행기회가 확대됨으로써 제주지역의 관광산업은 來道觀光客數가 1985년에 132만명, 1988년에 2백만명, 그리고 1991년에는 300만명에 도달했고, 관광수입면에서는 1985년 115,717백만원, 1988년 238,178백만원, 그리고 1991년에는 513,154백만원¹⁾ 등 양적으로 큰 증가추세를 보여왔고 입도관광객들의 욕구다양화로 國立公園의 이용이 점차 심화됨으로써 자연경관자원의 상대적인 훼손을 가져와 이제는 거의 한계에 도달하여 보호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濟州道의 산업구조에 있어서 관광산업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라산은 관광제주의 중요한 이미지를 담고 있으므로 한라산의 보호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모색되어야만 한다.

國土開發研究院이나 韓國觀光公社, 交通開發研究院에서 그 동안에 발표한 관광분야와 관련된 각종 장기전망에 의하면, 국내외 여건의 변화는 앞으로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력 증강과 일본의 지속적인 세계경제 주도, 또 근접국가간의 교류 증대, 정치이념을 떠난 문호개방, 특히 중공이 자유진영에 대한 점진적인 문호개

1)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경제현황」, 1993, pp.73-74.

방 및 한국과의 비정치적 교류의 증대, 그리고 서방세계의 증공진출을 위한 한국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관광산업의 수요증가는 持續적으로 增加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정황과 국민의 脫都市化, 脫人工化에 따른 國立公園 탐방객의 집중적인 이용증가로 국내의 國立公園은 극심한 훼손의 위기를 맞고 있어 장래의 공원 편익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관리상의 효율화가 요구되어 미래의 탐방수요에 대한 대처와 국립공원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의 축적 및 연구공토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國立公園의 적절한 利用과 保護를 위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模索하는데 그 目的이 있으며 本稿에서는 研究의 便宜上 考察의 主要範圍를 漢拿山國立公園으로 하였으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外國의 그것과 比較考察도 並行하였다.

2. 研究의 內容 및 方法

本稿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해 國立公園에 대한 概念 確立과 各國의 國立公園 現況 및 管理體系 研究, 國內 國立公園의 現況 및 管理現況, 漢拿山國立公園의 實態 및 問題點 그리고 그에 대한 對處方案 등을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 삼았다.

各國의 國立公園 및 國內 國立公園에 관한 일반적 고찰은 문헌, 잡지, 논문, 각종 통계자료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한라산국립공원에 대한 고찰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의 실데이터를 사용하고 기타 자료는 직접적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얻은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그 자료는 SPSS/PC'(VER. 3.1)에 의해 처리하였다. 설문조사시 調査의 對象은 漢拿山國立公園의 探訪客을 대상으로 하였고, 탐방객이 휴식을 취하는 장소에서와 하산시기에 실시하였다.

3. 研究의 範圍 및 限界

各國의 國立公園에 대한 개요는 각각의 國立公園設定 背景, 利用現況, 公園의 現況, 施設의 現況, 管理體系(행정기구) 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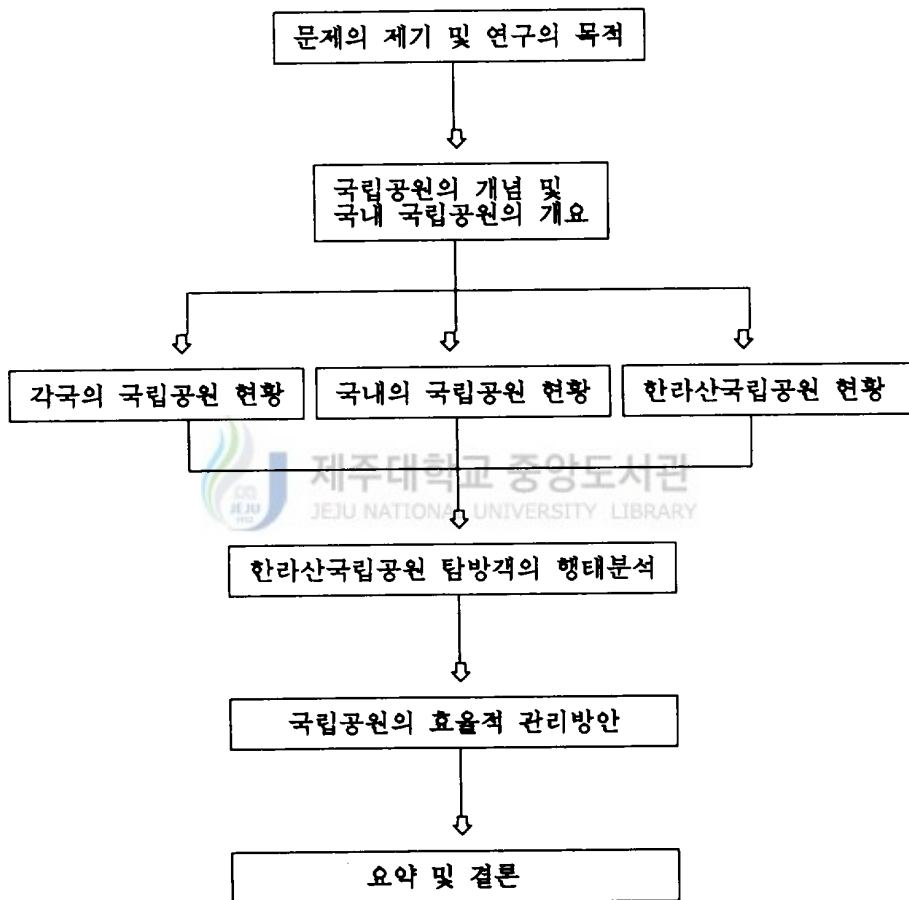
國內의 國立公園에 대한 개요는 국내 20여개 國立公園에 대한 自然的 現況 및 主要施設 現況에 대하여 고찰하였고, 한라산국립공원에 대한 고찰은 主要施設,

投資現況, 資源 및 資源投資現況, 利用現況, 漢拏山國立公園의 特性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연구의 범위를 資源의 管理와 生態界保護管理 側面보다 一般的인 公園管理 側面에 重點을 두었으며, 關聯文獻 및 論文 등 基礎資料에 의한 내용연구가 부족할 때에는 外國의 그것과 實證分析에 의한 결과로 보충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의 대상은 한라산탐방객으로 하였으므로 기타 다른 國立公園의 분석결과를 일반화하여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상의 연구과정을 도식화 하면 <도 I-1>과 같다.

<도 I-1> 연구과정의 도식화



II. 國立公園의 實態

1. 國立公園의 意義

1) 國立公園의 概念과 由來

“國立公園”의 아이디어를 처음 생각한 사람은 탐험가이자 화가인 조오지 카틀린이라는 미국인이다. 1833년 그는 미조리강 상류의 인디언 거주지역을 방문하고 그곳의 원주민과 아름다운 자연에 매료되어 “국민공원(Nation's Park)”을 만들어야겠다는 착상을 얻어 신문지상에 발표하였다. 그후 1864년 캘리포니아주가 요세미트 협곡의 토지를 연방정부로부터 이양받아 이를 레크레이션 이용을 목적으로 국립공원이라 할 수 있는 요세미트 그란트를 만들었다.

19세기 초 헨리 워쉬번-랑포드-돈 탐험대는 옐로우스톤을 수차에 걸쳐 방문하고 옐로우스톤을 영구적인 국민공원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국립공원지정운동을 벌여 1872년 3월 1일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을 설치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세계최초의 國立公園을 탄생시켰다.

현재 미국은 1993년 현재 약 50여개의 국립공원을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미국의 국립공원 최초지정 이후 55년이 지난 1927년에 국립공원협회가 설립되고 1931년에 국립공원법이 제정되어 국립공원제도의 골격을 형성하였다.

우리 나라의 國立公園은 1967년 3월 공포된 自然公園法에 의하여 1989년 현재 20개소의 국립공원을 지정, 보호하고 있는데 1967년 12월 지리산이 국내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이어 경주, 계룡산, 한려해상, 설악산, 속리산, 한라산, 내장산, 가야산, 월출산, 덕유산, 오대산, 주왕산, 서산해안, 다도해해상, 북한산, 치악산, 월악산, 소백산, 변산반도, 그리고 월출산 등이 지정·보호되고 있다.

1789년 독립전쟁에 승리하여 신생독립국이 된 미국은 드높은 개척정신으로 1804-1806년 사이에 탐험대를 편성하여 태평양해안을 답사한 일행 가운데 사냥꾼이며 산악인인 존콜터는 1806년에 유명한 “콜터의 골”을 발표하게 되고, 탐험대가 해산된 다음에도 혼자서 탐험을 계속하여 옐로우스톤의 경관을 발견하게 된

다. 1810년 세인트루이스에 돌아와서 소문을 내지만 믿어주지 않는다. 그동안 1860년까지 짐 부릿저 등 많은 사람이 듣고 보고하여 소문을 냈으나 아직도 의심을 하게 되며, 1869년 9월부터 10월에 걸쳐 Davbid E Folson, C.W. Cook, William Peterson 등에 의한 제 1차 탐험대가 다녀오고 1870년 8월에 장군이며 전의원인 윗시번이 짐꾼, 요리사, 30마리의 말과 당나귀, 개 등 30일분의 휴대식량을 가지고 20명의 대원으로 소문이 떠도는 “엘로우스톤”의 경이로운 경관을 찾아 나서는 탐험을 나선다. 이 탐험대를 인디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제1기병대는 돈중위를 대장으로 한 병력을 지원하게 된다.

이 탐험대는 오늘날 알려진 엘로우스톤의 놀라운, 신비로운, 장엄한 자연현상을 발견하게 되고 서로 놀라워하며 역사적인 공론이 시작된다. 이것이 유명한 1970년 9월 19일밤 캠프파이어 얘기가 된다. 헛지는 이런 신비의 장소를 개인의 사유지가 되게 해서는 안되고 모든 국민의 즐거움이 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게 되고 이는 “사유아닌 공유”, “모든 국민의 이용과 즐거움”이란 국립공원의 이념이 된다.

미국정부는 1871년에 지질학자인 아이든, 사진작가 켄슨, 화가 모런 등과 육군공병대를 보내 엘로우스톤에 대한 본격적이고 공식적인 조사와 채형, 스케치 측량 등을 했다. 1872년 3월 1일 그라프 대통령은 2백만에이커 넓이의 엘로우스톤 지역을 “모든 국민의 복리와 즐거움을 위한 공원과 놀이터”로서의 국립공원으로 지정 공포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제도와 이념은 시대적 배경과 특성 속에서 태어나게 되어있다. 國立公園의 이념도 시대에 따라 변해 오고 있는데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 國立公園의 初創期(1870-1900)로 미국의 엘로우스톤을 國立公園으로 지정하였다. 자연의 경이를 개인이 소유하여 사업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모든 국민이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이념으로 자연경관의 보전과 안전이용을 보장하였다. 동·식물 등 생태계보다는 자연현상, 지형경관이 공원자원이었다. 생태계의 어려움이 적었던 시대적 배경이 깔려있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자연지역이 넓은 국가들이 역시 國立公園을 지정했다.

둘째는 普及期(1901-1940)인데 유럽, 남미제국 등이 國立公園을 지정했다. 國立公園의 아이디어가 시민의 참여를 통해 국력을 키우려던 시대적 배경속에 민력을 모은 네셔널리즘의 한가닥으로 국립공원이 도입, 보급된다. 공원이 생활의 중심을 이룬 유럽제국에서 국력 국가적 결집이 절실했던 때에 國立公園은 좋은 시책이 되었다. 좁은 국토가 이미 세부적 토지이용으로 짜여진 스페인, 이태리, 프랑스, 아이슬랜드 등 유럽제국이 좁은대로 國立公園을 지정했다.

아프리카 남미 등에 넓은 면적의 자연생태계 지역의 국립공원이 지정되고 이

용되기 보다는 자연보호가 우선되었다.

세번째는 擴充期(1940-1980)로 2차대전 이후 발발한 시기이며 UN, IUCN창설 등이 있었다. 2차대전 중에는 국립공원 관련 움직임이 없었고 전후 미국의 세계경찰국 가역할에 따라 미국식 생활, 통치, 문물 등이 전파되어 각국의 국토이용계획에서는 국립공원의 아이디어가 도입되면서 개념정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세계대부분의 국가가 국립공원제도를 도입하자 자연에 관한 최초의 UN이라 할 수 있는 IUCN(국제자연보호연맹)이 1948년에 창설되고 1969년 11월 뉴델리의 제 10차 IUCN총회는 國立公園에 관한 개념정의를 하게 되었다. 이 회의에서의 개념 정의는 각국의 동의를 얻어 국립공원창설 100주년을 맞아 열린 1972년의 제2차 국립공원대회에서 확정·채택되었다.

네번째로는 轉換期(1981-)인데 지속적 개발을 위한 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다. 國立公園은 자연보호지역의 개념이나 한가지 기준만으로 單一化, 劃一化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 시기라 할 수 있는데, 국유지, 국민의 이용증대, 자연풍경에서 출발한 미국식 개념과 이미 국토이용이 짜여지고 사유지, 취락 등이 분포되어 있어 임야와 들판까지 포함하여 국립공원을 지정한 유럽·동남아 등의 다양한 특성때문에 정의가 더 어렵게 되었다²⁾.

우리 나라 國立公園은 자연공원법에 “우리 나라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수려한 자연경관지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國立公園은 나라를 대표할만 하고 대외적으로 자랑할만한 자연의 경승지를 보호, 개발하고 유서깊고 이름난 사적을 보존하며 시민의 보건·정신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국가가 법에 의하여 지정한 공원이다.

한편 제10차 IUCN(국제자연보호연맹)총회 제2차 세계국립공원대회결의에 따른 국립공원 개념의 요건을 살펴보면 상당한 면적으로써 첫째, 하나 또는 몇개의 생태계가 인간의 개발이나 점유에 의하여 본질적 변화를 입지않고 동·식물의 종류와 지형학상의 위치나 풍습이 학술, 교육, 위락상의 관심대상이 되거나 자연적으로 뛰어난 경관미를 지닌 지역일 것과 둘째, 국가의 최고기관(중앙정부)이 전지역에서의 개발 점유를 신속하게 배제할 수 있고 지정요건인 生態學上, 地形學上, 美學上의 현상을 존중하도록 효과적인 강제를 할 수 있을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탐방객은 靈感, 敎育, 文化, 慰樂을 얻을 목적으로만 입장이 허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國立公園으로 지정시 배제되어야 할 요건으로는 첫째, 특별한 허가를

2) 안원태, “국립공원의 합리적인 보호와 이용-국립공원의 기능최적화방향설정-” 「국립공원」 제54, 55호, 한국국립공원협회, 1992, pp.15-16.

받아서만 들어 갈 수 있는 學術的 自然保全地域, 둘째, 國家最高統治機關이나 民間機關이 관리하는 自然保存地域, 셋째, 1968년의 아프리카 자연 및 자연보존협약에서 特別保存地域으로 정의한 지역(동·식물보존지역, 수렵금지구역, 조류보호구역, 지질 및 임상보호구역, 넷째, 관광개발계획을 위하여 景觀造成計劃 및 機關措置가 취해진 慰樂地域으로서 산업화, 도시화가 조정되고 야외여가활동이 생태계 보호에 우선하는 住居地域 및 開發地域 등이다.

1980년대의 UN리스트의 구분기준은 10여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① 세계의 유적, ② 국립공원 및 동등보호지역, ③ 자연보호지역, ④ 생물학적 보호구역 등이고, 1990년대의 기준은 ① 학술적 보호구역, ② 국립공원, ③ 자연기념물, 자연 표식물(標識物), ④ 자연보전지역, 자연관리지역, 야생동물보호지역, ⑤ 자연(해안)경관보호지역, ⑥ 자원보호지역, ⑦ 인류학상 보호지역, 생태학상 보호구역, ⑧ 다목적이용구역, 자원관리구역, ⑨ 생태보존지역, ⑩ 세계유산지역 등을 들 수 있다.

2) 國內 國立公園의 設定 背景과 制度의 發展

國立公園에 관해서는 개발, 보호의 주장이 다르며 그 이유는 國立公園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國立公園이란 그 나라를 대표할 만한 뛰어난 자연경관지로서 이를 보존하고 국민의 보건, 교화, 학술, 휴양, 정서생활에 기여하고자 국가에서 지정된 지역³⁾을 말한다.

세계최초의 國立公園은 미국에서 지정되었는데 이는 1870년 현재의 옐로우스톤(Yellow-stone)국립공원 내에서 한 탐험대의 격분을 계기로 1872년 90만헥타르의 땅이 세계 최초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國立公園은 그 나라의 대표적 경관이며 수많은 생태계의 자연자원을 간직하고 있다. 또한 국토내 대부분의 하천이 그 곳에서 발원하고 그 나라 국토공간의 생태적인 순환, 유지가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한 각급 공원에서 이루어지므로 國立公園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1967년 지리산이 처음으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1993년 현재 20개소의 국립공원이 설정되어 있다. 자연공원은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으로 나누고 있으며, 자연공원법의 목적은 국민의 야외 레크레이션 이용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한다. 즉, 자연공원의 지정,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적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의 보건, 휴양 및 정

3) 김장수, “국립공원과 휴양시설의 조화”, 「국립공원」 제27호, 한국국립공원협회, 1984, p.19.

서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개발이 행해지므로써 자연보호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자연공원법도 환경을 보호하는데 큰 문제를 노출하기 시작하고 국민소득의 증가, 도시집중화 현상에 따르는 여가선용으로 국립공원 이용에 따른 인원도 증가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국립공원 이용자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이에 따른 대응방안이 모색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따라서 이용자의 휴양시설을 시책으로서 강구하는 동시에 종전에 답습하여 온 국토보전 시책을 유지하면서 국민적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현실적 시책을 수립하여야 국립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국립공원제도의 효시는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1872년 미국이 Yellowstone을 國立公園으로 지정한 것이 된다. 모든 국민의 이용과 즐거움을 표방하는 공유물적인 국립공원의 개념의 탄생은 여러 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미국은 국토의 규모나 자연자원의 성격이 우리의 것과는 매우 다르지만 국립공원제도와 그 관리체제는 가히 세계 모든 나라의 표준이 되고 있으며, 이 제도는 널리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는 우리 나라를 비롯한 캐나다, 호주, 유럽 등으로 전파되어 오늘날 약 140여개국에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3) 國立公園의 利用과 起源

국토의 70%가 산야인 우리 나라에서 산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란 관점에서 볼 때 이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국립공원의 지정목적이 아름다운 경관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자연풍경을 어떻게 많은 국민이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國立公園은 국민의 自然希求性 餘暇活動을 우선적으로 수용하여야 할 당연한 책임구역으로 가장 현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인 국민여가수용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의 20개 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은 1991년 기준으로 총 3,400만명이었는데 여름철 해수욕장을 찾은 경우를 제외하면 약 3,000만명인 셈이다. 이 가운데 탐방객이 많은 공원은 북한산, 설악산, 계룡산, 지리산, 내장산, 속리산 등인데 북한산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탐방객이 설악동-신흥사(설악산), 동학사,

갑사(계룡산), 화엄사, 선은사-달궁(지리산), 내장사, 백양사, 사내리-법주사(속리산) 등 국립공원의 입구지역에서 즐기며 실제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요건이라 할 내부의 공원자원을 찾는 경우는 전체탐방객의 20%-30%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 나라의 기후는 여름이 짧아 바닷가 놀이 등 수변활동(水邊活動)이 발달하지 못했고 또한 경제적인 부담이 따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래서 등산, 산악형 여가활동이 매우 급속하게 널리 보급되고 있고, 대부분 국내에서 수용하여야 할 국민의 여가는 국립공원의 적절한 활용과 관련이 있다.

산악형 여가활동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 여가활동 특히 국립공원에서의 여가패턴을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으며 이는 국립공원의 이용에 있어서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기초를 이루는데 근간이 되어야 한다⁴⁾.

<표 II-1> 공원탐방 이용성향 유형

유형	유형별 공원탐방 이용성향
당일형 체제형	주경관지까지 최단시간도착희망(피스톤형) 충분한 시간으로 주변자원까지 감상(스폰형, 핀형)
휴양형 단련형	대표적인 자연경관, 분위기에 장시간 휴양(디럭스형) 목적지에서의 도달과정 중시, 감상은 2차적(트레이닝형)
답사형 전망형	학술 등 특정목적에 위한 조사가 목적(씨베이탐험형) 공원전체 또는 대표적 경관등을 한눈에 보려는 희망(오버뷰형)
가족형 동료형	가족의 구성에 따라 성향구분이 되나 대체로 휴양형(패밀리형) 노년층 등 특수한 경우 제외하면 대체로 단련형(펠로우형)
취사형 (자취형) 매식형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취사형(피스톤 쿠키형) 주요자원탐방을 겸하여 취사가 바쁜형(스폰, 핀쿠키형) 탐방범위가 좁고 주경관지를 피하는 형(페이드밀형) 주경관지를 탐방대상으로 하는 형(오버뷰페이드밀형)
개인형 단체형	청소년 등의 소단위 또는 개인적 탐방(유스프라이빌형) 노약자 등의 심신휴양을 위한 탐방(리쿠르트프라이빌형) 학생수학여행, 직장인소풍 등 단체탐방(그룹투어형) 관광여행전문업체의 모집에 의한 탐방(패키지투어형)

자료: 「국립공원」, 제 54, 55호, 한국국립공원 협회, 1992, p.20.

4) 안원태, 전계논문, pp.19-21.

國立公園의 지정이념으로 보아 적극적인 開發利用論이나 적극적인 嚴正保護論은 모두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다.

國立公園의 이용은 보다 구체적인 입지위치를 대상으로 검토되고 평가되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 나라 국립공원의 보호와 이용의 한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공원마다 다른 특성을 무시한 채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검토하고 평가하는 성향이 있다. 따라서 특정공원에 특정시설이 들어설 수도 또는 시설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도 있게 된다.

자연공원법의 입법취지의 측면에서 보면 국립공원의 적정한 이용,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그 이용체계, 이용시설들이 적정화, 합리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립공원의 개발에 있어 구체적으로 스키장, 골프장, 콘도미니엄, 索道, 로프웨이, 모노레일, 도로, 자동차야영장, 대형주차장 등의 시설물이 들어설 수 있는지 있어서는 안될지 등의 과제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공원의 필요성에 따라 공원이 지정되고, 이에 따라 공원의 관리도 필요하게 된다. 國立公園은 미국에서 최초로 지정되었으며, 역시 공원관리도 미국의 시스템이 타국가의 표본이 되고 있다. 요세미테, 그랜트, 북아메리카에서는 자원에 맞춘 공원관리가 100년 넘게 쓰여지고 있으며, 이는 1864년 캘리포니아에 이들 공원의 설립과 그 기원을 같이 하는 것이다.

요세미테공원이 최초로 직면한 문제는 이주자들과의 소유지 문제였다. 그러나 문제의 결과는 가능한 어디든지 점유되는 것을 못하게 함으로써 보호의 측면을 강조하였고, 1866년에는 처음으로 갤런 클라크가 관리인으로 지명되었다.

1891년 미국은 기병대를 새로 설립하여 요세미테 국립공원지역과 요세미테 그랜트의 2개지역을 보호하게 하였다. 1914년 기병대를 철수했는데 이때까지 공원의 경비, 순찰 등의 업무를 행하여 왔다.

1872년 옐로우스톤국립공원 설립후 미국에서는 공원관리를 연방에서 하도록 하였다.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의 최초관리자는 N. P. Langford였는데 예산부족으로 직원도 없는 정도였다. 1885년부터 1918년 까지 기병대와 공병대가 공원을 관리했는데 그들은 공원내에서의 무단거주, 법률위반, 밀렵 등을 성공적으로 관리하였다.

그 후 1921년 州공원에 대한 국가협의회를 최초의 국립공원청장인 S. T.

Mather가 소집하여 공원체계의 확장을 논의한 결과 현재 미국에는 4000여개의 독특한 국립공원이 있고 또한 구기관에 의해 통제되는 주유림, 야생동식물 보호지, 역사보호지 등이 공원체계에 포함되게 되었다.

2. 外國 國立公園의 管理實態

1) 地域別 國立公園의 特性

미국의 옐로우스톤이 1872년 國立公園으로 지정된 이래로 전 세계적으로 國立公園의 관심은 점증해 왔다. 각 대륙별로 國立公園의 현황을 살펴보면 대양주가 301개로 가장 많으나 면적에 있어서는 유럽이 1,059,563평방킬로미터로 가장 넓은 지역이 설정되어 있다. 시기적으로 가장 빠른 곳은 역시 미국의 옐로우스톤이 공원으로 설정된 북미지역이다.

<표 II-2> 세계의 국립공원 현황

대륙별	국가수	공원수	면적(Km ²)	최초도입연도	비고
북미	16	204	441,999	1872	미국 Yellowstone
남미	11	190	459,208	1915	우르과이 Franklin Delano Roosevelt
유럽	26	213	1,059,563	1909	스웨덴 Abisko 덴마크령 그린랜드
아프리카	40	159	674,580	1916	남아프리카공화국 Royal Natal
아시아	27	232	258,970	1934	일본 Setonaikai의 2개
대양주	5	301	212,250	1879	호주 Royal
계	125	1,299	3,106,570	-	-

자료: 국립공원관리공단(홍보실), 「세계의 국립공원」, 1993, p. 70.

(1) 北南美的 國立公園

世界 國立公園의 역사는 1872년 미국의 옐로우스톤 국립공원 탄생에서부터

5) 국립공원관리공단(홍보실), 「세계의 국립공원」, 국립공원관리공단, 1993, pp. 6-21.

시작되었고 13년 뒤 캐나다도 반프국립공원의 지정으로 국립공원 역사가 시작되었다. 북미, 특히 서부 태평양지역의 풍부한 대자연과 휴머니즘의 인식은 이를 고유재산화하여 보존하는데 인식의 계기가 되었다.

1993년 현재 미국의 國立公園은 50여개이며 이들은 국립공원청에 의해 관리되고 있고 캐나다도 역시 미국과 유사한 국립공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국립공원의 부류에는 국립공원외에 국립보호지, 국가보존물, 국립전적공원, 국립사적공원, 국립기념물, 국립전적지, 국립군사공원, 국립파크웨이, 국립레크레이션지역, 국립해빙지역, 국립하천지역, 국립보도, 국립수도공원, 1개의 국립물 및 백악관 등이 포함되어 매우 다종다양하다.

자동차의 등장과 더불어 1950년대 접어들어서는 폭발적인 탐방객의 증가로 공원내 자원의 피해가 속출하여 국립공원내의 캠프장의 제한, 소음규제 등 야생생물의 새로운 보호시스템이 도입, 시행되었다.

남미대륙에 있는 국립공원의 특성은 8,000km에 달하는 안데스산맥과 연장 6,300km에 이르며, 유역면적, 유량 등이 모두 세계최대인 아마존강 유역 등 남미대륙의 열대에서 한대에 걸친 장대하고 풍부한 자연이 있다는 것이다.

16세기 이후 유럽인의 남미대륙발견과 함께 식민, 방목, 화전 등이 끊임없이 계속되어 자연파괴가 급진전되고 마침내 자연보전의 인식이 싹트게 되었다. 국립공원제도의 도입은 1926년 칠레의 Vicente Perez Rosales국립공원이 남미에서는 최초의 국립공원이다. 그 후 본격적인 국립공원제도의 도입은 2차대전후 IUCN의 활동 등에 의해 고취된 자연보호의식의 영향이 크다.



(2) 유럽의 國立公園

대체로 인구밀도가 높고 국경이 밀집되어 있는 유럽의 國立公園은 일찍부터 자연의 개발이 이루어져 남유럽에서는 이미 14세기에 원시지역을 보기 힘들었다. 18세기경부터 자연보호사상의 인식이 높아져 19세기말에는 독일에서 처음으로 천연기념물 보존을 위한 제도가 생겼으며 미국의 국립공원제도의 영향으로 20세기 들어 각국에서 국립공원 지정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유럽의 최초 國立公園은 1909년 스웨덴의 Sarek, Abisko 등 5개 공원이다. 1914년에 지정된 스위스 유일의 스위스국립공원은 알프스의 동서부에 위치한 면적 169km²로, 이탈리아의 국경에 가까운 해발 2,000m를 넘는 산지이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의 북유럽 제국에서는 미개발 자연지역이 상당히 많으며 많은 자연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나 국립공원의 수는 적다. 영국의 國立公園은 뛰어난 자연미를 보유한 지역을 토지소유에 관계없이 공원지역을 지정하였으며 이들

공원지역은 山林, 農地, 牧野, 集落을 조합한 인공이 가해진 자연경관을 주요 요체로 하였다. 오스트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에서와 같은 토지이용 조건을 갖는 지역에서는 사유지를 포함하는 국립공원을 지정하고 있다. 유럽의 國立公園은 대체로 몇개를 제외하고는 수백 Km²의 작은 면적을 가지고 있다.

(3) 아프리카의 國立公園

아프리카는 연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대륙으로 열대기후, 온대기후, 사막기후, 고산기후 등의 지역이며, 기후에 따라 열대우림, 망그로브, 사반나, 스텝, 고산식생 등 다양한 식물과 대륙 중 가장 많은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최초의 자연보호를 외친 국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며 1884년에 트란스발주에 국립공원지정을 제창했으나 실현되지는 못하고 1897년에 3개의 야생동물 보호구가 지정되었다.

아프리카 식민지는 1956년이래 급속히 독립하여 사회정세가 급변하고 식량사정이 악화되어 성행하는 밀렵에 의해 야생동물의 수가 급격히 감소되다가 1962년 제1회 세계 국립공원회의가 시애틀에서 개최되어 선진국과 국제기구가 지도, 원조하도록 하는 결의로 국립공원 및 야생동물 보호구는 착실히 지정되어 갔다.

1980년 현재 國立公園은 146개(58만 Km²)이고 보호구역은 99개(30만 Km²)이다. 이들 국립공원에서는 수렵, 거주, 방목의 금지, 보호구역에서는 수렵은 금지되고, 거주, 방목은 규제를 받으면서 인정되고 있다.

남아프리카의 Kruger 國立公園은 면적이 19,485 Km²의 대공원인데 다종다수의 동물서식으로 인해 초지, 산림 등의 식생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적정수물정해 과잉동물은 제한하고 이로부터 나온 고기는 식용 및 공원관리비의 수입원으로 이용하고 식생은 불을 놓아 개량하고 있다.

(4) 大洋洲의 國立公園

대양주의 國立公園은 보통 호주와 뉴질랜드가 이에 속하며 이곳은 오랫동안 고립되어 자연의 변이에 의한 독특한 식생과 동물상이 형성되어 있다. 이들 국가는 일찌기 19세기 말에 국립공원제도를 도입하였다.

호주는 우리 나라의 35배에 달하는 광대한 국토를 가지고 있으나 상당부분이 사막지대이다. 식생은 유카리속 500여종과 아카시아 600여종이 優點種이며 동물은 캥가루, 코알라를 비롯한 有袋類 등의 특이한 생태를 가지고 있다.

뉴사우스 웨일즈에서는 1879년 로얄 국립공원을 지정하였는데 이는 미국의 엘

로우스톤 국립공원 다음의 제2의 국립공원이다. 이 國立公園은 잘 정비된 제도와 관리실태도 가지고 있으며 뉴사우스 웨일즈 지역에 60개의 국립공원이 있어 경관 보전 및 레크레이션 용도로 귀중하게 이용되고 있다. 퀸스랜드 주는 해안이나 대분수령 산맥이 있어 현재 79개의 국립공원이 지정되어 있고, 서쪽끝에 설정된 광대한 Simpson사막 國立公園은 황량한 사막의 전형적 경관을 보여주고 있다. 태즈메니아 주는 Cradle Mountain - Lake ST Clair 국립공원 등 12개의 국립공원을 가지고 있으며 변화가 다양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북부 특별지역에는 에이즈룩, 울루루 국립공원 등 8개의 국립공원과 South Australia 주에 10개, 빅토리아주에 23개소, Western Australia 주에 44개소 등 각주가 지정한 國立公園은 총 237개소이다.

뉴질랜드는 1840년 영국의 식민지가 된 후 1894년 통가리로 지역을 영국에 기증하게 되어 이지역이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북도에는 현재 4개의 국립공원이 있으며 남도에는 7개의 국립공원이 지정되어 있다. 공원의 시설은 국립공원관리위원회에 의하여 직접 정비·운영되며 특히 트러스트 호텔회사의 공적인 숙박시설은 대중의 이용에 공여되고 있다.

(5) 亞細亞의 國立公園

아시아의 국가들은 대부분 2차대전후 독립하여 전반적으로 경제개발이 늦어졌고 이를 만회하기 위한 과도한 개발로 자연파괴가 현저하였다. 따라서 국립공원 제도의 도입은 상당히 기피되어 온 경향을 보였다. 일본, 인도, 말레이시아 등 비교적 국립공원제도를 빨리 도입한 시기도 1930년대 였다. 1950년대 이후에는 세계적인 자연보호 관심과 함께 이지역도 환경보호추세에 점차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다.

인도는 1936년 호랑이와 코끼리 등 哺乳類保護를 위한 목적으로 코벳트국립공원을 지정하였고 1950년 영국의 식민지하에서 독립한 후, 국립공원 지정이 급속히 이루어져 1992년 현재 60여개에 달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10개의 국립공원이, 스리랑카는 11개의 국립공원이 있다. 한국은 1967년 공원법을 근간으로 지리산국립공원이 최초로 지정된 이래 1993년 현재 20개의 국립공원이 지정되어 있고, 대만은 1972년에 국가 공원법이 제정되어 1993년 현재 국립공원에 준하는 4개의 국가공원이 있다. 네팔은 1973년 로얄 티티우 국립공원을 지정한 이후 1992년 현재 7개의 국립공원이 지정되었고 중국은 1956년 이후 1993년까지 400여개소의 자연보호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나 아직 국립공원제도는 없다. 또한 몽고인민공화국은 3개의 국립공원이 지정되어 있다.

동남아시아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천연자원과 열대우림이 풍부하다. 1980년 이후 국립공원이 지정된 수마트라 섬에는 Gunung Leuser 국립공원 등 4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자바섬에 8개 등 모두 22개의 국립공원이 있다. 필리핀은 1946년 미국으로부터의 독립까지 10여개의 국립공원이 지정되었고 현재는 33개의 국립공원이 지정·관리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1936년 Taman Negara 국립공원이 지정된 후 현재 13개에 이르며, 태국은 열대몬순기후 지역에 속해 풍부한 樹林과 다양한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1961년 법제정에 의해 현재 58개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서아시아 국가들은 사막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란은 1957년 이래 7개의 국립공원을, 사우디아라비아는 1978년 유일하게 지정된 호아해연안의 Asir국립공원을 가지고 있다.

2) 各國의 國立公園 管理實態

(1) 美國의 경우

미국은 1872년 세계에서 최초로 옐로우스톤(Yellow-stone)국립공원을 지정하였으며 이 곳은 협곡, 온천, 호수 등을 가진 곳으로 화산과 빙하로서 아름다운 경관과 야생의 각종 자원 등이 풍부하다. 관리면에서도 자원관리, 야생관리, 수자원, 캠핑, 탐방자 관리정책 등이 분야별 전문가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수행되므로 국립공원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관리하여야 하며 어떻게 이용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방법이 계승·발전되어 오고 있으며 이러한 사상은 전세계 국립공원의 지정, 운영 등을 포함한 국립공원에 관련한 행정적 기능에 상당한 영향을 끼쳐왔다.

미국의 國立公園은 National Park, National Recreation Area, National Lakeshores, National River 및 National Seashores 등 5개범주 및 92개 소지역(area)으로 구분하고 각 공원은 1개 이상의 방문객 센터에 순찰경비원을 두어 정보안내, 공원자원보호 등을 맡고 있다.

미국은 1991년 현재 50개소의 국립공원이 있으며 공원의 총면적은 218,505평방킬로미터에 달하고, 국립공원의 예산은 국립공원을 비롯한 군사공원, 역사공원, 백악관 등 20개종류 333개소를 국립공원체계에 넣어 관리하고 주립공원은 각 주법으로 지정하며 시립공원 이하는 도시공원으로 지정하여 예산배정을 하고있다.

미국의 국립공원 현황은 <표 II-3>과 같다.

<표 II-3> 미국 국립공원 현황

국립공원 명칭	면적(지정연도)	주요 특징
Arcadia	41,888(1929)	동부연안에서 제일높은 Desert Islands
Arches	73,379(1929)	남부 유타주의 협곡지대
Badlands	242,756	수백년에 걸친 침식작용 지역
Big Bend	801,163(1944)	특이한 지질학적 모형 지역
Bis Cayne	173,467	산호초와 스쿠버다이빙이 유명
Bryce Canyon	35,835(1928)	색깔있는 지층 형성
Capital Reef	241,904(1937)	시간운동에 의한 바위층이 장관
Carlsbad Caverns	46,755(1930)	세계 제일의 동굴광장이 있음
Canyonlands	337,570(1964)	우뚝 솟은 암석지대
Channel Island	249,354	남부 캘리포니아 연안의 5개섬, 고래의 이동로
Crater Lake	183,224(1902)	폭발에 의한 분화구 및 호수 형성
Denali	4,766,726	미국에서 제일높은 Mekinley산이 솟아 있음
Everglades	1,506,499(1947)	플로리다에 위치한 조류의 천국
Gates of the Arctic	7,523,888	알래스카에 위치하며 북쪽한 봉우리, 계곡 등
Glacier	3,225,284	알래스카 남동부에 위치한 빙하만
Gradalupe Mountains	86,416(1966)	서부텍사스 사막에 펼쳐진 솟아있는 산
Grand Canyon	1,218,375(1919)	콜로라도의 대협곡
Grand Teton	309,994(1929)	우뚝 솟은 산등성이들이 장관을 이룸
Great Basin	109	동굴 및 산정호수, 가장 오래된 천연림
Great Smoky Mountains	520,269(1930)	오래된 산이 있고 하이킹, 낚시 가능
Haleakala	28,655(1961)	분화구가 많음
Hawaii Vikcanoes	229,177(1916)	활화산이 있음
Hot Springs	5,839(1921)	온천이 있음
Isle Royale	571,790(1940)	슈피리 호수에 있는 큰 섬
Katmai	3,716,000	공원내 급류강에서 낚시, 카누, 카약이 가능
Kemai Fijords	669,541	안개 및 강우량이 많다.
Kings Canyon	461,901(1940)	화강암산, 협곡, 초원, 빙하호수 등이 있음
Kobuk	1,750,421	계곡, 모래언덕 등
Lake Clank	2,636,839	호수, 산봉우리, 폭포 등이 뛰어남
Lassen Volcanic	106,372(1916)	화산활동중인 캘리포니아 북쪽의 Lassen봉 등
Mammoth Cave	52,419(1926)	세계 최장 동굴, 동굴관광유명
Mesa Verde	52,122(1906)	고대 인디언의 암굴수거 위치
Mount McKinley	(1917)	-
Mount Rainier	235,613(1899)	빙하 및 고봉이 있음
North Cascades	504,780(1968)	캐스캐이드 산맥의 고봉들도 유명
Olympic	922,654(1938)	우기림과 활등중인 빙하
Petrified Forest	93,533(1962)	석회림의 통나무 색깔이 다양
Platt	(1906)	-
Redwood	110,132(1968)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들이 자람
Rocky Mountain	265,198(1915)	미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층 및 골짜기
Sequoia	402,482(1990)	거대한 수목과 산림이 유명
Shenandoah	196,039(1926)	Skyline Drive가 105마일 놓여있음
Theodove Roosevelt	70,447	방문객 센터에 루스벨트의 전시장 등이 있음
Virgin Islands	14,689(1956)	열대공원으로 모래해변등이 있음
Voyageur	218,035(1971)	카누, 보트, 낚시 등을 할 수 있음
Wind Cave	28,295(1903)	공원에 있는 동굴내 공기의 흐름이 빠름
Wrangell St Elisa	8,331,604	미국내 가장 큰 국립공원으로 고봉들이 집결
Yellowstone	2,219,791(1872)	10,000개 이상의 다양한 온천이 있음
Yosemite	76,170(1890)	삼나무거목, 높은 화강암 등, 빙하 등이 있음
Zion	146,598(1919)	공원, 계곡, 매사, 버진강 등이 다채로움

자료: 한라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제공, 1993.

동아대백과사전 Vol.12, 1989, p.4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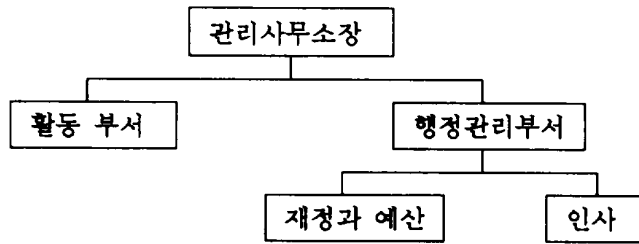
가. 國立公園 管理者 및 公園組織

미국의 국립공원 관리자는 크게 다섯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공원감독관 (superintendent)은 내무성 장관이 직접 임명하는데 전국에 244명이 있다. 둘째, 공원관리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는 Park Ranger인데 이들은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있으며 강력한 공권력과 서비스정신에 입각하여 법의 집행과 해석, 고유 분야에 대한 경험과 교육훈련, 탐색과 구조, 화재관리 등 전문 소양을 갖추고 또한 끊임없는 연구노력을 한다. 셋째, 공원 기술자(Park Technician)로서 일반인들은 Park Ranger와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초기에는 소송구제나 응급처치 등 조수업무를 행했으나 지금은 Park Ranger와 거의 같은 일을 하고 있으며 보수는 Ranger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넷째, 전문가(specialist)는 특정분야에 대해 전문화된 요원으로 통신전문가, 컴퓨터담당자, 생물학자, 전시(exhibit)전문가, 옥외레크레이션 전문가, 재무담당원, 간호사, 비행기조종사, 갑판원 등으로 자기분야에 대한 계획과 연구보고서를 내고 직접 공원관리에 반영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일반행정업무 담당자들이 있다⁶⁾.

공원조직도 역시 다른 많은 기관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내부적으로 공원의 기관은 계획적인 직무로 각기관의 직원들이 관리, 운영한다. 관리부서는 급료, 직원, 사무원 등 기관의 업무를 담당하고, 운영부서는 공원방문객이 목적달성에 필요한 순찰, 감독 등의 활동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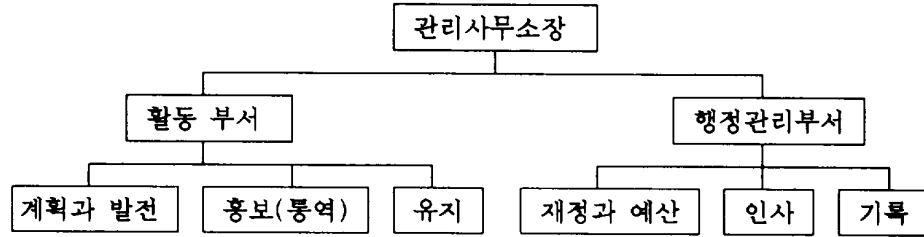
기관의 규모와 책임성의 복잡성에 따라 조직구조는 차이가 있으며, 작은 공원의 조직기관은 관리사무소장 아래에 활동부서와 행정적 서비스부서를 둔다. 중간 크기의 공원기관은 <도 II-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점차 더 세부적인 조직구조를 가진다.

<도 II-1> 중규모 공원의 기관



6) 「국립공원」 제53호, 한국국립공원협회, 1992, p.43-47.

<도 II-2> 대규모 공원의 기관



나. 國立公園의 利用規制

미국의 國立公園은 1970년부터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에 협곡내의 황폐화와 환경악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그랜드캐년 국립공원내의 일부 야영장은 900명이 정원이던 것을 그 10분의 1인 90명으로 삭감하였다. 그러나 보도마다 이용자를 제한하는 방법만을 썼기 때문에 협곡내의 일부 야영장에는 이용자가 집중하게 되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1983년에 Park Country계획이 작성되어 협곡내를 79개 지구로 분할하고 각 지구마다 야영허용인원수를 정해 현재까지 이용규제를 하고 있다.

이 이용규제는 크게 협곡내를 개발지구, 인구지구, 원시지구, 미개발지구의 4개지구로 나누고 각 지구는 지형, 지질, 식생 등의 자연조건에 따라 세분되었고, 그 이용구분에 따라 허용 이용량이 정해졌다. 그랜드캐년과 북부연변을 잇는 주요보도연변의 3개 야영장은 모두 개발지구로 구분되어 정원이 각각 90인, 50인, 40인으로 정해져 있다. 그 외의 지구는 Party(1~8명)수가 1~4Group(9~16인)수가 1~2의 범위로 허용량이 정해졌다. 17인 이상의 단체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야영이 금지되어 있다. 지정된 야영장에는 2박까지, 그 외의 지구에는 7박까지 야영이 허용된다.

협곡내에서 야영하는 사람은 사전에 예약을 하여야 하고, 입장하는 첫날 오전 9시까지 허가서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이용최성기에 그랜드캐년 촌의 야영장에서 취소를 기다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취해진 것이다. 허가서를 받지 않고 협곡내에 야영하는 사람은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를 막기 위해 Ranger는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있다.

야영 이용자는 누구나 인적이 적고 깨끗한 곳에 야영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쓰레기는 돌아갈 때 가지고 가야하고, 수원에서 30m이상 떨어져야 야영이 가능하고 식기나 의류 등의 세척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화장실이 없는 곳은 도로나 야영지에서 30m이상 떨어진 곳에 깊이 15cm의 구덩이를 파고 용무를 본 후 다시 묻

는 것이 원칙이다. 1986년의 협곡내 야영자수는 실수(實數)로 34,577명, 연수(延數)로 79,534명, 발행허가서는 12,225매 였다. 1987년 이후 유람비행도 강력히 규제되고 있고 콜로라도 강을 따라 보트를 타고 내려가던 보트유람도 규제되고 있으며 요시키테국립공원의 야영장도 허가제로 보도이용시 1그룹의 수가 25인으로, 보도이외의 지역을 걸을 때는 8인까지 밖에 허용되지 않고 있다⁷⁾.

다. 國立公園 管理計劃의 過程

미국의 관리계획과정의 사례를 보면 황야관리 계획의 개요와 계획을 거래하고 조직하기 위한 목표달성을 전제로 구성된다. 계획구성은 서두를 출발로 하여 목적, 대상물, 현재상태와 가정상태, 그리고 관리메카니즘 순으로 이루어 진다.

서두에서는 공원면적, 목적, 계획의 조직에 대한 간단한 서술을 하며, 전체전반적인 상황과 전략을 개관 및 요약한다. 목적에서는 법률적 조건, 부분적 지침, 국가기관 정책과 철학에 대한 개요를 언급한 국가적 방침과 특정황야의 관리를 위한 목적의 전체지역에 대한 진술로 구성된다. 대상물에 대해서는 중요한 관리 측면에 대한 대상을 언급하고 이어서 각 대상물에 대한 경향 및 상황 등의 현재 상태와 앞으로의 경향, 목적, 문제점 등에 대한 가정으로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현재상태와 미래에 대한 가정이 목표를 설정하는데 안내역할을 할 관리정책과 목적달성에 요구되는 프로그램 개발, 활동 그리고 기준 등이 포함된 관리활동이 수행된다⁸⁾.



(2) 英國의 경우

영국은 1949년에 오우와(Dower)의 보고에 따라 제정된 국립공원 및 전원이용법에 따라 1951년에서 1957년에 걸쳐 북부 호수지방 Lake District 등 國立公園은 11개소 14,032km²로서 잉글랜드와 웨일즈 총면적의 9.3%에 달한다. 연간 이용객수는 국립공원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데 Peak District가 연간 2천만명으로 가장 많고, Pembrokeshire Coast, Lake District 및 North York Moors도 연간 천만 명이 넘는다. 한편 각 국립공원의 연간 예산은 1986-1987년 기준 57만-371만 파운드인데 물가를 고려해 이를 우리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11억 78백만원에 이른

7) 「국립공원」, “환경원년의 자연공원관리방향”, 제 47, 48호, 한국국립공원협회, 1990, p.24.

8) U.S.D.A. Forest Service, 1976,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제공, 1993.

다. 토지의 대부분은 민간소유이며 따라서 약 20년간 거의 효과적인 발전을 보이지 못했다. 1970년대부터 정부보조가 이루어져 전문가를 고용할 수가 있게 되어 보존과 레크레이션의 2가지 목적을 달성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2가지 목적이 상반될 때에는 풍경보존을 중시하는 것이 상식이 되어 있다⁹⁾. 영국에 있어서의 이러한 국립공원 운영체계는 미국에서 점차 발생하기 시작하는 관리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가. 英國의 景觀保全地域 現況

영국의 경관보전지역은 <표 II-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크게 7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즉, 국립공원, 준국립공원, 국립경관지역, 자연경관지역, 자연경관지역, 해안경관지역, 자연보전지역 등이다. 국립공원제도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에만 있으며 스코틀랜드에는 이 제도 대신에 국립경관지역제도가 있고, Northern Ireland는 자연경관지역제도가 있다. 준국립공원은 햄프셔 주에 New Forest가 있다. 이곳은 1983년도에 약 80만명의 야영객과 연간 방문객이 925만명을 넘어설 만큼 단위면적당 이용객수가 다른 국립공원에 비해 많다.

<표 II-4> 영국의 경관보전지역 현황

구 분	개소	면적(Km ²)
국립공원(National Parks)	11	14,032
준국립공원(Equivalent areas)	1	375
국립경관지역(National Scenic Areas: Scotland)	40	10,018
자연경관지역(Areas of Outstanding Natural Beauty: AONBs: England & Wales)	37	17,084
자연경관지역(AONBa: Northern Ireland)	9	2,308
해안경관지역(Heritage Coasts)	40	1,370
자연보전지역(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s: England & Wales)	6	1,800

자료: 이경재, "영국국립공원의 관리실태", 「국립공원」 제46호, 1990, p. 31.

9) 「국립공원」 제27호, 한국국립공원협회, 1984, p. 24.

이경재, "영국국립공원의 관리실태", 「국립공원」 제46호, 한국국립공원협회, 1990, pp. 30-38.

<표 II-5> 영국의 국립공원 현황

(단위: 면적 Km², 탐방객 백만/연간, 직원수 명)

공 원 명	지정연도	면 적	탐방객수	직원수	특 징
Brecon Beacons	1957.04	1,350	7.0	36	풍경의 다양성
Dartmoor	1951.10	945	7.8	49	황야, 고적
Exmoor	1954.10	686	0.5	39	황야
Lake District	1951.05	2,280	12.0	104	산, 호수
Northumberland	1956.04	1,031	1.0	45	황야, 고적
Peak District	1951.04	438	11.0	51	초원, 강
North York Moors	1952.11	1,404	20.0	142	황야, 삼림
Pembrokeshire Coast	1952.02	583	12.5	63	해안, 해조
Snow Donia	1951.10	2,170	7.5	88	산, 호수, 해안
Yorkshire Dales	1954.10	1,761	8.5	62	황야, 초원, 강
The Broads	1988.05	287	0.7	-	-

자료: 이경재, “영국국립공원의 관리실태”, 「국립공원」 제46호, 1990, p. 32.

나. 國立公園 管理

가) 管理機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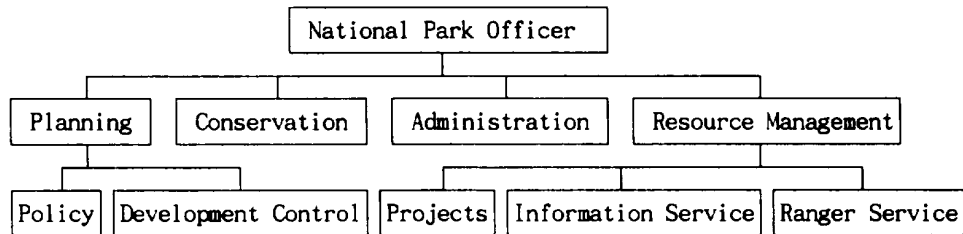
국립공원의 주요정책의 수립은 환경부에 속하는 풍치보전청(Countryside Commission)에서 하고 있으며, 이 기관의 각 국립공원에 대한 주요업무는 정부의 예산을 분배해 주는 일이고 나머지 업무는 1974년도부터 모두 주정부에 관리 전환하였다. 또한 영국 국립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중요정책을 결정하고 국립공원에 대한 홍보, 교육책자를 발행하여 일반 국민에게 판매하고 있다. 이부서의 주요정책은 다른 공공정책이 국립공원정책에 미칠 영향의 파악 및 대응, 국립공원내의 전통적 농업방법을 유지하기 위한 자금지원의 확대, 준국립공원인 New Forest의 보전, 국제교류의 유지, 국립공원내의 자연보전강화,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력유지, 자원봉사단체들과의 협력강화, 각 국립공원관리사무소간의 교류강화, 대기 및 수질오염으로부터의 국립공원의 보호 등이다.

국립공원관리기구는 국립공원위원회(National Park Committee)가 있으나, Peak District와 Lake District는 각각 The Peak Joint Planning Board 및 Lake

District Special Planing Board가 구성되어 있다. 국립공원위원회의 위원수는 각 국립공원의 실정에 맞게 21-54명까지 구성되며, 인원의 2/3는 국립공원의 행정구역내의 주에서 선출하고 1/3은 중앙환경부에서 선출한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예산확정, 직원채용, 공원계획 및 개발확정, 법적·기술적·관리적인 전문내용의 결정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지방정부는 국립공원에 대하여 공원목적달성에 정치적·기술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로 협조한다.

1974년 이후부터 각 국립공원에서는 관리소장을 채용하였으며, 관리소장 밑에는 계획, 경관보전, 토지관리, 안내실운영, 공원순시, 총무의 일을 책임질 직원을 채용하게 된다. North York Moons국립공원의 직원조직을 보면 <도 II-3>과 같다.

<도 II-3> North York Moons국립공원의 직원조직



자료: 「국립공원」, 제46호, 한국국립공원협회, 1990, p.36.

나) 管理計劃의 計劃過程

영국 국립공원의 관리계획과정을 도식화 하면 <도 II-4>와 같다. 목표에서는 토지관리를 강조하는 정책을 표명하고, 조사에서는 대상물에 대한 진술, 분석을 위한 기준점을 나타내면서 그 토지가 어떻게 관리되고 현재상태는 어떤지의 포괄적인 기록을 한다. 또한 토지 외적인 영향 및 제약요인도 포함된다.

분석단계에서는 토지관리에 대한 옵션이 시험되고, 현재의 토지사용과 잠재적인 사용간의 상호관련성을 시험한다. 잠재적 문제나 갈등이 있는 것은 확인되고 다양한 관심이 주어진다. 의사결정에 도달하는데서 부터 목표는 공식화된다.

관리목표단계에서는 목표가 장기적으로는 일반적인 수준에서 어떻게 수행되고, 단기적으로는 각 토지사용지역 및 관심지역내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세부진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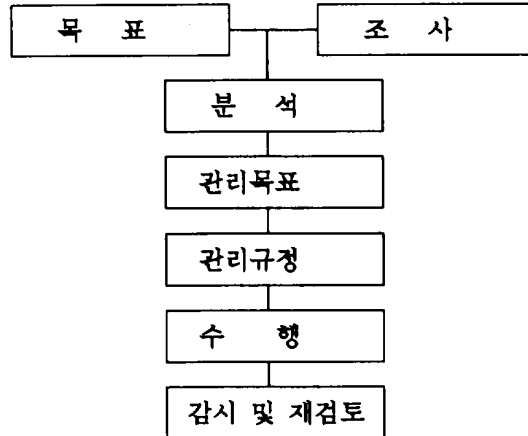
관리규정단계에서는 관리목표달성에 필요한 자원 및 요구되는 작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언급한다.

수행단계에서는 이루어져야 할 전반적인 직무요건에 입안된 통합적인 활동프

로그래밍의 세부적 결정이 있으며, 그러므로써 관리목표가 달성된다. 이 단계에서 연단위 프로그램이 개발된다.

감시 및 재검토단계에서는 주기적인 재검토에 대한 제안과 함께 관리달성도를 기록하고 평가한다.

<도 II-4> 영국의 관리계획의 과정



자료: U.K. Countryside Commission,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제공, 1993.

(3) 日本의 경우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가. 國立公園 管理體系

1934년 국립공원제도를 도입한 이래 <표 II-6>에 나타난 바와 같이 28개의 국립공원이 있으며 주요특성은 國家의 人力 및 豫算의 限界性과 國家 代表景觀의 稀貴性 강조로 새로운 국립공원 지정을 한정하고, 國定公園制 導入, 국가 지정으로 국립공원과 동격으로 인정하나 지방정부가 관리(54개소)하며, 도도부 현립 자연공원은 지방정부가 지정·관리(299개소)한다. 일본의 자연공원 관리업무는 1971년 설립된 환경청 자연보호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자연보호국에는 기획조정과, 계획과, 보호관리과, 시설정비과 및 조수보호과 등 5개과가 있는데 기획조정과 산하에 39개소의 현지 국립공원관리사무소를 두고 관리하고 있다. 환경청의 지시 감독을 받는 도도부현 자연공원 관리사무소와 민간비영리특수법인이 있는데 그

임무와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인·허가업무, 공원계획 및 공원사업의 결정과 변경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 및 조사, 공원계획의 재검토 및 기초조사, 공원의 보호 및 이용안내, 환경청 소 유 국유재산에 관한 업무, 시설정비관련 업무 및 미화 청소지도 등이다¹⁰⁾.

도도부현 자연공원관리사무소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주차장 등 자체설치시설의 유지관리를 맡는다.

<표 II-6> 일본의 국립공원 일람표

平成4年3月31日 現在

번호	國立公園名	指定年月日(昭和)	면적(ha)
1	利尻禮文サロベツ	49. 9. 20	21,222
2	知床	39. 6. 1	38,633
3	阿寒	9. 12. 4	90,481
4	釧路濕原	62. 7. 31	26,861
5	大雪山	9. 12. 4	230,894
6	支笏洞爺	24. 5. 16	98,332
7	十和田八幡平	11. 2. 1	85,409
8	陸中海岸	30. 5. 2	12,348
9	磐梯朝日	25. 9. 5	187,041
10	日光	9. 12. 4	140,164
11	上信越高原	24. 9. 7	189,062
12	秩父多摩	25. 7. 10	121,600
13	小笠原	47. 10. 16	6,099
14	富士箱根伊豆	11. 2. 1	122,686
15	中部山岳	9. 12. 4	174,323
16	白山	37. 11. 12	47,700
17	南アルプス	39. 6. 1	35,752
18	伊勢志摩	21. 11. 20	55,549
19	吉野熊野	11. 2. 1	59,798
20	山陰海岸	38. 7. 15	8,763
21	瀬戸内海	9. 3. 16	62,765
22	大山隠岐	11. 2. 1	31,927
23	足習宇和海	47. 11. 10	10,967
24	雲仙天草	30. 3. 16	24,653
25	阿蘇くじゅう	9. 3. 16	28,289
26	霧島屋久	9. 12. 4	72,680
27	西表	9. 3. 16	54,833
28		47. 5. 15	12,506

자료: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제공, 1993.

大崎清見, "일본국립공원의 과거와 현재", 제10회 자연공원학술세미나 주제논문, 한국국립공원협회, p.146.

10) 「국립공원」 제56호, 1992, 한국국립공원협회, pp. 45-51.

민간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재단법인 자연공원 미화관리재단은 공원청소, 안내판의 설치, 주차장, 야영장의 관리업무를 맡고 있으며, 재단법인 국민휴가촌 협회는 자체설치한 숙박시설, 매점, 주차장 및 야영장을 관리하고, 사단법인 국민숙사협회는 국립공원내에 설치된 숙사에 홍보 및 이용안내를 맡고 있다.

국립공원 청소 및 주차장, 야영장 관리 등 현업을 담당하고 있는 자연공원 미화관리재단은 1979년 설립되어 본부가 동경에 있으며 비상근인 회장과 이사장, 상근인 전무이사와 감사, 그리고 사무국산하에 3개과 및 조사역, 17개 지부를 두고 있다. 28개 국립공원 중 현재 13개 공원에 17개지부만 설치되어 있고 15개 공원은 미설치 되어 있는데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하는 재단의 경상수지를 고려하여 지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사실상 매 회계년도마다 경상수지를 맞추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90년의 경우 총예산은 약 75억원으로 그 수준은 미미하다. 이 재단의 간부진은 대개 환경청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다.

나. 國立公園 管理 및 利用實態

국립공원 관리기본법은 자연공원법으로 용도지구는 다음과 같다.

국립(국정)공원	육지(국립)	특별지역: 제 1, 2, 3종 특별지구(14,484Km ² , 71%)
		보통지역: 6,017Km ² , 29%
국립(국정)공원	해양	해중공원지구: 23개 국립(국정)공원, 57개지구 128개소
		보통지역: 해중공원지구, 1Km내 지역, 기타지역

자료: 박문규, "외국국립공원기행", 「국립공원」 제56호, 한국국립공원협회, 1992, p. 47.

국립공원 중 71%를 차지하는 특별지역은 이를 다시 1, 2, 3종으로 구분하여 훼손을 최소화하고 보호에 역점을 두면서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공원내에서 도로나 촌락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인 보통지역은 거의 행위규제가 없는 상태이다.

토지소유구분을 보면 國立公園은 국유지 61.5%, 공유지 14.1%, 사유지 23.7%, 소유구분 불분명 0.6%이다.

자연공원의 연간 탐방객은 28개 국립공원에 3억 7천만명, 54개 국정공원에 2

억 8천만명, 299개 도도부현립공원에 2억 7천만명 등 총 9억 2천만명이 자연공원을 탐방하고 있으며, 1975년부터 15년간 평균 13.1%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연평균 탐방횟수는 3.1회로 소득수준과 관광 및 여가선용의 성향 뿐만 아니라 공원의 수용력과 수용방법으로 인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¹¹⁾.

국립공원에 대한 입장료는 없으나 유료도로 통행료, 주차장, 야영장, 索道施設(케이블카 등) 등의 사용료를 징수하며, 공원관리인들은 일반공무원으로서 공원관리에 관련된 단속권을 행사하고 자연공원 미화관리재단직원은 민간인 신분으로 환경청에서 위임된 상당히 제한된 공원관리 현업만을 담당한다¹²⁾.

다. 公園施設設置 및 維持管理

주차장, 야영장, 공중화장실 등 공공편의 시설은 국고투자를 원칙으로 하고 공사는 지자체에 위탁하여 시행하며, 진입도로, 집단시설지구내의 도로, 상·하수도, 우수종말처리장 등 기반시설은 소관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다. 기타 숙박, 상업, 식도 등 편의시설은 보통 민자를 유치하여 설치 및 관리하고 있다.

공원내의 공공편의시설의 유지관리는 미화관리재단의 지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동 재단에서 관리하며, 지부 미설치공원의 경우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공원 기반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한다.

탐방객의 이용행태는 국립공원을 자연의 탐승·학습 및 휴양지로 인식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고 있으며, 관리당국에서도 탐방객 안내소, 자연학습원, 박물관, 학습프로그램 등을 공여하여 국립공원의 올바른 이용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도보로 직접 등반하는 것보다는 자동차나 식도 등 운송시설을 이용하여 주로 탐방이 이루어 진다. 탐방객은 주로 매점을 이용하여 식사를 해결하고 등반객은 대부분 도시락을 지참한다. 공원내에서의 취사행위는 야영장 등 지정된 장소만을 이용하고 야영객 외에는 거의 취사를 하지 않는다.

이러한 탐방행태의 특징은 공원내 체류시간의 단축으로 자연훼손 및 오물발생을 극소화함과 동시에 짧은 시간에 여러 지역의 탐방을 가능하게 해주고 탐방객

11) 양병이, “자연공원의 미래지향적 관리방안”, 「국립공원」 54, 55호, 한국국립공원협회, 1992, p. 25.

12) 박문규, “외국국립공원기행”, 「국립공원」 제56호, 한국국립공원협회, 1992, pp. 45-48.

안내소, 자연학습원, 식물원, 동물원, 박물관 등을 통한 국립공원과 자연보호에 대한 탐방객의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공원내 청소관리 체계는 크게 미화관리재단과 지자체가 시행하는데, 미화관리 재단은 주차장, 야영장 등의 시설을 중심으로 이와 연계된 탐방로, 등산로, 공중 변소 일원의 청소업무를 담당하며, 지자체는 미화관리재단이 담당하지 않는 지역과 집단시설지구내의 청소를 담당한다. 등산로의 오물처리는 방학기간 중에 아르바이트 학생을 고용하여 대청소를 실시하고 그 외는 지역유관단체의 자연보호행사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의존하고 있다. 청소에 소요되는 재원은 중앙정부, 지자체, 관리재단이 각각 1/3씩 분담하며, 중앙정부는 지자체와 관리재단에 청소보조금을 지원한다.

(4) 臺灣의 경우

1982년 국립공원제도를 도입한 대만은 4개의 국립공원(2,416평방킬로미터)이 있으며 國立公園法(National Park Law, 1972)에 따라 內務部(The Ministry of Interior)가 국립공원의 설립 권한을 가지고 있다. 1982년부터 5개의 國立公園은 303,527헥타르에 이르고 있으며, 地方山林廳(The Provincial Forestry Bureau)은 山林法(The Forestry Law)에 근거한 여타 종류의 피해와 벌채 등으로부터 동식물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6,600헥타 이상의 6개의 天然保護地域과 自然保全地域 등을 설치하였다. 觀光廳(The Tourism Bureau)은 屋外娛樂과 地域保護 등을 위한 다양한 풍광지역을 조성하였고 11개의 海岸地域이 파괴 또는 개발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모든 保護地域들은 綜合生態系保存地域, 單一生態系保存地域, 天然紀念物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대만의 자연환경 보전이 어려운 이유로는 첫째로, 자원에 대한 정보와 기본소양의 심각할 정도로 결여, 둘째로 무분별한 토지이용, 토지의 함몰, 홍수, 가뭄, 땅의 부식, 저수지의 누수 그리고 지하수의 고갈 등이다. 셋째로 인간의 활동에 대한 부적절한 관리는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주며, 넷째로 영향 평가없이 건설계획에 의하여 방해받는 자연생태계의 불균형, 다섯째로 생태계 활동에 대한 이해 부족은 천연자원의 상당한 濫用과 亂用을 가져다 준다. 여섯째로 短期的인 經濟發展에 중점을 두면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일곱째로 급속한 都市化와 產業化는 환경의 이면에 있는 상당한 위험성을 왜곡하며, 여덟번째로 자연보호의 지정과 구체화를 위한 평가기준의 결여와, 중복되면서 분산되어 있는 行政當局 등으로는 환경을 효과적으로 보존할 수 없다. 따라서 환경보전의 기본적인 취약점으로 첫째, 環境倫理의 결여, 둘째, 천연자원을 위한 法의 부적절성, 셋째, 정책집행, 법집행, 조직과 구조적인 역기

능, 기획감시 그리고 실질 평가, 낙후되거나 불완전한 정책 수행의 지속 및 행정력의 부족, 넷째, 천연자원에 대한 불충분한 기본 연구 및 기획 연구, 다섯째, 개념의 부족, 여섯째, 생태계의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빈약한 이해, 일곱째, 長期的인 社會福祉에 앞서서 短期的인 이득만을 얻으려는 경제개발 철학, 여덟째, 주민들로 하여금 개발에 따르는 높은 社會費用만 지불하게 함으로써 외부적인 요인에 기초를 두는 경제개발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문제를 고려하지 않거나 이것들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분리해서 취급하려는 환경관리에의 접근 등의 요인에 있다.

國立公園은 천연자원, 이국적이고 경치 좋은 지역, 그리고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는 動·植物에 대한 생태균형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는데 이러한 공원들은 사람들에게 娛樂와 思索을 위한 자연의 安息處를 제공해 준다. 1972년 이래로, 많은 학자들과 환경보호론자들이 世界에 있는 自然公園들을 보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모임을 갖게 되었다. 國立公園法委員會가 내무부에 의하여 조직된 연후에, 유안 立法에 의하여 승인되고 1972년 6월 13일부로 總統에 의하여 공포되었다. 그러나 1982년 9월에 이르러 최초의 국립공원이라 할 수 있는 켄팅(Kenting)국립공원이 설치되었다. 유스 한(Yushan)국립공원(1985년 4월), 양밍산(Yangmingshan)국립공원(1985년 9월), 타로코(Taroko)국립공원(1986년 11월), 후슈에바(Hsuehba)국립공원(1992년)등이 설치되었다. 이는 전 국토의 7%정도가 5개의 국립공원면적이다. 울치트(Orchid)섬에 있는 여섯번째의 국립공원을 설치하려는 계획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승인을 받았지만, 섬의 原住民들로부터의 반발이 계획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각 국립공원들은 5개의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 즉 생태계보호, 특수풍치지구, 역사보전, 오락과 일반관리지역 등이다. 이것들 중에 세번째 지역까지는 주의를 갖고 보존해야 한다. 국립공원의 官吏들은 資源을 위한 보존안들과 다른 연구들을 고취시키고, 대중교육과 이해를 위한 기획을 집행하며, 수렵금지과 다른 법적인 조치들을 강화시켜야 한다.

국립공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연자원의 이용과 보전을 규정한 국립공원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립공원의 행정직원들은 건축, 토목공학, 임학, 지리학, 조경학, 동물학, 식물학, 고고학 등에 있어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들은 기획, 디자인, 관광, 연구활동 등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 國立公園警察은 천연자원보전을 위하여 조력을 하고 방문객의 안전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5) 기타 主要國家의 경우

캐나다의 國立公園은 1886년 지정한 Glaciers 국립공원을 비롯해 1991년 현재 40개에 이르고 있다. 공원관리는 국립공원법에 의해 환경부 캐나다인 공원청이 시행하고 있으며 총 국립공원 면적은 180,807평방킬로미터에 달한다.

멕시코의 國立公園은 1936년 지정한 Elgornon 국립공원을 비롯해 32개에 이르고 있다. 공원관리는 생태균형 및 환경보호에 관한 종합법률(구국립 및 국제공원 규정, 산림법)을 통해 도시개발 및 생태계부가 시행하고 있으며 총 국립공원 면적은 7,604평방킬로미터에 달한다.

스웨덴의 국립공원제도 도입은 1909년에 이루어졌으며, 이 때 Abisko 국립공원 등 6개가 지정되었다가 현재는 16개 국립공원에 총 면적 5,916평방킬로미터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스웨덴 환경보호청에 의해 자연보존법으로 보호·관리되고 있다.

스페인에 미국이 실시한 국립공원 정책을 제일 먼저 도입한 유럽의 국가로서 관계법령은 1916년 마련되었고 1918년에 처음으로 Asturias에 위치한 Montana de Covadonga (Pena Santa)와 Argon의 피레네산맥에 있는 Valle de Ordesa 국립공원이 지정되었다¹³⁾.

스페인은 인구밀도가 상당히 높아 국유지의 면적이 적다. 1918년에는 자연지역을 보존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많은 반대가 있었다. 이유는 첫째, 대규모 토지경제와 농촌의 높은 인구밀도와 둘째, 지배계급이 광대한 경작지역의 소유자였으며 그들이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제한하는 법률에 민감했기 때문이다.

1954년에는 Canary에 2개의 국립공원이 설립되었고 1957년에는 Pyreness에 Aigues Tortesy Lago de San Mauricio의 공원이 지정되었다. 현재 9개의 국립공원 1,227평방킬로미터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스위스에서는 西部國立公園은 1914년 4월 3일 법이 국회에 통과됨으로써 설립된 것이고 현재의 국립공원 경계는 1959년 10월 1일의 법으로 확정되었다. 면적은 168km²이고 가장 높은 곳은 3,164m에 이르고 있다. 설립목적은 과학연구의 대상으로 두자는데 있다. 기후, 지형조건으로 보아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 볼 수 없

13) 「국립공원」 제 39, 40호, 한국국립공원협회, 1988, p.37.

는 특성이 있다¹⁴⁾.

호주는 국토의 상당부분이 강우량이 적고 황량한 사막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자연경관은 단조롭고 동일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식생은 호주의 상징인 유카리속 500종과 아카시아 600종이 優點種이며, 동물은 캥거루, 코알라를 비롯한 유대도 등의 동물상을 가지고 있다. 호주의 최초의 공원은 1879년의 Royal 국립공원이며 이는 세계 제2의 국립공원이다. 현재는 285개의 국립공원이 환경 및 자연보호법령의 보호하에 있다.

3. 韓國 國立公園의 實態

1) 國立公園의 概要와 管理

우리 나라는 1967년 3월 법률 제1909호로 공원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6월과 7월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각각 제정되었다. 이 법은 “우리 나라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수려한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적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의 보건과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대한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67년 12월 29일에 우리 나라 최초의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국립공원을 지정 고시한 이래 현재 20개의 국립공원이 지정, 관리되고 있다.

자연공원은 현재에 사는 우리들이나 미래의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까지 자연의 안식처로 영원히 보존하여야 할 자랑스러운 우리들의 자원이 되는 것이며 해를 거듭할수록 이용도와 이용범위가 더욱 넓어져 가고 있다. 국내의 자연공원은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등 3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국내의 행위규제가 가장 엄격한 자연보존 지구가 8.6%, 자연환경지구 89.4%, 취락지구 1.6%, 집단시설지구 0.4%로 자연환경지구가 가장 많으며 토지소유구분은 옥지면적을 볼 때 국·공유지 56.7%, 사유지 35%, 사찰지 8.3%로 사유지의 면적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

한편 현행법에 의한 용도지구별 기준 및 허용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면 <표 II-7>과 같다.

14) 「국립공원」 제27호, 한국국립공원협회, 1984, p.24.

<표 II-7> 현행법에 의한 용도지구별 기준 및 허용행위

용도지구	지구기준	허용행위
1. 자연보존지구	자연보존상태가 원시성을 가지고 있거나 보존할 동·식물 또는 천연기념물 등이 있거나 자연풍경이 특히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곳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술연구 또는 자연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2.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사업 3. 군사시설·통신시설·항로표식시설·수원보전시설 등으로서 이 지역이 아니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 4. 관할도지사를 거쳐 문화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사찰의 복원과 사찰경내지의 불사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설치 5. 자연보존상태의 원시성이나 수려한 자연풍경을 현저히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산림법에 의한 조림·육림 및 입도의 설치
2. 자연환경지구	자연보존지구·취락지구·집단시설지구를 제외한 전지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연보존지구에서의 허용행위 2.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1차산업행위, 초지조성행위 3. 밀집하지 아니하는 공원시설의 설치 및 사업 4. 조림·육림·벌채 기타 국방상, 국민경제상, 공익상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5. 공원이정 이전의 기존 건축물로서 자연풍경과 조화되도록하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증축, 개축, 재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3. 취락지구	주민의 취락생활 및 농경지 또는 농어민의 생활근거지로 유지,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연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에서의 허용행위 2. 주거용 건축물, 주거생활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주민생활환경 조성행위 3. 취락지구의 자체기능상 필요한 제반시설의 설치 및 행위 4. 공해를 발생하지 아니하는 가내공업 5. 건설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의원, 약방, 이용원, 미용원, 일상용품 판매시설설치
4. 집단시설지구	공원입장자에 대한 편의 제공 및 공원의 보전, 관리를 위하여 공원시설이 집단화되었거나 집단화되어야 할 곳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탐방휴양에 적합한 공원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행위

자료: 「국립공원」 제 53호, 한국국립공원협회, 1992, p.19~20.

1970년 전반까지 중앙정부가 담당했던 국립공원 업무는 실제적인 업무를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놓고 있었으므로 실질적인 국립공원의 관리는 도지사 와 군수의 계획과 시행령에 따라 지역진흥업무의 일환으로 다루어졌으며 지방도 포장을 국립공원 사업비라는 이름으로 마무리 짓기도 하였다. 오늘날 국립공원예의 투자는 대부분이 공원밖의 진입도로 포장에 쓰였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당시로서는 국립공원이 있기에 지역에 준 혜택으로 도로포장이 첫째였다.

1980년대 후반에는 국립공원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 윤리 등을 앞세워 중앙정부차원에서 많은 논란이 되었는데 그 요지는 국립공원이 자연보호의 첫째가 되어야 하는데 관광지, 지역개발 유발인자 등으로 훼손되고 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는 중앙정부가 전국계획의 입장에서 전문적인 관리를 해야한다는 취지에서 1987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발족되었다. 이 때부터 3년간 국립공원행정의 소관을 놓고 건설, 산림, 환경, 내무행정기관은 서로의 적성을 내세우며 맡기를 원하게 되어 제도도입 당시에 서로 미루던 일을 생각하면 이제 국립공원이란 행정대상이 중앙정부의 중요기능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립공원의 전문관리기구로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정부는 공원관리청의 직무 중 일부 즉, 국립공원지역내 산림, 기타 자연자원의 보호·공원시설의 유지관리와 안전관리·공원사업시행 및 점유사용 인허가업무 등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대행하도록 하였다. 공원구역내에서의 산림법, 식품위생법, 관광사업법, 공중위생법, 문화재보호법, 초지법, 도로법, 하천법, 건축법 등 유관법률과 자연공원법과의 법적용에 관한 해석의 차이, 공원사업시행에 있어서의 地自體 및 주민관의 마찰, 불법행위단속(채취, 포획 등)에 대한 비협조 등은 바로 직무의 일부만을 대행하는 부분관리청이라는데 그 원인이 있다.

2) 國立公園의 現況

(1) 國立公園의 現況

국내에는 1992년말 현재 해상공원 3개소를 포함하여 20개의 공원이 있으며, 면적은 해상공원 3개소(2,648.543Km²)를 포함해 6,473.113Km²에 이르고 있다. 토지의 소유비율은 국유지 74.4%, 공유지 0.4%, 그리고 사유지가 25.2%이다. 한라산 국립공원의 경우는 1987년 국유지가 96.8%, 사유지가 4.8%로 사유지는 공원북측 제1한라관광도로변에 분포하고 있다.

<표 II-8> 국내의 국립공원 및 그 범위

대행기관	국립공원명	공원 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의 범위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전부
"	계룡산 "	"
"	설악산 "	"
"	속리산 "	"
"	내장산 "	"
"	가야산 "	"
"	덕유산 "	"
"	오대산 "	"
"	주왕산 "	"
"	서산해안 "	"
"	다도해해상 "	"
"	북한산 "	"
"	치악산 "	"
"	월악산 "	"
"	한려해상 "	여수시 수창동 오동도지구 28.9Km ² 이외 여수시 수창동 오동도지구 28.9Km ²
전라남도 도지사	"	공원지구 전부
경상북도 도지사	경주 "	공원지구 전부
제주도도지사	한라산 "	공원지구 및 공원보호지역 전부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 "	"
"	변산반도 "	"
"	월출산 "	"

자료: 노용희, '자연공원관리의 취약성', 제10회 자연공원학술세미나 주제논문, 한국국립공원협회, 1989, p. 32.

<표 II-9> 국립공원의 시설현황

구분 공원	야영장		주차장		편익/공공시설 (개소)				오물 처리 장 (개)	입장 료매 표소 (개)	관리 사무소 (개)	상업 시설 (개)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화 장 실	대 피 소	휴 게 소	전 망 대				
계	16	1,004,502	43	414,077	372	45	63	9	374	86	23(15)	335
지리산	6	72,210	9	70,540	65	8	2	1	93	7	3(4)	6
경주	-	-	-	23,316	-	-	-	-	-	-	-	-
계룡산	1	1,512	2	22,700	-	1	2	1	11	2	1	18
한려해상	1	10,500	4	17,421	-	-	-	1	1	3	1	-
설악산	1	37,920	7	50,243	42	11	14	1	26	6	1(3)	22
속리산	2	14,425	3	32,224	41	3	13	1	44	8	1(3)	180
한라산	-	1,650	-	7,588	-	-	-	-	-	-	-	-
내장산	1	9,228	2	82,950	26	5	4	1	30	4	2(1)	10
가야산	-	28,870	3	10,920	12	2	-	1	6	3	1(1)	53
덕유산	1	541,200	3	29,076	27	1	2	-	14	2	1	12
오대산	-	42,327	1	14,767	14	4	-	-	3	5	1(1)	7
주왕산	1	3,429	-	7,905	12	1	3	-	2	2	1(1)	3
서산해	-	9,300	-	13,969	13	-	-	-	3	1	1	17
다도해해상	-	88,000	-	500	29	-	-	1	20	7	1	7
북한산	1	85,320	4	19,921	32	8	14	-	87	19	2(5)	-
치악산	1	6,611	-	3,537	7	-	-	-	5	5	1	-
월악산	-	52,000	4	6,500	25	-	5	-	17	2	1	-
소백산	-	-	-	-	8	-	3	-	5	4	2	-
변산반도	-	-	-	-	13	-	1	1	3	3	1	-
월출산	-	-	1	-	6	1	-	-	4	3	1	-

주: ()안은 분소이며, 파악된 된 것은 최근자료로 갱신.

자료: 국립공원관리공단 내부자료, 1989.7.

<표 II-10> 국내 국립공원의 현황(1)

공원명칭	구분	국립공원지정일, 면적 그리고 주요자원
지리산 국립공원	현황	1967. 12. 29 440.485km ²
	주요 자원	산봉: 천왕봉, 세석평전, 반야봉, 토끼봉, 노고단, 문만복대, 임걸령, 삼도봉, 와시루봉, 제석봉 등; 계곡: 피아골, 한신, 뱀사골, 칠선, 대성, 백무동; 사찰 등: 화엄사 각황전, 연곡사(현각선사탑) 등
경주 국립공원	현황	1968. 12. 31 138.16km ²
	주요 자원	산봉: 토함산, 금오산, 선도산, 단석산, 옥녀봉 등; 왕릉: 무열왕릉, 문무대의수증왕릉; 문화재: 불국사 다보탑, 3층석탑, 석굴암 석굴, 갑은사지3층탑 등
계룡산 국립공원	현황	1968. 12. 31 61.15km ²
	주요 자원	산봉: 천황봉, 쌀개봉, 연천봉, 삼불봉, 관음봉; 계곡: 동학사, 갑사, 용화사, 백암동, 사찰 등: 갑사, 동학사, 오누이탑(남매탑)
한려해상 국립공원	현황	1968. 12. 31 510.323km ²
	주요 자원	경관: 거제해금강, 남해대교, 오동도, 동백숲, 한산섬, 제승당, 구조라, 상주, 비진도 등의 해수욕장; 천연기념물: 거제도의 팔손이나무 자생지, 삼천포학섬의 백로, 왜가리도래지
설악산 국립공원	현황	1970. 3. 24 373km ²
	주요 자원	산봉: 대청봉, 화채봉, 한계령, 마등령, 대승령, 가리봉, 절봉산 등; 계곡: 천불동, 가야동, 은수동, 수렴동, 구곡담, 백담사; 사찰: 신흥사, 백담사, 오세암, 봉정암
속리산 국립공원	현황	1970. 3. 24 283.4km ²
	주요 자원	산봉: 천황봉, 비로봉, 묘봉, 남산, 수창봉, 관음봉; 계곡: 사내천, 삼가저수지, 오송폭포, 정각폭포; 문화재: 법주사 팔상전, 석연지
한라산 국립공원	현황	1970. 3. 24 151.35km ²
	주요 자원	산봉: 한라산, 백록담, 사계비동산, 만세동산, 삼각봉; 오름: 어승생, 위세, 성널, 사라; 계곡: 개미, 성판악, Y계곡, 구구, 영실, 어승생; 천연기념물: 제주도의 한라(191호)
내장산 국립공원	현황	1971. 11. 17 76.302km ²
	주요 자원	산봉: 신선, 서래, 백학, 불출, 문필, 장군, 상왕, 옥녀, 사자; 계곡: 금선, 백암, 남창, 폭포: 도덕, 용수, 금강; 천연기념물: 내장산의 굴거리나무(91호), 백양사 비자나무 분포 북한지대(153호)
가야산 국립공원	현황	1972. 10. 13 80.163km ²
	주요 자원	산봉: 가야산, 두리봉, 남산, 단지봉, 매화산, 이상봉; 계곡 등: 가야, 용문폭포, 낙화담, 홍류동, 용기폭포; 문화재: 해인사 팔만대장경 판고4동, 대장경판 81,258매
덕유산 국립공원	현황	1975. 2. 1 219km ²
	주요 자원	산봉 등: 제1덕유산, 제2덕유산, 적상산, 칠봉, 거칠봉, 두문산, 동엽령 인월담, 주월담, 구천폭포, 구천동 33경; 문화재: 적상산성, 나제봉문

<표 II-10> 국내 국립공원의 현황(2)

공원명칭	구분	국립공원지정일, 면적 그리고 주요자원
오대산 국립공원	현황	1975. 2. 1 298.5km ²
	주요 자원	산봉: 비로봉, 노인봉, 상왕봉, 두노봉; 계곡 등: 소금강청학천, 무룡, 구룡폭포, 군자폭포, 구룡연, 상팔담, 연화담; 사찰 등: 월정사, 상원사 동종, 금강사, 절멸보궁, 아미산성, 망군대
주왕산 국립공원	현황	1976. 3. 30 105.58km ²
	주요 자원	산봉: 금은강이, 태행산, 연화봉, 장군봉; 계곡: 월외, 내주왕, 내원; 사찰: 대전사, 연화사
서산해안 국립공원	현황	1978. 10. 20 328.99km ²
	주요 자원	산봉: 북국사봉, 국사봉, 남국사봉; 바위: 학암, 떡바위, 등대석, 남매바위, 할미바위, 할아비바위, 문두절벽, 거북바위 등; 사찰: 태국사, 소근진성, 안흥진성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현황	1981. 12. 23 2,344.91km ²
	주요 자원	동굴: 금오도동굴, 나로도관통굴, 텅텅굴, 흑산도 칠성굴, 석화굴
북한산 국립공원	현황	1983. 4. 2 78.45km ²
	주요 자원	산봉: 북한산, 백운대, 인수봉, 만경봉, 노적봉, 장군봉, 도봉산, 만장봉; 계곡: 도봉, 우이, 정릉, 다라니, 진관; 문화재: 신라 진흥왕순수비(국보 3호), 구기리마야석가여래좌상(보물 215호)
치악산 국립공원	현황	1984. 12. 31 182.09km ²
	주요 자원	산봉: 비로봉, 남대봉, 매화봉, 삼봉, 향로봉; 계곡: 구룡사, 입석대, 상원사, 금대리, 태종대; 천연기념물: 성황림
월악산 국립공원	현황	1984. 12. 31 284.5km ²
	주요 자원	산봉: 월악산, 용두산, 만수봉, 문수봉, 하설봉; 계곡: 덕주, 신흥사, 만수; 사찰: 덕주사, 신흥사
소백산 국립공원	현황	1987. 12. 14 320.5km ²
	주요 자원	산봉: 비로봉, 국망봉, 제1연화봉, 제2연화봉, 도솔봉, 신선봉; 계곡: 죽계9곡, 회방, 죽령, 어의; 문화재: 부석사 석등(17호)외 6개 숙수사당간지주의 문화재
월출산 국립공원	현황	1988. 6. 11 41.88km ²
	주요 자원	산봉: 주지봉, 도갑산, 월각산, 구정봉, 노적봉, 사리봉, 천황봉, 사자봉; 계곡: 도갑사, 천황사; 문화재: 도갑사 해탈문, 미륵전 석조좌불상
국립공원	현황	1988. 6. 11 157km ²
	주요 자원	산봉: 쌍선봉, 옥녀봉, 갑납산, 덕성봉; 기암: 채석강, 적벽강, 신선암, 망포대, 울금바위; 사찰 등: 내소사, 개암사 대웅전

(2) 國內의 國立公園 利用 現況

국내의 공원성격상 산악 및 자연탐방이 주를 이루는 국립공원의 1982년부터 1988년까지 탐방객수는 <표 II-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평균 약 17%의 증가추세를 보여왔고, 특히 경관성이나 접근성이 양호한 국립공원의 탐방객은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지속적인 탐방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국립공원과 비교해 볼 때 국내의 국립공원 이용객은 연간 3천 8백만명이 탐방을 하고 있어 국민 1인당 연평균 0.9회로 상당히 낮은 편이다.

<표 II-11> 국립공원의 탐방객 추이

(단위: 천명)

연도 공원	1982	1984	1986	1988	계	증가율
계	16,271	26,152	28,388	37,989	164,063	17.2
지리산	986	1,228	1,147	2,093	7,431	15.8
경주	3,667	3,747	4,089	5,010	26,954	4.8
계룡산	968	1,201	1,187	1,459	7,693	8.0
한려해상	2,610	2,731	2,401	3,961	16,517	21.0
설악산	2,517	2,285	2,462	2,716	16,426	5.9
속리산	1,000	1,138	1,628	1,629	9,239	5.8
한라산	123	157	182	258	1,090	13.6
내장산	1,397	1,180	1,061	1,271	8,392	1.2
가야산	678	1,323	945	895	6,107	10.4
덕유산	526	420	479	896	3,324	20.2
오대산	455	489	507	597	3,395	4.3
주왕산	312	281	340	568	2,160	13.6
서산해안	844	1,515	1,643	1,561	9,079	12.3
다도해	188	333	414	482	2,059	17.0
북한산		6,813	8,579	11,334	38,916	15.3
치악산		242	258	358	1,015	10.3
월악산		1,069	1,066	531	4,266	-15.4
소백산				474		
변산반도				1,595		
월출산				301		

자료: 건설부(자연공원과), 업무현황, 1989.7.

3) 漢拏山 國立公園

(1) 公園의 沿革 및 區域現況

가. 公園沿革

한라산은 1970년대에 설악산 및 속리산과 함께 전국 20개 국립공원 중 5번째로 지정된 국립공원으로, 공원계획 결정후 몇 차례의 공원계획변경과정을 거쳤으며 그 연혁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970. 3. 24: 국립공원 지정, 면적 133 Km²(건설부 고시 제28호)
- 1973. 9. 1: 관리사무소 개소(제주도 조례 제457호)
- 1973.12.12: 공원계획(개발 및 보전) 결정 고시(건설부 고시 제 28호)
공원보호구역 지정(면적 약 19 Km²)(건설부 고시 제12호)
- 1974.12.26: 공원계획 변경 고시(건설부 고시 제143호)
단독시설 변경(휴게소 및 전망대 각 1개소 추가지정
영실집단지설지구내 공공관리지구의 위치 변경)
- 1975. 4. 14: 공원계획 변경 고시(건설부 고시 제47호)
성판악 집단시설지구 위치 변경
단독시설변경(휴게소 및 야영장 각 1개소 추가지정)
- 1987. 3. : 한라산국립공원 계획(장기 계획)이 보완·수립되어 목표년도를 2001년으로 하여(1단계 '87~'91, 2단계 '92~'96년, 3단계 '97~2001) 용도지구계획, 시설유치계획, 공원관리계획 및 개발추진대책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1987. 8. 7: 관리사무소의 기구확대(2과 2지소, 정원 64명)

나. 公園區域 自然環境

본 國立公園은 濟州道의 중앙에 위치하며 동경 126° 27' 50" ~ 126° 37' 55" , 북위 33° 19' 10" ~ 33° 25' 35"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공원의 총 면적은 1992년말 현재 공원보호구역 2.35 Km²를 포함해 151.35Km²이며 이 중 자연보존지구가 25.1Km², 자연환경지구가 123.9Km²이다. 그리고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은 91.384Km²이다. 공원구역을 행정구역기준으로 살펴보면 제주시가 54.29Km²(35.9%)로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고, 서귀포시가 37.98Km²(25.1%), 북제주군이 30.42Km²

(20.1%), 그리고 남제주군이 28.66Km²(18.9%)이다.

본 국립공원의 구역은 남한에서 가장 높은 한라산(해발 1,950m)을 중심으로 주변의 산간지역을 포함하며 지형표고는 대부분 해발 600m이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사는 백록담을 기준으로 동서사면은 5~9%의 완만한 경사와 남북방향은 9~12%의 약간 급한 사면으로 형성되어 있다. 산체의 지형은 아스피테형 화산으로 이루어진 유년기 지형에 속하며 공원구역내에 기생화산, 조면암질의 기암절벽, 계곡 등이 다수 분포되어 있다.

한라산 일대의 지질은 신생대 제3기의 프라이오세 서귀포층과 신생대 제4기 플라이스토세의 성산층 및 화순층 등의 퇴적층과 현무암, 조면암질 안산암 및 조면암 등의 화산암류, 기생화산에서 분출된 화산쇄설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역에 발달된 주상절리와 수령절리로 인해 오백나한, 왕관바위, 삼각봉 및 선녀폭포 등 기암절경이 자연경관 형성의 주요 요소가 되고 있다¹⁵⁾.

토양상태를 보면 정상주변은 암석지로 형성되어 있고 토양의 모재는 대부분이 현무암이며 지형과 기상의 영향으로 표토유실이 심하고 식생의 영향으로 유기물 함량은 높은 편이다. 토성은 미사질식 양토이고 토양반응은 산성이며 토양비옥도는 낮은 편이다¹⁶⁾.

濟州道는 아열대성 기후대로서 연평균 기온이 15℃정도에 이르고 있어 내륙지역보다 2~4℃가 높아 우리 나라에서 가장 온난한 기온분포를 나타내며 한라산의 기온분포는 온대로부터 한대에 이르는 기후대의 수직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나 일조상태, 기류상태 및 지세 등의 영향으로 체감율은 불안정한 편이다. 또한 강수량의 경우 지난 1985년부터 1990년까지의 평균 강수량이 1,658mm로써 여름철에 집중되고 있으며, 한라산 700~800고지의 경우는 약 3000mm, 1100고지가 3500mm로서 고지가 높을수록 강수량이 높게 나타났다¹⁷⁾. 국립공원의 바람은 여름철의 태풍과 겨울철의 강한 계절풍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풍속 10m/sec가 넘는 강풍일수가 100일을 넘고 있다. 천기일수에 있어 쾌청일은 여러 가지 기후요인에 의해 대체로 구름낀 날이 많은 관계로 연간 40~70일에 이르고 있다.

15) 건설부, 한라산국립공원계획, 1987, pp. 22~26.

16) 고동희, "자연보전형 관광지관리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p. 48.

17) 고동희, 상계논문, p. 48.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1991, p. 61.

다. 登·下山 코스現況

1992년 말 현재 백록담으로 통하는 등산 코스는 어리목, 영실, 성판악, 관음사, 돈내코, 어승생 등 6개코스가 있다.

어리목(970고지): 7.5Km, 소요시간 4시간

2.5Km 1Km 1.2Km 2Km 0.8Km

어리목--->사제비동산--->만세동산--->윗세오름--->남벽--->정상

영실(1280고지): 6.5Km, 소요시간 3시간 30분

3.7Km 2Km 0.8Km

영실----->윗세오름----->남벽----->정상

성판악(750고지): 9.6Km 소요시간 5시간

3.4Km 2.6Km 2Km 1.6Km

성판악----->속밭----->사라악----->진달래밭----->정상

관음사(620고지): 9.3Km, 소요시간 5시간

1.6Km 2.6Km 3.4Km 0.7Km 1Km

관음사--->구린굴--->탐라계곡--->개미목--->용진각--->정상

돈내코(500고지): 10.1Km, 소요시간 6시간

5.8Km 3.5Km 0.8Km

돈내코----->방아오름----->남벽----->정상

어승생(970고지): 1.3Km, 소요시간 40분

(2) 探訪客의 利用行態

탐방객수의 연도별 추세를 살펴보면 1992년 말 현재 427,617명이 탐방하고 있으며 이 중 도외인의 비율이 75%, 외국인이 0.5%를 차지하고 있다. 탐방객의 유형은 정상등반성격을 띤 등산객이 대부분이며 월별로는 5월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1970년대의 저소득사회에서는 자연을 즐기고 감상하는 휴식공간으로 국립공원을 찾는 정적·휴양형 탐방행태였으므로 공원관리는 일상적 편의시설의 설치와 유지보수로 충족될 수 있었으나 1980년대에 접어들어 고소득산업사회로의 진입과 국제화 시대의 개막으로 탐방행태는 외향적, 진취적 경쟁사회의 생활양식이 요구

하는 동적 위락관광형 레포츠시대로 급변하여 공원관리 또한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1990년대에는 정보화의 심화로 더 많은 탐방욕구를 자극함으로써 양적인 팽창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보호와 이용간의 균형이 유지되기 힘든 시기를 맞아 기존의 수동적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전문화된 관리체제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한라산의 주요탐방행태는 어승생지역의 등산을 통한 산악과 계곡의 자연경관 탐방에 있다. 또한 국립공원의 이용객수는 국내의 다른 국립공원과 마찬가지로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한라산국립공원 이용객은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수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지난 1980년 이후 1986까지의 국립공원탐방객의 수는 연평균 8.6%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1992년에는 427,617명이 공원을 탐방하여 6년전인 1986년에 비해 251,433명이 늘어 약 2.5배 이상이 증가했다.

<표 II-12> 한라산의 탐방객 현황

(단위: 명)

연	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합 계	계	176,184	206,697	256,365	350,200	362,321	386,441	427,617
	개 인	124,449	121,281	142,526	199,080	197,519	209,194	221,562
	단 체	51,735	85,416	113,839	151,120	164,802	177,247	206,055
일 반	계	98,990	111,229	139,563	201,508	229,321	236,928	278,998
	개 인	87,879	91,598	103,807	152,198	158,281	167,948	178,068
	단 체	11,111	19,631	35,756	49,310	71,040	68,980	100,930
군 인 및 학 생	계	74,425	92,704	111,359	143,217	127,833	141,607	136,286
	개 인	34,164	28,703	36,458	45,022	37,297	37,293	37,690
	단 체	40,261	64,001	74,901	98,195	90,536	104,314	98,596
어 린 이	계	2,769	2,764	5,443	5,475	5,167	7,906	12,333
	개 인	2,406	980	2,261	1,860	1,941	3,953	5,804
	단 체	363	1,784	3,182	3,615	3,226	3,953	6,529
입장수입(천원)		58,270	66,218	82,425	114,370	138,362	149,756	189,460

자료: 제주도 관광협회, 관광자료집, 1991, 1992.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제공, 1993

(3) 主要施設 및 投資 現況

가. 施設物 現況

공원내의 시설물은 공원관리지소, 대피소, 공중화장실, 휴게소, 기타 건축물,

등산로, 야영장, 식수원, 기타 안내판 등이 있으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원관리지소는 공원구역내 시설의 유지와 탐방객의 안전관리 등을 위해 영실, 어승생, 관음사, 성판악 등 주요 등산코스입구에 4동의 공원관리사무소가 입지하고 있으며 특히 영실 및 어승생 공원관리지소에는 산악구조대가 상주하여 긴급조난에 대비하고 있다. 대피소는 탐방객들이 조난위험에 닥쳤을 경우 대피장소로 이용되고 평상시에는 등산객을 위한 편의시설의 용도로 활용되며 영실 및 어승생코스에 4동, 관음사코스에 3동, 성판악코스에 2동, 윗세오름지구에 2동, 돈내코코스에 1동 등 총 12동이 있다. 휴게소의 경우는 성판악 휴게소, 1,100고지 휴게소 및 영실휴게소 등 3개소가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성판악휴게소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토산품점, 1,100고지휴게소는 전망대를 겸한 식당과 매점, 영실휴게소는 등산객과 행락객을 위한 휴게소 겸 매점으로 이용하며, 한편 이들 휴게소 중 영실휴게소는 오백나한과 근접해 있어 자연경관의 시각적 침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기타 산장 및 임시파출소가 위치하고 있다.

한라산 등산로는 백록담을 향하여 각 방향에서 접근하는 6개코스가 있으며 야영장은 관음사지구에 50,248㎡규모의 야영장과 돈내코 지역에 설치되어 있다.

나. 投資 現況

1971년부터 2000년 까지 국립공원개발에 필요한 재정부자소요는 7,000억원이나 실제로 계획에 반영된 것은 약 3,000억원이며 1993년까지 투자된 2,884억원도 공원구역 밖인 진입도로개설 및 포장에 상당부분 쓰였고, 공원내 편의시설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이 투입되었을 뿐이다. 1971년에서 2001년까지의 현재 실행되어 온 국내국립공원개발 투자계획은 <표 II-13>과 같다.

<표 II-13> 국립공원개발 투자계획

연 도	투자액(억원)	기투자액	'93년	장래투자액(억)
전 체 백분율(%)	2,884 100	2,067 72	317 11	500 17

자료: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제공, 1993.

주요 시설에 대한 투자현황은 <표 II-14, 15>와 같으며 한라산 국립공원의 투

자내용은 관리사무소, 대피소, 부대시설, 화장실, 교량, 접속도로, 급수시설, 등산로정비, 매표소, 전망 및 휴게소, 이정표, 각종 표시판, 위험암반제거, 전기시설, 배수로정비, 사택정비, 식재 및 연못공사 등이다.

국립공원에 대한 시설투자는 1984년-1990년까지는 국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1991년 이후는 지방비가 더 많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민간투자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투자비가 적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표 II-1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도별 투자액이 지리산이나 한려해상, 속리산, 내장산, 다도해 해상, 월악산 등 대부분의 다른 국립공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한라산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하는 다른 18개 공원과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표 II-14> 한라산국립공원 주요 시설에 대한 연도별 투자현황 (단위: 천원)

연도	투자총액	지방비(%)	국비(%)	민간투자(%)
1975	50,065.28	1,279 (2.55)	48,786.28 (97.45)	0(0.00)
1976	168,677.77	5,608 (3.32)	163,069.77 (96.68)	0(0.00)
1977	3,861	3,861 (100)	0 (0.00)	0(0.00)
1978	34,950	4,950(14.16)	30,000 (85.84)	0(0.00)
1979	268,633	25,945 (9.66)	0 (0.00)	242,688(90.34)
1980	8,470.5	8,470.5(100)	0 (0.00)	0(0.00)
1981	186,139	15,470 (8.31)	11,000 (5.91)	159,669(85.78)
1982	58,424	8,424 (14.42)	0 (0.00)	50,000(85.58)
1983	52,289	34,089 (65.19)	18,200 (34.81)	0(0.00)
1984	347,274.42	0 (0.00)	347,274.42 (100)	0(0.00)
1985	365,114.81	9,300 (2.55)	355,814.81 (97.45)	0(0.00)
1986	174,412.46	17,152 (9.83)	157,260.46 (90.17)	0(0.00)
1987	346,830	22,630 (6.52)	324,200 (93.48)	0(0.00)
1988	98,890	6,290 (6.4)	92,600 (93.6)	0(0.00)
1989	276,100	59,800 (21.7)	216,300 (78.3)	0(0.00)
1990	706,265	24,250 (3.4)	682,015 (96.6)	0(0.00)
1991	1,230,349	643,249(52.2)	587,100 (47.8)	0(0.00)
1992	1,309,170	718,286(54.9)	590,884 (45.1)	0(0.00)

자료: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제공, 1993.

<표 II-15> 연도별·공원별 투자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	'87까지	1988	1989	1990	1991	1992
	계	81,926	19,229	21,692	22,300	25,586	27,977
지리산		27,270	5,507	4,426	3,920	3,446	3,206
경주		516	-	130	-	50	70
계룡산		2,260	879	842	1,536	898	852
한려해상		10,294	1,979	1,599	789	618	780
설악산		7,256	941	1,427	1,432	1,084	1,067
속리산		3,359	1,334	1,964	895	768	932
한라산		1,055	98	276	706	1,230	1,309
내장산		3,386	1,453	1,229	1,199	1,676	1,525
가야산		1,371	33	57	59	80	163
덕유산		8,159	97.5	80	263	221	354
오대산		6,996	416	1,114	1,220	956	1,657
주왕산		1,938	799	432	350	792	811
태안해안		2,133	985	734	551	1,588	1,924
다도해해상		3,353	2,709	2,505	3,608	5,634	6,120
북한산		420	431	377	418	794	963
치악산		1,390	877	1,670	1,668	1,488	796
월악산		770	690.5	1,257	1,332	1,023	1,015
소백산		-	-	1,168	1,272	1,374	1,187
월출산		-	-	249	413	964	1,013
변산반도		-	-	156	669	902	2,233

자료: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제공, 1993.

국립공원관리공단 업무현황, 1992.

(4) 資源 및 自然保存 現況

가. 動·植物 現況

한라산의 서식동물은 대부분이 한국본토와 공통된 종류이나 지리적 관계로 인하여 대륙계·일본계 및 남방계 동물이 함께 살고 있어 학술적 가치가 비교적 높게 평가되고 있다. 특산종으로는 제주족계비, 제주도롱뇽 및 제주등줄쥐 등이 있으며 화산활동 및 본토와의 격차 등으로 포유동물의 분포가 매우 빈약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표 II-16> 국립공원의 동물분포 현황

종류	동물현황
포유류	노루, 오소리, 제주족제비, 제주등줄쥐, 제주멧밭쥐, 제주따쥐, 제주관박쥐, 삿, 애급쥐, 다람쥐, 사슴, 생쥐, 곰쥐 등 6목 10과 19종
조류	솔개, 팔색조, 박새, 장박새, 칼새, 직박구리, 방울새, 멧새, 두견이, 때까치, 굴뚝새, 휘파람새, 오목눈이, 멧비둘기, 매, 평, 유리딱새, 큰오색딱다구리, 노랑할미새, 호랑지빠귀, 삼광조, 산술새, 곤줄박이, 진박새, 동박새, 어치, 까마귀, 바다직박구리, 흰배지빠귀, 큰유리새, 큰부리가마귀, 말뚝가리, 삻꾸기, 파랑새, 제비, 붉은 가슴(1종), 발총다리(1종), 개똥쥐빠귀 등 18목 52과 236종
파충류	대륙유혈목이, 쇠살모사, 도마뱀, 실뱀, 누룩뱀, 중장지뱀, 비바리뱀, 유혈목이 등 1목 5과 9종
양서류	참개구리, 북방산개구리, 무당개구리, 금개구리, 움개구리, 청개구리, 제주도롱뇽, 두꺼비, 맹꽁이 등 2목 6과 9종
곤충류	돌잠, 깃동잠자리, 모메뚜기, 여치, 곱등이, 흰개미, 땅노린재, 말미충, 산호랑나비, 줄고치벌, 남방부전나비, 제주밀드리메뚜기, 대벌레, 청부홍메뚜기, 노랑다리하늘소 등 19목 194과 1,601종

자료: 건설부, 한라산국립공원계획, 1987, p.29.
 내무부, 한라산국립공원자원조사, 1992, pp.147-175.

한라산지역에 자생하고 있는 식물은 총 1,795종으로 밝혀져 있으며 해발 고도에 따라 온대낙엽활엽수림대로부터 한대침엽수림대까지 식물분포의 다양함을 나타내고 있다. 해발 1,200m이하의 온대낙엽활엽수림대의 주요 수종으로서는 서어나무류, 참나무류 및 단풍나무류 등으로써 식생천이 과정의 극상을 보이고 있으며 초본식물로는 등굴레, 솜대, 흰계비란 및 천마 등이 분포되어 있다. 반면 해발 1,200m이상 한대침엽수림대의 주요 수종으로는 구상나무, 괴불나무 및 주목, 병꽃나무 등이 분포하고 특산식물로는 좁갈매나무, 섬매자나무 등이 있으며 압매, 들쭉나무, 눈향, 시로미 등의 소관목과 섬잔대, 섬취손이, 제주황기 등 다수의 고산성 식물이 분포되어 있다. 한편 제주조릿대는 한라산 낙엽수림대의 주요 수종이며 시로미, 진달래, 눈향, 산철쭉 및 주목, 구상나무 등의 군락은 한라산의 주된 식생경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성판악 등산로가 있는 동사면의 식생은 서어나무, 개서어나무, 물참나무 등으로 구성되는 낙엽활엽수림대와 구상나무가 대부분인 상록침엽수림대, 산철쭉, 털진달래, 괴불나무 등으로 구성되는 왜생저목군락(僞生低木群落), 눈향나무 등의 풍형저목군락(豊衡低木群落), 산겨이삭, 제주조릿대, 좁겨이삭 등의 초원지대 등이 있다.

영실 및 어승생 등산로가 있는 서사면은 서어나무, 개서어나무, 물참나무 군락 등으로 구성되는 낙엽활엽수림대와 구상나무 군락으로 대표되는 상록침엽수림대, 털진달래, 산철쭉, 시로미, 괴불나무 등으로 구성되는 고산 관목림대, 제주조릿대, 산겨이삭, 좁겨풀 등으로 형성된 고산초지대로 나타나고 있다.

돈내코 등산로가 있는 남사면의 식생은 서어나무, 개서어나무 군락 등을 대표하는 낙엽활엽수림대와 구상나무가 주요 우점종인 상록침엽수림, 산철쭉, 털진달래, 괴불나무, 보리장나무 등으로 구성되는 관목림으로 특징지어진다.

관음사 등산로가 있는 북사면의 식생은 다른 사면에 비해 습도가 높고 토양발달이 양호해 삼림식생의 발달이 양호하다. 서어나무, 개서어나무, 물참나무, 물참나무 등을 우점종을 하는 낙엽활엽수림대와 구상나무가 대부분인 상록침엽수림이 대부분이다.

백록담 주변은 구상나무, 털진달래, 산철쭉, 산겨이삭 군락 등으로 형성되어 있다. 백록담의 동사면과 북사면은 구상나무 군락, 서사면은 구상나무, 털진달래, 산철쭉 군락이 형성되어 있고, 평지에는 화분과, 사초과 식물로 덮여있다. 주요 구성종은 시로미, 미역취, 곰취, 호장근, 패랭이꽃, 바늘엉겅퀴, 구름채꽃 등이고 특히 암매 군락이 북쪽 능선부의 암벽에 붙어 자생한다¹⁸⁾.

18) 내무부, 「국립공원자연자원조사-한라산 국립공원」, 1992. 9, pp.123-129.

<표 II-17> 국립공원의 식물분포 현황

표고별	주요수종
1,200m이하	제주조릿대, 사스래피, 흰새덕이, 여름새우란, 쯤비비추, 사철란 개미담, 황철나무, 큰천남성, 팡팡나무, 주목, 졸참나무, 솔비나무, 때죽나무, 옷놀이나무, 서어나무, 마가목, 쥐똥나무, 분단나무, 덜꿩나무, 참꽃나무, 생강나무, 회입나무, 보리수나무, 산매자나무, 너도밤나무, 덧초, 줄사철나무, 국수, 충충나무, 애기나리, 단풍나무, 흰살부추 등
1,200m~ 1,600m이하	주목, 굴거리나무, 시로미, 소나무, 짙레, 물참나무, 너도밤나무, 옷놀이나무, 충충나무, 까치박달, 단풍, 곰취, 개승마, 감자란, 쯤비비추, 애기나리, 옴나무, 철쭉, 회입나무, 물푸레나무, 마가목, 팔배나무, 섬노린재, 고채목, 노루귀, 사철란, 구상나무, 병꽃나무, 팡팡나무, 국수나무, 산딸나무, 산톱풀, 질경이, 가시엉겅퀴, 털진달래, 아그배나무, 보리수나무, 초피나무, 솔비나무, 두릅나무, 덜꿩나무, 청미래덩굴, 때죽나무, 비목나무, 물매화, 제주조릿대, 서어나무, 화살나무, 복분자딸기, 쥐똥나무, 한라부추, 산수국, 섬매자나무, 한라돌쩌귀, 백리향, 함박꽃나무, 제주산버들, 옷놀이나무, 설앵초, 양지초 등
1,600m이상	눈향나무, 시로미, 구상나무, 털진달래, 고채목, 매자나무, 병꽃나무, 제주조릿대, 산수국, 보리수나무, 산매자나무, 송이풀, 오이풀, 바늘엉겅퀴, 잔대, 분취, 바람꽃, 원추리, 한라구정초, 물매화, 용담, 쥐손이풀, 설앵초, 꿀풀, 암매, 주목, 떡버들, 산철쭉, 백서향, 바위떡풀, 한라돌쩌귀, 한라돌창포, 체꽃, 큰앵초, 산톱풀 등

자료: 건설부, 한라산국립공원계획, 1987, pp.30~31.

나. 公園資源 現況

본 공원의 자원은 주봉인 한라산을 비롯하여 신생대 제3기에서 제4기까지의 화산활동에 의한 분화구 및 기생화산 등이 다수 분포되어 있고 상밭, 속밭 등 고원들이 해발 1,100m이상 지역에 산재하여 있다. 탐라계곡, 어리목계곡, 구구계곡 등의 계곡과 영실오백라한 등의 수려한 기암절벽이외에 “궤”라 불리우는 동굴로서 구린굴, 평굴 등 7개소의 동굴이 곳곳에 분포하고 있다. 폭포로는 천왕사 부근의 구구곡에 선녀폭포가 있고 그 외 천연기념물 및 사찰 등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인문자원이 빈약한 편이다.

<표 II-18> 한라산국립공원의 자원 현황

구 분		자 원
자연자원	산봉 및 분화구	한라산, 백록담, 사라악, 어승생악, 물장울, 논고악, 동수악, 흙붉은오름, 성널오름, 개미목, 삼각봉, 불래오름, 어슬렁오름, 사계비오름, 윗세오름, 어후어름 등
	고원	속밭, 상밭, 윗세오름일대, 장구목, 큰두레밭, 삼형계봉 일대 등
	기암	백록담 서·남벽, 99곡, 영실오백라한, 왕관바위, 알막은다리 기암·절벽, 옷막은다리 계곡의 기암 등
	계곡	탐라계곡, 어리목계곡, 구구계곡, 효돈천계곡, 성판악계곡, 수악계곡, 도순천계곡 등
	동굴	구린굴, 통괘, 용진굴, 등터진괘, 평괘, 상괘, 넓은상괘
	폭포	선녀폭포
인문자원	문화재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182-1호, 90.93평방킬로미터)
	사찰	관음사, 천왕사

자료: 건설부, 한라산국립공원계획, 1987, p. 41.

4. 實態의 要約

세계적으로 국립공원제도의 효시는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1872년 미국이 Yellowstone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것이 된다. 모든 국민의 이용과 즐거움을 표방하는 공유물적인 국립공원의 개념의 탄생은 여러 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미국은 국토의 규모나 자연자원의 성격이 우리의 것과는 매우 다르지만 국립공원제도와 그 관리체제는 가히 세계 모든 나라의 표준이 되고 있으며, 이 제도는 널리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는 우리 나라를 비롯한 캐나다, 호주, 유럽 등으로 전파되어 오늘날 약 140여개국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은 관리면에서 자원관리, 야생관리, 수자원, 캠핑, 탐방자 관리정책 등이 분야별 전문가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수행되는데 미국의 국립공원청은 National Park, National Recreation Area, National Lakeshores, National River 및 National Seashores 등 5개범주 및 92개 소지역(area)으로 구분하고 각 공원은 1개이상의 방문객센터에 순찰경비원을 두어 정보안내, 공원자원보호 등을 맡고 있다. 국립공원 관리자는 첫째, 공원감독관(superintendent)은 내무성 장관이 직접 임명하는데 전국에 244명이 있다. 둘째, 공원관리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는 Park

Ranger인데 이들은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있으며 강력한 공권력과 서비스정신에 입각하여 법의 집행과 해석, 고유분야에 대한 경험과 교육훈련, 탐색과 구조, 화재관리 등 전문 소양을 갖추고 또한 끊임없는 연구노력을 한다. 셋째, 공원 기술자(Park Technician)로서 일반인들은 Park Ranger와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초기에는 소송구제나 응급처치 등 조수업무를 행했으나 지금은 Park Ranger와 거의 같은 일을 하고 있다. 넷째, 전문가(specialist)는 특정분야에 대해 전문화된 요원으로 통신전문가, 컴퓨터담당자, 생물학자, 전시(exhibit)전문가, 육외레크레이션 전문가, 재무담당원, 간호사, 비행기조종사, 재판원 등으로 자기분야에 대한 계획과 연구보고서를 내고 직접 공원관리에 반영하고 있다. 기관의 규모와 책임성의 복잡성에 따라 조직구조는 차이가 있으나, 대규모 공원의 조직기관은 관리사무소장 아래에 활동부서와 행정적 서비스부서를 두고 활동부서 밑에는 계획과 발전, 홍보, 유지 등의 하위부서가 있고, 행정관리부서 밑에는 재정과 예산, 인사, 기록 등을 담당하는 하위부서가 있다.

영국 국립공원의 주요정책의 수립은 환경부에 속하는 풍치보전청에서 하고 있으며, 이 기관의 각 국립공원에 대한 주요업무는 정부의 예산을 분배해 주는 일이고 나머지 업무는 1974년도부터 모두 주정부에 관리 전환하였다. 또한 영국 국립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중요정책을 결정하고 국립공원에 대한 홍보, 교육책자를 발행하여 일반 국민에게 판매하고 있다. 이 부서의 주요정책은 다른 공공정책이 국립공원정책에 미칠 영향의 파악 및 대응, 국립공원내의 전통적 농업방법을 유지하기 위한 자금지원의 확대, 준국립공원인 New Forest의 보전, 국제교류의 유지, 국립공원내의 자연보전강화,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력유지, 자원봉사단체들과의 협력강화, 각 국립공원관리사무소간의 교류강화, 대기 및 수질오염으로부터의 국립공원의 보호 등이다.

국립공원관리기구는 국립공원위원회가 있으나, Peak District와 Lake District는 각각 The Peak Joint Planning Board 및 Lake District Special Planning Board가 구성되어 있다. 국립공원위원회의 위원수는 각 국립공원의 실정에 맞게 21-54명까지 구성되며, 인원의 2/3는 국립공원의 행정구역내의 주에서 선출하고 1/3은 중앙환경부에서 선출한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예산확정, 직원채용, 공원계획 및 개발확정, 법적·기술적·관리적인 전문내용의 결정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지방정부는 국립공원에 대하여 공원목적달성에 정치적·기술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로 협조한다.

1974년 이후부터 각 국립공원에서는 관리소장을 채용하였으며, 관리소장 밑에는 계획, 경관보전, 토지관리, 안내실운영, 공원순시, 총무의 일을 책임질 직원을 채용하게 된다. North York Moors 국립공원의 직원조직을 보면 국립공원 장 아

래에 계획, 보존, 행정, 자원관리 등의 하위부서가 있다.

일본의 자연공원 관리업무는 1971년 설립된 환경청 자연보호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자연보호국에는 기획조정과, 계획과, 보호관리과, 시설정비과 및 조수보호과 등 5개과가 있는데 기획조정과 산하에 39개소의 현지 국립공원관리사무소를 두고 관리하고 있다. 환경청의 지시감독을 받는 도도부현 자연공원 관리사무소와 민간비영리특수법인이 있다.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인·허가업무, 공원계획 및 공원사업의 결정과 변경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 및 조사, 고원계획의 재검토 및 기초조사, 공원의 보호 및 이용안내, 환경청 소유 국유재산에 관한 업무, 시설정비관련 업무 및 미화 청소지도 등을 담당한다. 도도부현 자연공원관리사무소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주차장 등 자체설치시설의 유지관리를 맡는다. 또한 민간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재단법인 자연공원 미화관리재단은 공원청소, 안내판의 설치, 주차장, 야영장의 관리업무를 맡고 있으며, 재단법인 국민휴가촌 협회는 자체설치한 숙박시설, 매점, 주차장 및 야영장을 관리하고, 사단법인 국민숙사협회는 국립공원내에 설치된 숙사에 홍보 및 이용안내를 맡고 있다. 자연공원 미화관리재단은 비상근인 회장과 이사장, 상근인 전무이사과 감사, 그리고 사무국산하에 3개과 및 조사역, 17개 지부를 두고 있다. 28개 국립공원 중 현재 13개 공원에 17개지부만 설치되어 있고 15개 공원은 미설치 되어 있는데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하는 재단의 경상수지를 고려하여 지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1970년 전반까지 중앙정부가 그 업무를 담당했던 국립공원 업무는 실제적인 업무를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놓고 있었으므로 실질적인 국립공원의 관리는 도지사과 군수의 계획과 시행력에 따라 이루어졌다.

1980년대 후반에는 국립공원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 윤리 등을 앞세워 중앙정부차원에서 많은 논란이 되어 중앙정부가 전국계획의 입장에서 전문적인 관리를 해야한다는 취지에서 1987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발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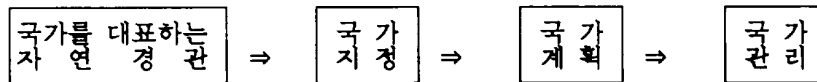
국립공원의 관리체제는 1991년 이전에 건설부장관 산하에 있던 것이 내무부장관 산하로 변경되었다. 내무부장관은 국립공원을 지정하고 공원계획을 수립하며 또한 기본계획을 마련한다.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2개공원을 관할하는 자치단체는 공원유지관리와 진입도로 포장 등과 같은 공원사업시행을 한다.

III. 韓國의 國立公園管理와 課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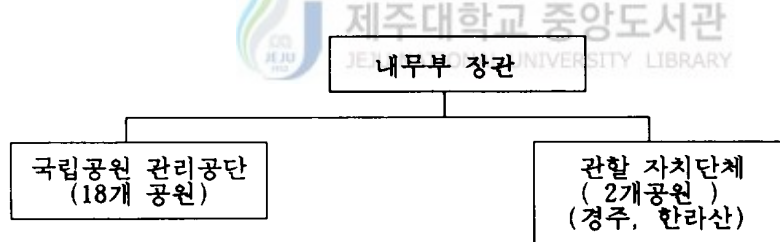
1. 國立公園의 管理體系

국립공원관리는 공원관리행정의 책임을 지닌 公園管理廳의 기능이 체계화되고 다원적인 有關機關들이 업무한계면에서 협의를 이루어 가고 공원관리의 모든 분야에서 그 지역주민이나 權利所有權者 등의 민의가 수렴되는 효율화를 기해야 한다. 따라서 국립공원의 관리과정은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 나라의 국립공원의 관리과정은 <도 III-1>과 같이 국가를 대표하는 자연경관을 국가가 지정·계획·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관리체계는 관리체계는 건설부장관 산하에 있던 것이 1991년 이후에는 내무부장관 산하로 변경되어 <도 III-2>에 나타난 바와 같은 체계를 갖추고 있다.

<도 III-1> 국립공원의 관리과정



<도 III-2> 국립공원의 관리체계



내무부장관은 국립공원을 지정하고 공원계획을 수립하며, 또한 기본계획을 마련한다.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도 III-2>에 나타난 경주와 한라산 국립공원 등 2개공원을 관할하는 자치단체는 공원유지관리와 진입도로 포장 등과 같은 공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 國立公園이 當面하고 있는 問題點

현재 국립공원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여러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일반적으로 국내의 국립공원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¹⁹⁾를 살펴보면 첫째, 過密利用과 探訪者 管理問題이다. 인구와 소득의 증대, 교통, 통신의 발달, 자연의 希求感 증대 등으로 매년 탐방객은 12% 이상씩 증가해 오고 있다. 따라서 자연의 수용이 한계를 가지고 있어 자연히 훼손과 연계되어 가게 되고 또 이를 극소화 하기 위하여 입장객의 상한선 결정이나 입장객 예약제, 계절별 차등요금 적용, 등산코스의 다양화 방안 등 여러 강구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과밀이용의 억제와 공원이용의 질적 향상이 생태보존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훼손의 방지로 공원편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방안임을 고려할 때 탐방자의 관리는 점차 그 중요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둘째로는 休養空間의 擴充과 便宜施設不足問題이다. 산업사회의 일원으로써 살아가고 있는 도시인들은 국립공원에서 심신과 휴양을 가지는 것이 거의 생활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공원내의 휴양공간의 확충과 편의시설 등을 효율적인 측면에서 고려하여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구라파의 자연공원에서 안내소나 일본의 공원내 안내소는 활발하게 운영되어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것 등을 실효성있게 실무에 반영하고 또한 교육의 역할까지 겸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해 나가고 있다.

셋째는 體制의 多元化問題이다. 공원내 관리대상은 임목의 벌채, 보존, 문화재관리, 농지관리, 환경문제, 인력 및 기구관리 등 복잡하게 여러 기관에 의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행정구역을 떠난 광역체로서 각 분야별 전문인원을 구비한 종합적 관리와 충분한 인원, 이에 상응한 권한과 책임의 부여 그리고 범국민적인 관리의 토착화 등이 요구된다. 따라서 공원의 관리는 일반행정, 토목, 건축, 산림보호, 청소, 정비 등 직능에 따라 공원요원을 점차 교육·배치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넷째는 保護와 利用의 相對性이다. 자연공원법은 공원자원의 보호와 조화있는 개발, 관리를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가지 목표는 이율배반적인 면이 있으므로 개발은 보호를 위한 최소한에 그치기 위해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보호의 원칙하에서 개발은 탐방객의 안전, 편의, 유지관리를 위한 최소한도에 그치기 위해서는 원시성의 유지, 시설물의 자연과의 조화, 자연오염방지, 집단시설의 공원구역외의 설치 및 이전, 이용행태의 변환 등의 사항을 유념할 필요가 있

19) 「국립공원」 제27호, 한국국립공원협회, 1984, pp.24-29.

다.

다섯번째는 私有財産權의 保護問題이다. 국내 국립공원의 육지면적 중 국공유가 1,445평방킬로미터, 사찰소유가 282평방킬로미터, 사유지가 846평방킬로미터로 사유지 점유비율이 33%에 이르러 관리상의 제약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들 중 행위의 제한을 대체적으로 많이 받는 자연보호지역내의 일부 면적은 국가가 매입하여 관리해 나가는 것이 관리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3. 國立公園의 管理課題 및 保護

1) 管理課題

國立公園은 이미 국민관광의 주요 대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도시화의 진전과 함께 도시내 室內餘暇施設이나 野外施設이 증가되더라도 매우 높은 신장율로 국립공원을 관광목적에서 찾으려는 國民希求度가 증가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지금까지의 공원관리에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과제가 있다.

먼저 政策面에서 본 課題로서, 첫째, 有料化의 問題이다. 현재 모든 국립공원이 입장료를 징수하여 공원의 청소, 합리적 이용의 계도, 관리시설의 설치, 유지, 관리등을 하고 있는데 입장료만으로는 이러한 諸經費에 충당하지 못하여 국고지원을 받고 있다. 한편 관광탐방객인 국민의 편에서는 입장료에 저항감이 있고 특히 문화재보호와 공동징수되는 곳에는 저항감이 더욱 크다. 둘째, 規制化의 問題이다. 많은 이용객으로부터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역내 주민이나 탐방객을 상대로 한 계고성(戒告性) 안내와 각종 규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 실제로는 이들 규제를 지키지 않아도 단속되는 경우가 미미하다는 점과 규제로서 해결이 되는 것으로 믿는 데에 문제가 있다. 셋째, 施設不足의 問題이다. 공원이용이 증가되고 새로운 이용성향으로 그 이용부하가 격증해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국립공원의 한 쪽 입구에 시설이 집단화되어 있고 외진 곳이나 정상 등에 필요한 대피소, 안내시설, 화장실 등 기본시설이 없는 것은 탐방객을 매우 불안하게 할 소지가 있다.

둘째, 利用面에서 본 課題이다. 관광, 여가 등 정신적인 해방감에서 오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공중도덕의 면에서 문제가 있고 특히 공원관리 각종 시설에 대한 평가 등이 극히 자기중심적인 객관성을 지니기 어렵다.

주등산로가 증대되는 이용객으로 대부분이 심한 세굴(洗掘)현상을 일으켜 일부 등산로에서는 들계단을 쌓아야 할 곳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세굴현상은 주변지역으로의 확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국민운동의 강화, 교육홍보의 강화, 개발과 보존의 조화, 행정의 일원화, 연수기관의 설치, 자연보호운동을 위한 기금조성 등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 산적해 있으며, 정책면이나 이용면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설의 고급화 및 서비스향상과 시설 관통도로, 索道 등의 설치가 요구되어지며 이를 위하여 장기적인 계획과 지속적인 예산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공원수익은 공원내에 투자환수하여 국립공원의 이용객에 알맞은 시설의 종류, 수준, 규모 등을 갖추고 이를 위한 자금조성을 위해서는 특혜 의혹을 배제할 수 있는 제3섹타 방식에 의한 영리시설도 현지인과 함께 고려해 볼 만하다.

셋째, 能率的인 公園管理側面에서 본 문제이다. 국립공원관리는 그 주체가 활성화되고 관리주체의 업무활동이 적정화되는 한편 주민, 탐방객 등 모든 국립공원 이용자들이 공원관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체계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때 능률적인 것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국립공원관리공단 창시나 지방자치단체의 전문관리기구의 설치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 이용되고 있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운영은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즉, 탐방객의 70-80%가 이용하는 사찰소유지, 산림청 소유국유림,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그리고 국립공원내 사유지 등 공원구역내 토지소유문제나 위법 단속에 대한 권한과 책임, 심각한 예산 및 인력의 부족 등²⁰⁾이 있다. 따라서 여기에 소요되는 전문인력이 부족하므로 필요한 인력 및 전문기능인의 보완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공원자체도 자립도를 확립하여 관리주체의 활성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두번째로는 현재의 국립공원 인력으로 부담이 되는 업무활동을 적정화하고 이에 따라서 서비스 업무를 확충해 나가는 것이 능률적인 관리에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국립공원의 업무가 방대하고 이에 대한 인력투입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원봉사 체제조성과 같은 이용자의 협조 및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국립공원 자체가 그들에 의해 이용되고 있음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여분의 인력을 국립공원이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 분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립공원의 관리업무는 이제 정부에서 소속을 옮기거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 위탁의 폭을 논의할 시기는 지났으며 재정부담이 따르는 모든 운용업무와

20) 정권섭, “국립공원 관리상의 제문제와 합리적 타개방안”, 국립공원관리공단, pp. 51-60.

전국적으로 형평성이 필요한 관리업무는 모두 중앙정부가 직접 그 예산과 인력을 부담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기준을 고려해 볼 시기이다. 또한 중앙정부기관 사이에서도 그 기능이 국립공원안에 들어가면 국립공원관리청에 일원화되는 효율성을 지녀야 하며 미국이나 중국의 공원경찰제도 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2) 公園의 保護

한라산은 정상을 중심으로 한 핵심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구와 문화재지구로 지정하여 이중으로 관리하고 있다. 한라산 등산인원이 매년 증가되고 계절적 집중과 특정 등산코스(어리목과 영실)에 집중도가 심화됨에 따라 정상부근과 접근로 주변은 오손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자원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졌다.

- 등산로의 5개코스별 이용분산유도와 단체등반객의 입장통제
- 입산금지구역의 확대와 훼손이 심한 등반코스의 폐쇄 또는 운반운용
- 등반로 정비와 훼손지의 부분적 복구
- 불법도채 등 훼손단속과 청결한 환경관리를 위한 오물수거의 강화와 이를 위한 관리사무소 기구의 확충(정원 22명에서 44명으로)
- 보전우선의 방침에 따라 집단시설지구나 케이블카 설치 등 기존계획은 폐지, 정비되었다.

그러나 상기의 조치 외에도 근원적으로 이용한계의 설정이나 입장요금의 차등화 등 종합계획에서의 제안사항이나 자연훼손지 복구, 접근로의 조정방안 등이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이다. 또한 1993년 3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공원내의 생태계자원, 관광자원, 문화자원 및 기타자원의 조사 등은 한라산을 관리하는데 체계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개발로 인해 경관이 아름다워졌다는데 대하여 46.7%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주민의 77.4%가 관광개발 때문에 환경이 오염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객 때문에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86.3%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주민의 84.1%가 한라산의 자연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²¹⁾고 생각하고 있어 濟州道의 개발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제주의 원풍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濟州道가 가지는 관광자원의 매력은 남한에서 제일 높은 한라산과 이국적 정취의 자연과 민속자원을 가지는 데 있다. 濟州道에 대하여 1985년 3월 특정지역

21) 한국개발연구원, "환경훼손에 따른 설문조사-제주도민 대상-", 1989.

종합개발계획을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 수립, 시행하고 있는 이 계획은 '91년까지 제주의 개발상을 제시했고 관광개발을 포함한 지역의 종합개발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개발의 기본방향은 첫째, 국민관광을 기본으로 한 국제관광유도, 둘째, 관광개발을 근간으로 한 지역개발촉진, 그리고 셋째, 자연환경과 민속적으로 고유성의 최대한 보전에 두었으며 이에 대한 개발전략으로서 첫째, 실정에 상응한 단계적 개발, 둘째, 국가목표와 지역이해의 조화, 셋째, 보전우선의 체제와 개발의 부정적 효과의 최소화 등을 들고 있다.

濟州道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개발계획은 개발주체인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이루어진다고 보다는 정부기관의 용역을 토대로 법적인 요식절차를 거친 후 거의 행정기관 일변도로 수립되고 있는 면이 적지 않다. 따라서 파생되는 문제도 적지 않아 이제는 과거와는 다른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종합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1993년 현재 진행중인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며 나아가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전문적인 실무지식을 반영하여 계획에 임해야 할 것이다.

1991년 현재 우리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6,500달러를 넘어서고 있으며 더불어 국립공원탐방도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제반 시설 및 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국립공원의 이용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국립공원의 보존론 또한 증가하고 있다. 양자에 대한 극단적인 주장은 없으나 역시 어느 쪽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즉 보존론은 국립공원이야 말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땅, 자연보존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국립공원정책의 제1의 목표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보호,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국립공원의 주요 정책 기조는 국립공원내에 시설을 이용한 위락기능은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탐방기능도 선별적으로 취사선택하여야 하며, 탐방편의 목적의 기초시설이라 하더라도 가급적 최소한도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진입도로, 삭도, 로프웨이의 설치에 따른 생태계 교란 등 우려하여 이러한 시설도입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이용론은 좁은 국토와 많은 인구를 가진 여건하에서 나날이 팽창하고 있는 국민의 여가수요를 국립공원이 능동적으로 충족시켜 나감으로써 문화복지이념 구현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또다른 의견으로서는 지금까지 국민의 요구나 이용패턴 변화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해 각종 편의시설이 매우 부족하고, 이로 인해 자연훼손우려가 더 높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보호와 이용의 극대화를

조화시키는 일이다. 따라서 공원특성에 알맞게 각종 시설별 이용한계를 합리적으로 파악, 설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들의 후손인 장래의 세대가 필요로 하는 이용수요를 저해함이 없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세대의 이용수요를 충족시키는 보존우위의 생태학적 개발을 의미하고 있는 지속적 개발이라는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 개발을 위해서는 첫째, 국립공원에 적합한 활동과 시설유형을 체계적으로 설정하여 수용하며, 둘째, 경관수려지구나 원시야생지구, 사적문화지 등은 별도의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엄격한 보존시책을 추진한다. 셋째, 공원내 모든 자원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생태계 현상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용도지구 및 행위제한 기준을 설정한다. 넷째, 보존우주의 공원정책수행에 따른 공원내 거주주민들의 재산상 손실 등을 보전하기 위한 보상체계를 강구하며 연차적으로 공원내 사유지를 국유화 하거나 외국의 사례처럼 토지신탁제도의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국립공원을 장래의 세대까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이용을 효율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첫째, 공원탐방에 필요한 기초 편의시설을 조속히 확보하고, 둘째, 탐방예약제와 같은 제도의 도입으로 탐방객의 적정한 분산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 셋째, 공원이용의 질적 향상차원에서 공원안내체제도 중요하다. 넷째, 국립공원에 집중된 국민의 관광, 위락수요를 적절히 분담할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공원관리체계는 국가가 1차적인 책임을 맡고 이를 국립공원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원관리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능력을 증가시켜 주어야 한다. 즉 공원관리요원의 부족, 관리비용의 안정적인 확충방안 문제, 일부 지정문화재의 일원적 관리 문제, 타기관과의 협조·지원체제강화 문제, 민간분야의 공원에 대한 보존·관리문화의 확산 문제 등이다²²⁾.

22) 나승포, “우리나라 국립공원정책의 재정립방향”, 14회 자연공원세미나, 한국국립공원협회, 1993. 9. pp.15-24.

IV. 漢拏山國立公園 探訪客의 行態分析

1. 調査의 概要

1) 調査의 對象 및 方法

본 조사의 대상은 한라산국립공원 이용객을 중심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① 국립공원의 보존가치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반면 훼손에 의한 가치하락과 ② 훼손의 주요 원인이 등반객에 의해 이루어져 왔으며 ③ 체계적인 실상파악과 실질적인 이용객의 유도도 더 효율적인 국립공원의 관리방안과 추구하는 목표달성에 공헌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조사의 대상은 濟州道에 거주하거나 濟州道에 관광객으로 입도하여 한라산에 등반한 경험이 있는 이용객으로 설문지는 총 1,000매를 배포하여, 그 중 809매를 회수하였고 회수된 설문 중 불성실한 응답자로 판정된 29매를 제외한 780매를 실증분석에 이용하였다. 표본추출은 비확률 표본방법(non-probability) 중 판단표본추출방법(judgement sampling)을 이용하여 각 등산코스에서 조사자가 직접 면접하거나 응답자가 스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2) 設問의 調査時期 및 構成

완성된 설문을 이용한 설문조사는 1993년 5월 1일부터 1993년 5월 30일까지 한달간 실시하였다.

설문은 이용교통편 1문항, 한라산의 보전상태와 관련하여 21개 문항, 공원관리상태와 관련하여 11 문항, 한라산의 중요성 및 관리정책과 관련하여 6개 문항, 한라산의 보호와 관련하여 10문항, 탐방객에 의한 자신의 평가 및 이용형태에 관련하여 11문항, 그리고 인구통계와 관련하여 5개 문항 등 총 6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 調査의 分析方法 및 限界

본 조사자료의 분석은 SPSS/PC(버전 3.1)를 이용해 인구통계적 변수의 각 변

인간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사용하여 작성한 한라산보호에 기여하는 변수에 대한 평가의 차이에 대해서는 χ^2 검증을 통해 교차분석을 하였고, 탐방객행태와 인구통계적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역시 교차분석을 하였으며 또한 한라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편의시설과 관리상황에 대한 평가에 대한 변수의 평균차이검증을 위하여 T검증 및 일원변량분석을 하였다.

본 조사의 한계로는 시기적으로 설문조사 연중 분포되지 않고 5월 한달에 이루어짐으로써 표본의 편기가 있을 수 있다.

4) 標本의 人口統計的 分布

조사대상에 포함된 인구통계학적 변수로는 성별, 연령, 직업, 거주지, 학력 등이다.

성별분포를 보면 전체 780명 중 58.0%를 차지하는 451명이 남성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21-30세가 전체의 66.2%, 31-40세 사이가 12.9%로 나타났으며, 학력별로는 대졸 또는 대학재학생이 49.0%, 고졸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이 40.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주지별로는 서울지역에서 온 이용자들이 전체 780명중 256명으로 32.8%를 차지하였고 이어 제주인이 186명으로 23.8%를 차지하였으며, 직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학생이 전체의 52.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어 회사원이 15.7%를 차지하고 있다(<표 IV-1> 참조).

<표 IV-1> 인구통계적 분포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성 별			연 령 별			학 력 별			거주지별			직 업 별		
변수	N	%	변수	N	%	변수	N	%	변수	N	%	변수	N	%
남성	451	58.0	20세이하	66	8.5	중졸이하	31	4.0	서울	256	32.8	학생	409	52.6
			21-30	514	66.2	고졸	310	40.1	제주	186	23.8	회사원	122	15.7
			31-40	100	12.9	대졸	386	49.9	기타	123	15.8	공무원	82	10.5
여성	326	42.0	41-50	62	8.0	대학원	47	6.1	부산	74	9.5	상업	59	7.6
			51세이상	35	4.5	결측치	6	-	광주	56	7.2	기타	35	4.5
			결측치	3	-				대구	53	6.8	주부	30	3.9
									인천	32	4.1	연구직	21	2.7
												농림수축	20	2.6
												결측치	2	-
계	780	100	계	780	100	계	780	100	계	780	100	계	780	100

주) 1) 무응답자는 결측처리되어 백분율에서 제외되었음.

2) N은 사례수(명)를 나타냄.

2. 假說의 檢證과 調査資料의 分析

조사자료에 대한 분석의 구성내용을 보면 첫째, 한라산보호를 위한 각 관리대책변수(V3_1~V3_15, V9_1~V10) 및 제도와 시설보완변수(V17~V18_2, V20~V23)의 기여도를 평가하도록 하여 인구통계적 변수에 따라 차이검증을 하였고, 둘째로 탐방객의 행태변수(V8, V11_1~V16)를 질문하고 이를 5점척도로 응답하게 하여 탐방객의 행태와 인구통계적 변수간에 평균차이검증을 하였고, 셋째로 접근성(V1), 자원의 매력성(V2_1~V2_4), 시설의 훼손정도(V4_1~V4_2, V6_1~V6_5, V19_1~V19_3) 등의 변수에 대해서는 빈도분석 및 인구통계학적 변수와의 교차분석을 하였다.

조사된 자료는 목적에 따라 편의상 긍정적인 응답을 1점으로 부정적인 응답을 5점으로 하였던 것을 반대로 재코드화 해서 분석에 이용하였다. 따라서 설문지의 변인에 대한 평가수치로 나타난 숫자는 문항에 따라 1점과 5점이 바뀌어 나타나 있다.

1) 假說의 設定

일반적으로 가설이란 어떤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현상을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즉 두개 또는 그 이상의 변수들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문장인데 일반적으로 "A이면 B이다"의 선언문 형식을 띄게 된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두 종류의 가설이 사용되는데 그 중 하나는 검증하고자 하는 현상에 관한 예측인 연구가설(research hypothesis)이고, 다른 하나는 통계치가 제공하는 확률의 측면에서 평가되는 영가설(null hypothesis)이다²³⁾. 즉 연구가설은 현상들 사이의 관계나 차이에 대한 진술이고, 영가설은 통계적으로 나타난 차이나 관계가 우연의 법칙으로 인해 생긴 것이라는 진술이다. 이들 두종류의 가설은 서로 논리적으로 반대입장을 취하게 되므로 한 종류의 가설을 취하게 되면 그 가설에는 암시적으로 반대 가설의 의미를 내포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라산 국립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발견하고자 다음과 같이 4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23) 오택섭, 「사회과학 데이터 분석법-SPSS/PC*」, 도서출판 나남, 1990, pp.97-103.

- H1 한라산보호에 기여하는 변수에 대하여 중요도 순위에 인구통계적 변수간에 서로 다른 차이를 보일 것이다.
- H2 탐방객의 행태에 대하여 인구통계적 변수간에 차이를 보일 것이다.
- H3 국립공원의 편의시설과 관리상황에 대한 평가는 인구통계적 변수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이다.
- H4 인구통계적 변수에 따라 국립공원 접근방식, 느끼는 매력정도, 시설에 대한 훼손의 평가정도가 서로 다를 것이다.

2) 假說檢證 및 資料分析

(1) 假說1의 檢證

가설 1은 한라산보호에 기여하는 변수에 대하여 중요도 순위에 인구통계적 변수간에 서로 다른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것이다. 한라산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는 변수는 쓰레기 처리 등 15개 항목이 설정되어 질문되었으며, 탐방객들은 이들 변수의 중요도순위에서 1위로 쓰레기처리를, 2위로 산불관리를, 3위로 수목의 도벌 및 도채방지 등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기할 만한 사항은 국내의 여타 국립공원에서 나타난 상업적 시설이 공원보호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과 탐방객 자신이 해당되는 탐방객수의 통제는 한라산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지하고 있는 점이다.

<표 IV-2> 한라산보호에 기여하는 변수의 중요도 순위

순위	한라산보호에 기여하는 변수	평균	합계	유효표본	무응답
1	쓰레기처리	4.711	3618	768	12
2	산불관리철저	4.521	3436	760	20
3	수목의 도벌, 도채방지	4.487	3419	762	18
4	지피식생의 훼손방지	4.484	3417	762	18
5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4.396	3345	761	19
6	토양침식방지	4.292	3253	758	22
7	야영, 취사 등의 금지	4.236	3194	754	26
8	안내판설치	4.185	3172	758	22
9	음료수공급시설 설치	4.125	3123	757	23
10	배륙담 등의 수량감소억제	4.104	2926	713	67
11	필요한 정보제공	4.096	3084	753	27
12	노면상태보호	4.086	3089	756	24
13	특정 등반로에 이용객 집중억제	3.905	2944	754	26
14	공원내 상업적 시설금지	3.854	2902	753	27
15	탐방객 수의 통제	3.551	2681	755	25

주) 변수에 대한 결과치는 이에 대한 중요도가 높은 것은 5점을, 낮은 것은 1점을 배점함.

(2) 假說2의 檢證

가설 2는 “탐방객의 행태는 인구통계적 변수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이다.”이며 탐방객의 행태를 인구통계적 변수, 즉 성별, 연령, 직업, 거주지, 그리고 학력에 따라 변인간에 평균차이를 검증해 본다.

가. 휴지를 버린 경험

성별에 따라 휴지를 버린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보면 남성은 17.2%가, 여성은 11.4%가 버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는 전체의 28.6%에 해당한다. 남성 응답자 450명중 133명(29.6%)가 휴지를 버린적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은 전체 여성응답자 323명중 88명(27.2%)가 휴지를 버린적이 있다고 응답해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휴지를 버린 경험이 많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별로는 21세-30세 사이가 휴지를 버린 경험이 전체적으로 17.1%를 차지해 가장 높으나 동일 연령대를 기준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는 51세 이상의 응답자 중 40.0%가, 31세-40세 응답자 중 38.0%, 그리고 20세 이하의 응답자 중 31.8%가 휴지를 버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연령이 높을수록 휴지를 버린 경험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직업별로는 학생이 휴지를 버린 경험이 전체적으로 11.0%를 차지해 가장 높으나 상대적으로는 농림수축(60.0%), 상업(44.1%), 주부(40.0%), 회사원(35.5%), 공무원(34.1%), 연구직(28.6%), 학생(20.9%)순으로 휴지를 버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농림수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휴지를 많이 버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생이나 연구직에 있는 응답자가 휴지를 덜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 제주지역 응답자가 휴지를 버린 경험이 전체적으로 9.8%를 차지해 가장 높고 이어 서울 5.8%순으로 나타났고, 대구의 응답자 중 41.5%가, 제주 및 광주의 응답자 중 41.1%가, 그리고 부산의 응답자 중 38.0%가 휴지를 버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특이한 것은 서울(17.6%), 인천(29.0%) 등이 휴지를 버린 경험이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고, 반면 대구나 제주 및 광주의 내도 탐방객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학력별로는 고졸학력의 전체 13.4%가 휴지를 버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동일 학력대를 기준으로 볼 때 중졸응답자 31명중 15명인 48.4%가, 고졸은 33.3%, 대졸은 24.8% 그리고 대학원졸응답자 47명

중 7명인 14.9%가 각각 휴지를 버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학력이 낮을수록 휴지를 버린 경험이 많다고 응답하였다.

휴지를 버린 경험에 있어서 연령별 응답자간에는 유의수준 $\alpha=0.1$ 수준에서, 성별 응답자간에는 유의수준 $\alpha=0.05$ 수준에서 그리고 직업별, 거주지별, 학력별 응답자간에는 유의수준 $\alpha=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각각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IV-3> 휴지버린 경험의 성별 총 구성비

구분	그렇다	보통이다	안그렇다	Total
남성	133(17.2)	61(7.9)	256(33.1)	450(58.2)
여성	88(11.4)	26(3.4)	209(27.0)	323(41.8)
Total	221(28.6)	87(11.3)	465(60.2)	773(100.0)

χ^2 7.32619** d.f. 2

주) 무응답 사례수 : 7
* : $p < 0.1$, ** : $p < 0.05$, *** : $p < 0.01$,

<표 IV-4> 휴지버린 경험의 연령별 총 구성비

구분	그렇다	보통이다	안그렇다	Total
20세이하	21(2.7)	7(.9)	38(4.9)	66(8.5)
21-30세	132(17.1)	61(7.9)	317(41.0)	510(66.0)
31-40세	38(4.9)	9(1.2)	53(6.9)	100(12.9)
41-50세	16(2.1)	10(1.3)	36(4.7)	62(8.0)
51세이상	14(1.8)	0(0)	21(2.7)	35(4.5)
Total	221(28.6)	87(11.3)	465(60.2)	773(100.0)

χ^2 13.66650* d.f. 8

주) 무응답 사례수 : 7
* : $p < 0.1$, ** : $p < 0.05$, *** : $p < 0.01$,

<표 IV-5> 휴지버린 경험의 직업별 총 구성비

구분	그렇다	보통이다	안그렇다	Total
학생	85(11.0)	53(6.8)	268(34.6)	406(52.5)
공무원	28(3.6)	4(.5)	50(6.5)	82(10.6)
회사원	43(5.6)	16(2.1)	62(8.0)	121(15.6)
상업	26(3.4)	4(.5)	29(3.7)	59(7.6)
농림수축	12(1.6)	4(.5)	4(.5)	20(2.6)
연구직	6(.8)	2(.3)	13(1.7)	21(2.7)
주부	12(1.6)	0(0)	18(2.3)	30(3.9)
기타	10(1.3)	4(.5)	21(2.7)	35(4.5)
Total	222(28.7)	87(11.2)	465(60.1)	774(100.0)
χ^2	45.27410	d. f. 14	.0000	

주) 무응답 사례수 : 6
 * : p < 0.1, ** : p < 0.05, *** : p < 0.01,

<표 IV-6> 휴지버린 경험의 거주지별 총 구성비

구분	그렇다	보통이다	안그렇다	Total
제주	76(9.8)	15(1.9)	94(12.1)	185(23.8)
인천	9(1.2)	6(.8)	16(2.1)	31(4.0)
서울	45(5.8)	29(3.7)	181(23.3)	255(32.9)
부산	28(3.6)	9(1.2)	36(4.6)	73(9.4)
광주	23(3.0)	4(.5)	29(3.7)	56(7.2)
대구	22(2.8)	6(.8)	25(3.2)	53(6.8)
기타	21(2.7)	18(2.3)	84(10.8)	123(15.9)
Total	224(28.9)	87(11.2)	465(59.9)	776(100.0)
χ^2	53.32291***	d. f. 12		

주) 무응답 사례수 : 4
 * : p < 0.1, ** : p < 0.05, *** : p < 0.01,

<표 IV-7> 휴지버린 경험의 학력별 총 구성비

구분	그렇다	보통이다	안그렇다	Total
중졸이하	15(1.9)	3(.4)	13(1.7)	31(4.0)
고졸	103(13.4)	41(5.3)	165(21.4)	309(40.1)
대졸	95(12.3)	38(4.9)	250(32.5)	383(49.7)
대학원이상	7(.9)	5(.6)	35(4.5)	47(6.1)
Total	220(28.6)	87(11.3)	463(60.1)	770(100.0)
χ^2	20.81501***	d. f. 6		

주) 무응답 사례수 : 10
 * : p < 0.1, ** : p < 0.05, *** : p < 0.01,

나. 사진촬영시 환경훼손 경험

사진촬영시 주위 환경을 훼손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서 응답자 772명 중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8.2%로 나타났고, 농림수축(70.0%), 상업(35.6%), 주부(33.3%), 회사원(32.5%)순으로 자연훼손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거주지별로 살펴볼 때는 광주는 53명 중 21명(37.5%)이, 대구는 53명 중 18명(34.0%)이, 제주지역 응답자 183명 중 63명(34.4%)이, 인천지역은 31명 중 10명(32.3%)이, 부산은 73명 중 20명(27.4%)이, 서울은 255명 중 38명(14.9%)이 환경에 훼손을 준 적이 있다는 응답을 하여 서울과 부산과 같은 대도시에서 온 탐방객들이 환경훼손의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살펴볼 때는 고졸학력의 전체 11.3%가 사진촬영시 환경을 훼손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동일 학력대를 기준으로 볼 때 중졸응답자 30명중 13명인 43.3%, 고졸은 28.2%, 대졸은 19.3% 그리고 대학원졸응답자 47명 중 7명인 14.9%가 각각 환경훼손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환경훼손의 경험에 있어서 직업별 집단간에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지않고 있으나 거주지별 및 학력별 응답자간에는 유의수준 $\alpha=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각각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IV-8> 환경훼손 경험의 직업별 총 구성비

구분	그렇다	보통이다	안그렇다	Total
학생	63(8.2)	55(7.1)	288(37.3)	406(52.6)
공무원	23(3.0)	6(.8)	52(6.7)	81(10.5)
회사원	39(5.1)	13(1.7)	68(8.8)	120(15.5)
상업	21(2.7)	11(1.4)	27(3.5)	59(7.6)
농림수축	14(1.8)	1(.1)	5(.6)	20(2.6)
연구직	5(.6)	0(0)	16(2.1)	21(2.7)
주부	10(1.3)	7(.9)	13(1.7)	30(3.9)
기타	7(.9)	3(.4)	25(3.2)	35(4.5)
Total	182(23.6)	96(12.4)	494(64.0)	772(100.0)
χ^2	64.92187***	d. f. 14		

주) 무응답 사례수 : 8
 * : $p < 0.1$, ** : $p < 0.05$, *** : $p < 0.01$,

<표 IV-9> 환경훼손 경험의 거주지별 총 구성비

구분	그렇다	보통이다	안그렇다	Total
제주	63(8.1)	20(2.6)	100(12.9)	183(23.6)
인천	10(1.3)	5(.6)	16(2.1)	31(4.0)
서울	38(4.9)	26(3.4)	191(24.7)	255(32.9)
부산	20(2.6)	12(1.6)	41(5.3)	73(9.4)
광주	21(2.7)	8(1.0)	27(3.5)	56(7.2)
대구	18(2.3)	8(1.0)	27(3.5)	53(6.8)
기타	13(1.7)	18(2.3)	92(11.9)	123(15.9)
Total	183(23.6)	97(12.5)	494(63.8)	774(100.0)

χ^2 52.56939*** d. f. 12

주) 무응답 사례수 : 6
* : p < 0.1, ** : p < 0.05, *** : p < 0.01,

<표 IV-10> 환경훼손 경험의 학력별 총 구성비

구분	그렇다	보통이다	안그렇다	Total
중졸이하	13(1.7)	3(.4)	14(1.8)	30(3.9)
고졸	87(11.3)	47(6.1)	174(22.7)	308(40.1)
대졸	74(9.6)	44(5.7)	265(34.5)	383(49.9)
대학원이상	7(.9)	2(.3)	38(4.9)	47(6.1)
Total	181(23.6)	96(12.5)	491(63.9)	768(100.0)

χ^2 24.98689*** d. f. 6

주) 무응답 사례수 : 12
* : p < 0.1, ** : p < 0.05, *** : p < 0.01,

다. 등산로 이외의 지역에 간 경험

탐방객이 등산로를 이탈하여 등산한 비율을 살펴보면 성별 비율에 있어서는 남성응답자 447명 중 169(37.8%)명이, 여성은 322명 중 82명(25.5%)로 나타나 여성보다 남성이 등산로 이탈을 훨씬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구성비에 있어서는 31세-40세가 42.0%, 41세-50세가 38.7%, 51세이상 이 33.3%, 20세이하가 30.3%, 그리고 21-30세가 30.3%로 등산로 이탈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중·고령층이 이탈경험이 대체적으로 많게 나타났다.

직업별로 살펴볼 때 등산로 이탈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구성비로는 농림수축 응답자 20명중 14명인 70.0%가, 상업은 47.5%, 회사원 45.8%, 주부 36.7%, 공무원 33.3%, 학생 25.7%, 그리고 기타가 22.9%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거주지별 구성비는 대구의 응답자 53명 중 23인 43.4%가 등산로 이탈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고, 이어 제주 40.4%, 광주 39.3%, 인천 33.3%, 서울 30.2%, 부산 28.8% 그리고 기타 21.3%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력별 구성비 증줄이하 응답자의 40.0%, 고졸은 39.2%, 대학원이상은 28.3%, 그리고 대졸은 27.8%가 등산로 이탈을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대체적으로 고학력으로 갈수록 등산로 이탈을 많이 경험했다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산로 이탈을 경험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연령별 응답자간에는 유의수준 $\alpha = 0.05$ 수준에서, 성별, 직업별, 거주지별, 학력별 응답자간에는 유의수준 $\alpha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각각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IV-11> 등산로 이탈 경험의 성별 총 구성비

구분	그렇다	보통이다	안그렇다	Total
남성	169(22.0)	61(7.9)	217(28.2)	447(58.1)
여성	82(10.7)	42(5.5)	198(25.7)	322(41.9)
Total	251(32.6)	103(13.4)	415(54.0)	769(100.0)
χ^2	14.59720***	d. f. 2		

주) 무응답 사례수 : 11
 * : $p < 0.1$, ** : $p < 0.05$, *** : $p < 0.01$,

<표 IV-12> 등산로 이탈 경험의 연령별 총 구성비

구분	그렇다	보통이다	안그렇다	Total
20세이하	20(2.6)	9(1.2)	37(4.8)	66(8.6)
21-30세	154(20.0)	58(7.5)	296(38.5)	508(66.1)
31-40세	42(5.5)	15(2.0)	43(5.6)	100(13.0)
41-50세	24(3.1)	12(1.6)	26(3.4)	62(8.1)
51세이상	11(1.4)	9(1.2)	13(1.7)	33(4.3)
Total	251(32.6)	103(13.4)	415(54.0)	769(100.0)
χ^2	19.39356**	d. f. 8		

주) 무응답 사례수 : 11
 * : $p < 0.1$, ** : $p < 0.05$, *** : $p < 0.01$,

<표 IV-13> 등산로 이탈 경험의 직업별 총 구성비

구분	그렇다	보통이다	안그렇다	Total
학생	104(13.5)	46(6.0)	255(33.1)	405(52.6)
공무원	27(3.5)	12(1.6)	42(5.5)	81(10.5)
회사원	55(7.1)	17(2.2)	48(6.2)	120(15.6)
상업	28(3.6)	8(1.0)	23(3.0)	59(7.7)
농림수축	14(1.8)	3(.4)	3(.4)	20(2.6)
연구직	5(.6)	4(.5)	11(1.4)	20(2.6)
주부	11(1.4)	9(1.2)	10(1.3)	30(3.9)
기타	8(1.0)	4(.5)	23(3.0)	35(4.5)
Total	252(32.7)	103(13.4)	415(53.9)	770(100.0)

χ^2 56.66759*** d.f. 14

주) 무응답 사례수 : 10
 * : p < 0.1, ** : p < 0.05, *** : p < 0.01,

<표 IV-14> 등산로 이탈 경험의 거주지별 총 구성비

구분	그렇다	보통이다	안그렇다	Total
제주	74(9.6)	25(3.2)	84(10.9)	183(23.7)
인천	10(1.3)	6(.8)	14(1.8)	30(3.9)
서울	77(10.0)	31(4.0)	147(19.0)	255(33.0)
부산	21(2.7)	11(1.4)	41(5.3)	73(9.5)
광주	22(2.8)	10(1.3)	24(3.1)	56(7.3)
대구	23(3.0)	9(1.2)	21(2.7)	53(6.9)
기타	26(3.4)	12(1.6)	84(10.9)	122(15.8)
Total	253(32.8)	104(13.5)	415(53.8)	772(100.0)

χ^2 27.05434** d.f. 12

주) 무응답 사례수 : 8
 * : p < 0.1, ** : p < 0.05, *** : p < 0.01,

<표 IV-15> 등산로 이탈 경험의 학력별 총 구성비

구분	그렇다	보통이다	안그렇다	Total
중졸이하	12(1.6)	7(.9)	11(1.4)	30(3.9)
고졸	121(15.8)	42(5.5)	146(19.1)	309(40.3)
대졸	106(13.8)	45(5.9)	230(30.0)	381(49.7)
대학원이상	13(1.7)	8(1.0)	25(3.3)	46(6.0)
Total	252(32.9)	102(13.3)	412(53.8)	766(100.0)

χ^2 18.08734*** d.f. 6

주) 무응답 사례수 : 14
 * : p < 0.1, ** : p < 0.05, *** : p < 0.01,

라. 안내시설을 귀중하게 고려

국립공원내의 안내시설을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지의 질문에 대하여 연령별 및 거주지별 집단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는데, 연령별 구성비에 있어서는 41세-50세의 21.3%가 귀중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이어 20세이하의 21.2%, 21세-30세의 12.4%, 51세이상의 11.4%, 그리고 31-40세의 9.0%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인천거주 응답자의 22.6%가 공원내 안내시설을 귀중하게 고려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이어 광주의 19.6%, 부산의 17.8%, 서울의 10.7%, 제주의 10.3%, 그리고 대구의 9.4%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 거주지별 응답자간에는 유의수준 $\alpha=0.1$ 수준에서 공원내 안내시설을 귀중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는 질문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각각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IV-16> 안내시설 중요도의 연령별 총 구성비

구분	그렇다	보통이다	안그렇다	Total
20세이하	14(1.8)	12(1.6)	40(5.2)	66(8.6)
21-30세	63(8.2)	77(10.0)	369(47.9)	509(66.0)
31-40세	9(1.2)	12(1.6)	79(10.2)	100(13.0)
41-50세	13(1.7)	6(.8)	42(5.4)	61(7.9)
51세이상	4(.5)	2(.3)	29(3.8)	35(4.5)
Total	103(13.4)	109(14.1)	559(72.5)	771(100.0)
χ^2	14.31661*	d.f. 8		

주) 무응답 사례수 : 9
 * : $p < 0.1$, ** : $p < 0.05$, *** : $p < 0.01$,

<표 IV-17> 안내시설 중요도의 거주지별 총 구성비

구분	그렇다	보통이다	안그렇다	Total
제주	19(2.5)	24(3.1)	142(18.3)	185(23.9)
인천	7(.9)	5(.6)	19(2.5)	31(4.0)
서울	27(3.5)	44(5.7)	182(23.5)	253(32.7)
부산	13(1.7)	10(1.3)	50(6.5)	73(9.4)
광주	11(1.4)	2(.3)	43(5.6)	56(7.2)
대구	5(.6)	10(1.3)	38(4.9)	53(6.8)
기타	21(2.7)	14(1.8)	88(11.4)	123(15.9)
Total	103(13.3)	109(14.1)	562(72.6)	774(100.0)
χ^2	18.76634*	d.f. 12		

주) 무응답 사례수 : 6
 * : $p < 0.1$, ** : $p < 0.05$, *** : $p < 0.01$,

마. 기타 공공도덕에 어긋난 경험

국립공원내에서 공공도덕에 어긋난 행동을 한 적이 있는지의 질문에 대하여 성별, 직업별, 거주지별, 학력별 집단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성별 구성비에 있어서는 남성은 13.8%가, 그리고 여성은 8.4%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공공도덕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이 446명 중 241명인 31.5%, 여성은 320명 중 210명인 27.4%로 나타났다.

직업별 구성비에 있어서는 공중도덕에 어긋난 적이 있다는 비율이 농림수축 응답자의 50.0%가, 회사원은 35.8%, 상업은 28.8%, 연구직 28.6%, 공무원 25.3%, 주부 20.0%, 기타 20.0%, 학생 15.4%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광주지역 응답자가 39.3%, 제주 30.8%, 대구 30.8%, 부산 23.3%, 인천 20.0%, 서울 16.1%, 기타 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고졸 24.9%, 중졸이하 21.4%, 대졸 21.1%, 그리고 대학원이상 17.4% 순으로 나타나 고졸학력을 가진 응답자가 공중도덕에 어긋난 적이 있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다.

공공도덕에 어긋난 경험이 있는가에 대하여 성별, 직업별, 거주지별 응답자간에는 유의수준 $\alpha=0.01$ 수준에서, 학력별 응답자의 집단간에는 유의수준 $\alpha=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각각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IV-18> 공공도덕 어긋난 경험의 성별 총 구성비

구분	그렇다	보통이다	안그렇다	Total
남성	106(13.8)	99(12.9)	241(31.5)	446(58.2)
여성	64(8.4)	46(6.0)	210(27.4)	320(41.8)
Total	170(22.2)	145(18.9)	451(58.9)	766(100.0)
χ^2	11.46404***	d. f. 2		

주) 무응답 사례수 : 14

* : $p < 0.1$, ** : $p < 0.05$, *** : $p < 0.01$,

<표 IV-19> 공공도덕 어긋난 경험의 직업별 총 구성비

구분	그렇다	보통이다	안그렇다	Total
학생	62(8.1)	76(9.9)	265(34.6)	403(52.5)
공무원	20(2.6)	16(2.1)	43(5.6)	79(10.3)
회사원	43(5.6)	17(2.2)	60(7.8)	120(15.6)
상업	17(2.2)	17(2.2)	25(3.3)	59(7.7)
농림수축	10(1.3)	6(.8)	4(.5)	20(2.6)
연구직	6(.8)	2(.3)	13(1.7)	21(2.7)
주부	6(.8)	8(1.0)	16(2.1)	30(3.9)
기타	7(.9)	3(.4)	25(3.3)	35(4.6)
Total	171(22.3)	145(18.9)	451(58.8)	767(100.0)
χ^2	51.25228***	d. f. 14		

주) 무응답 사례수 : 13
 * : $p < 0.1$, ** : $p < 0.05$, *** : $p < 0.01$,

<표 IV-20> 공공도덕 어긋난 경험의 거주지별 총 구성비

구분	그렇다	보통이다	안그렇다	Total
제주	56(7.3)	46(6.0)	80(10.4)	182(23.7)
인천	6(.8)	9(1.2)	15(2.0)	30(3.9)
서울	41(5.3)	39(5.1)	174(22.6)	254(33.0)
부산	17(2.2)	13(1.7)	43(5.6)	73(9.5)
광주	22(2.9)	10(1.3)	24(3.1)	56(7.3)
대구	16(2.1)	11(1.4)	25(3.3)	52(6.8)
기타	13(1.7)	18(2.3)	91(11.8)	122(15.9)
Total	171(22.2)	146(19.0)	452(58.8)	769(100.0)
χ^2	55.43108***	d. f. 12		

주) 무응답 사례수 : 11
 * : $p < 0.1$, ** : $p < 0.05$, *** : $p < 0.01$,

<표 IV-21> 공공도덕 어긋난 경험의 학력별 총 구성비

구분	그렇다	보통이다	안그렇다	Total
중졸이하	6(.8)	6(.8)	16(2.1)	28(3.7)
고졸	77(10.1)	72(9.4)	160(21.0)	309(40.5)
대졸	80(10.5)	57(7.5)	243(31.8)	380(49.8)
대학원이상	8(1.0)	8(1.0)	30(3.9)	46(6.0)
Total	171(22.4)	143(18.7)	449(58.8)	763(100.0)
χ^2	12.76121**	d. f. 6		

무응답 사례수 : 17

바. 동반한 탐방객의 인원수

인구통계적 변수에 따른 탐방객의 인원수를 살펴보면 남성, 여성 모두 4명 이상 동반한 경우가 남성은 총 449명 중 330명인 73.5%, 여성은 322명 중 238명인 73.9%이다. 그리고 2명이 동반한 경우는 남성의 경우 11.1%, 여성의 경우는 12.4%이다.

연령별로 보면 역시 4명 이상을 동반한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20세 이하의 경우 66명 중 48명인 72.7%가, 21세-30세의 경우 509명 중 394명인 77.4%가, 31세-40세의 경우 99명 중 63명인 63.6%가, 41세-50세의 경우는 62명 중 38명인 61.3%가, 그리고 51세 이상인 경우에는 응답자 35명 중 25명인 71.4%가 4명 이상의 동반탐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 보면 학생은 4명 이상 동반탐방이 총 응답자 406명 중 348명인 85.7%가, 공무원은 81명 중 52명인 64.2%가, 회사원은 120명 중 77명인 64.2%가, 상업은 59명 중 32명인 54.2%가, 농림수축산업은 동반객이 3명인 경우와 4명 이상인 경우가 총 응답자 20명 중 모두 7명으로 35.0%로 나타났으며, 연구직의 경우는 21명 중 16명인 76.2%, 주부인 경우는 30명 중 23명인 76.7% 등의 구성비를 나타내 4명 이상의 동반탐방객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제주지역 응답자 중 61.2%가, 인천 80.6%, 서울 79.2%, 부산 67.1%, 광주 62.5%, 대구 73.6%, 그리고 기타지역이 87.0%가 4인 이상의 동반객과 탐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중졸이하가 45.2%, 고졸이 66.2%, 대졸이 80.6%, 대학원졸 이상의 응답자 중 85.1%가 역시 4인 이상의 동반객과 국립공원을 찾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2> 동반객의 성별 총 구성비

구분	혼자왔다	2명	3명	4명이상	Total
남성	28(3.6)	50(6.5)	41(5.3)	330(42.8)	449(58.2)
여성	10(1.3)	40(5.2)	34(4.4)	238(30.9)	322(41.8)
Total	38(4.9)	90(11.7)	75(9.7)	568(73.7)	771(100.0)

주) 무응답 사례수 : 9

<표 IV-23> 동반객의 연령별 총 구성비

구분	혼자왔다	2명	3명	4명이상	Total
20세이하	2(.3)	10(1.3)	6(.8)	48(6.2)	66(8.6)
21-30세	21(2.7)	51(6.6)	43(5.6)	394(51.1)	509(66.0)
31-40세	4(.5)	17(2.2)	15(1.9)	63(8.2)	99(12.8)
41-50세	9(1.2)	6(.8)	9(1.2)	38(4.9)	62(8.0)
51세이상	1(.1)	6(.8)	3(.4)	25(3.2)	35(4.5)
Total	37(4.8)	90(11.7)	76(9.9)	568(73.7)	771(100.0)

주) 무응답 사례수 : 9

<표 IV-24> 동반객의 직업별 총 구성비

구분	혼자왔다	2명	3명	4명이상	Total
학생	14(1.8)	20(2.6)	24(3.1)	348(45.1)	406(52.6)
공무원	7(.9)	17(2.2)	5(.6)	52(6.7)	81(10.5)
회사원	7(.9)	20(2.6)	16(2.1)	77(10.0)	120(15.5)
상업	5(.6)	9(1.2)	13(1.7)	32(4.1)	59(7.6)
농림수축	1(.1)	5(.6)	7(.9)	7(.9)	20(2.6)
연구직	1(.1)	3(.4)	1(.1)	16(2.1)	21(2.7)
주부	1(.1)	3(.4)	3(.4)	23(3.0)	30(3.9)
기타	2(.3)	13(1.7)	7(.9)	13(1.7)	35(4.5)
Total	38(4.9)	90(11.7)	76(9.8)	568(73.6)	772(100.0)

주) 무응답 사례수 : 8

<표 IV-25> 동반객의 거주지별 총 구성비

구분	혼자왔다	2명	3명	4명이상	Total
제주	14(1.8)	25(3.2)	32(4.1)	112(14.5)	183(23.6)
인천	2(.3)	3(.4)	1(.1)	25(3.2)	31(4.0)
서울	9(1.2)	32(4.1)	12(1.6)	202(26.1)	255(32.9)
부산	4(.5)	5(.6)	15(1.9)	49(6.3)	73(9.4)
광주	3(.4)	9(1.2)	9(1.2)	35(4.5)	56(7.2)
대구	3(.4)	7(.9)	4(.5)	39(5.0)	53(6.8)
기타	3(.4)	9(1.2)	4(.5)	107(13.8)	123(15.9)
Total	38(4.9)	90(11.6)	77(9.9)	569(73.5)	774(100.0)

주) 무응답 사례수 : 6

<표 IV-26> 동반객의 학력별 총 구성비

구분	혼자왔다	2명	3명	4명이상	Total
중졸이하	6(.8)	8(1.0)	3(.4)	14(1.8)	31(4.0)
고졸	12(1.6)	46(6.0)	46(6.0)	204(26.6)	308(40.1)
대졸	16(2.1)	31(4.0)	27(3.5)	308(40.1)	382(49.7)
대학원이상	4(.5)	3(.4)	0(0)	40(5.2)	47(6.1)
Total	38(4.9)	88(11.5)	76(9.9)	566(73.7)	768(100.0)

주) 무응답 사례수 : 12

사. 이용한 등산로

이용한 5개 코스 중 가장 많은 이용률을 보인 등산로를 인구통계적 변수에 따라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51.2%, 여성은 51.1%, 연령별로는 20세이하 46.6%, 21세-30세 59.3%, 31세-40세 45.3%, 직업별로는 학생 61.0%, 공무원 39.4%, 회사원 46.8%, 상업 44.4%, 농림수축 52.6%, 주부 42.3, 지역별로는 제주 응답자의 49.1%, 인천 56.0%, 서울 54.3%, 부산 63.3%, 광주 47.1%, 대구 52.9%, 그리고 학력별로 볼 때는 고졸응답자의 46.7%, 대졸 59.7%, 대학원 이상이 59.0%가 어리목코스를 등산코스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51세 이상의 연령층(37.1%), 연구직(55.6%), 그리고 중졸이하 응답자의 50.0%만이 영실코스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IV-27> 이용한 등산로의 성별 총 구성비

구분	어리목	영실	성판악	관음사	돈네코	Total
남성	199(29.5)	112(16.6)	61(9.1)	10(1.5)	7(1.0)	389(57.7)
여성	157(23.3)	87(12.9)	31(4.6)	8(1.2)	2(.3)	285(42.3)
Total	356(52.8)	199(29.5)	92(13.6)	18(2.7)	9(1.3)	674(100.0)

주) 무응답 사례수 : 143

<표 IV-28> 이용한 등산로의 연령별 구성비

구분	어리목	영실	성판악	관음사	돈네코	Total
20세이하	27(4.0)	18(2.7)	7(1.0)	2(.3)	4(.6)	58(8.6)
21-30세	261(38.7)	112(16.6)	55(8.2)	10(1.5)	2(.3)	440(65.3)
31-40세	39(5.8)	35(5.2)	12(1.8)	0(0)	0(0)	86(12.8)
41-50세	17(2.5)	21(3.1)	12(1.8)	3(.4)	2(.3)	55(8.2)
51세이상	12(1.8)	13(1.9)	6(.9)	3(.4)	1(.1)	35(5.2)
Total	356(52.8)	199(29.5)	92(13.6)	18(2.7)	9(1.3)	674(100.0)

주) 무응답 사례수 : 106

<표 IV-29> 이용한 등산로의 직업별 총 구성비

구분	어리목	영실	성판악	관음사	돈네코	Total
학생	211(31.3)	85(12.6)	38(5.6)	6(.9)	6(.9)	346(51.3)
공무원	28(4.1)	27(4.0)	14(2.1)	1(.1)	1(.1)	71(10.5)
회사원	51(7.6)	38(5.6)	15(2.2)	4(.6)	1(.1)	109(16.1)
상업	24(3.6)	19(2.8)	8(1.2)	2(.3)	1(.1)	54(8.0)
농림수축	10(1.5)	6(.9)	2(.3)	1(.1)	0(0)	19(2.8)
연구직	8(1.2)	10(1.5)	0(0)	0(0)	0(0)	18(2.7)
주부	11(1.6)	9(1.3)	4(.6)	2(.3)	0(0)	26(3.9)
기타	13(1.9)	6(.9)	11(1.6)	2(.3)	0(0)	32(4.7)
Total	356(52.7)	200(29.6)	92(13.6)	18(2.7)	9(1.3)	675(100.0)

주) 무응답 사례수 : 105

<표 IV-30> 이용한 등산로의 학력별 총 구성비

구분	어리목	영실	성판악	관음사	돈네코	Total
중졸이하	6(.9)	13(1.9)	2(.3)	3(.4)	2(.3)	26(3.9)
고졸	129(19.2)	89(13.3)	47(7.0)	7(1.0)	4(.6)	276(41.1)
대졸	197(29.4)	86(12.8)	38(5.7)	7(1.0)	2(.3)	330(49.2)
대학원이상	23(3.4)	12(1.8)	4(.6)	0(0)	0(0)	39(5.8)
Total	355(52.9)	200(29.8)	91(13.6)	17(2.5)	8(1.2)	671(100.0)

주) 무응답 사례수 : 109

아. 이용한 하산로

이용한 5개 코스 중 가장 많은 이용률을 보인 하산로를 인구통계적 변수에 따라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41.6%, 여성은 48.3%, 연령별로는 20세이하 52.7%, 21세-30세 41.0%, 31세-40세 54.9%, 직업별로는 학생 42.0%, 공무원 56.1%, 회사원 39.4%, 상업 58.0%, 연구직 47.1%, 주부 65.4, 지역별로는 제주응답자의 45.1%, 인천 56.5%, 부산 59.6%, 광주 51.0%, 대구 55.1%, 그리고 학력별로 볼 때는 중졸이하 응답자의 38.5%, 고졸응답자의 39.9%, 대졸 47.9%, 대학원 이상이 54.1%가 어리목코스를 하산코스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별로 농림수축 52.6%와 지역별로 서울 응답자의 48.6%만이 영실코스를 가장 많은 하산코스로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IV-31> 이용한 하산로의 성별 총 구성비

구분	어리목	영실	성판악	관음사	돈네코	Total
남성	153(24.0)	121(19.0)	77(12.1)	13(2.0)	4(.6)	368(57.8)
여성	130(20.4)	106(16.6)	23(3.6)	10(1.6)	0(0)	269(42.2)
Total	283(44.4)	227(35.6)	100(15.7)	23(3.6)	4(.6)	637(100.0)

주) 무응답 사례수 : 143

<표 IV-32> 이용한 하산로의 연령별 구성비

구분	어리목	영실	성판악	관음사	돈네코	Total
20세이하	29(4.6)	14(2.2)	8(1.3)	3(.5)	1(.2)	55(8.6)
21-30세	170(26.7)	165(25.9)	66(10.4)	13(2.0)	1(.2)	415(65.1)
31-40세	45(7.1)	25(3.9)	12(1.9)	0(0)	0(0)	82(12.9)
41-50세	21(3.3)	18(2.8)	10(1.6)	3(.5)	1(.2)	53(8.3)
51세이상	19(3.0)	4(.6)	4(.6)	4(.6)	1(.2)	32(5.0)
Total	284(44.6)	226(35.5)	100(15.7)	23(3.6)	4(.6)	637(100.0)

주) 무응답 사례수 : 143

<표 IV-33> 이용한 하산로의 직업별 총 구성비

구분	어리목	영실	성판악	관음사	돈네코	Total
학생	137(21.5)	129(20.2)	48(7.5)	10(1.6)	2(.3)	326(51.1)
공무원	37(5.8)	14(2.2)	12(1.9)	2(.3)	1(.2)	66(10.3)
회사원	41(6.4)	41(6.4)	18(2.8)	4(.6)	0(0)	104(16.3)
상업	29(4.5)	12(1.9)	7(1.1)	1(.2)	1(.2)	50(7.8)
농림수축	5(.8)	11(1.7)	2(.3)	1(.2)	0(0)	19(3.0)
연구직	8(1.3)	7(1.1)	2(.3)	0(0)	0(0)	17(2.7)
주부	17(2.7)	5(.8)	2(.3)	2(.3)	0(0)	26(4.1)
기타	10(1.6)	8(1.3)	9(1.4)	3(.5)	0(0)	30(4.7)
Total	284(44.5)	227(35.6)	100(15.7)	23(3.6)	4(.6)	638(100.0)

주) 무응답 사례수 : 142

<표 IV-34> 이용한 하산로의 거주지별 총 구성비

구분	어리목	영실	성판악	관음사	돈내코	Total
제주	73(11.4)	51(8.0)	27(4.2)	9(1.4)	2(.3)	162(25.4)
인천	13(2.0)	4(.6)	5(.8)	0(0)	1(.2)	23(3.6)
서울	73(11.4)	101(15.8)	29(4.5)	5(.8)	0(0)	208(32.6)
부산	34(5.3)	12(1.9)	8(1.3)	3(.5)	0(0)	57(8.9)
광주	26(4.1)	12(1.9)	9(1.4)	4(.6)	0(0)	51(8.0)
대구	27(4.2)	17(2.7)	4(.6)	1(.2)	0(0)	49(7.7)
기타	39(6.1)	30(4.7)	18(2.8)	1(.2)	1(.2)	89(13.9)
Total	285(44.6)	227(35.5)	100(15.6)	23(3.6)	4(.6)	639(100.0)

주) 무응답 사례수 : 141

(3) 假說3의 檢證

가설 3은 국립공원의 편의시설과 관리상황에 대한 평가는 인구통계적 변수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것인데 편의시설에는 주차공간, 화장실, 식음료점, 안내표지, 그리고 안내시설 등이 포함되었고, 국립공원의 관리상황의 대상에는 대표원의 친절도, 공원의 청결성, 훼손지역의 유무, 재방문 의도, 쓰레기 처리정도 등이 포함되어 5점척도로 질문되었다.

일반적으로 분산의 동일성 검정은 F값으로 판정하며 이 F값이 채택역 안에 있으면 Pooled Variance Estimate를, 기각역 안에 있으면 Separate Variance Estimate를 이용한다²⁴⁾. 즉 산출표에서 출력결과의 F값과 대응되는 P값은 분산의 동일성에 관한 검정에 해당되는데 P값이 0.05보다 크면 분산의 동일성은 채택되고, Pooled Variance Estimate를 이용한 t검정이 실시되며, P값이 0.05보다 작으면 두집단 분산의 동일성은 기각되고, Separate Variance Estimate를 이용한 t검정이 이용된다²⁵⁾.

따라서 편의시설과 관리상황에 대하여 성별 집단간에는 T검증을, 그리고 3집단 이상의 변수에는 일원변량분석(one-way)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즉 성별집단에 대해서 편의시설이나 관리상황에 대한 평가가 유사하게 나타나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연령별 집단간에는 편의시설 및 관리상황평

24) 채서일·김범종·이성근, 「SPSS/PC를 이용한 통계분석」, 학현사, 1992, p. 96.

25) 문경일·엄정국, 「SPSS/PC+ 활용」, 영진출판사, 1989, pp. 94-95.

가에 대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이 두 변수에 대하여 50대 이상의 연령층이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직업별 집단간에는 편의시설 및 관리상황 평가에 대하여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자유직 응답자의 평가가 가장 긍정적인 반면, 관리상황에 대해서는 회사원이 가장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거주지별 집단간에는 편의시설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부산, 제주, 광주, 인천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통계적인 차이는 없다. 그러나 관리상황평가에 대해서는 지역별 집단간 차이를 보이고 있고 그 순위는 광주, 제주, 대구, 서울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별 집단간에는 편의시설에 대하여 $\alpha=0.05$ 수준에서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평가의 순위는 중졸이하, 고졸, 대학원이상, 대졸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관리상황에 대해서는 학력별 집단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표 IV-35> 성별에 따른 편의시설과 관리상황에 대한 평가의 차이검증

구 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p
편의시설	남성	434	2.0599	.748	1.26	.208
	여성	317	1.9905	.740		
관리상황	남성	437	2.6568	.576	.93	.355
	여성	313	2.6166	.599		

<표 IV-36> 연령별 집단에 따른 편의시설 및 관리상황평가에 대한 변량분석

구 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P 값
편의시설	20대 미만	64	1.9063	.7064	3.6128 ***	.0063
	20대	498	1.9819	.7382		
	30대	96	2.1458	.7675		
	40대	58	2.2241	.7733		
	50대 이상	35	2.2857	.6674		
	Total	751	2.0293	.7442		
관리상황	20대 미만	61	2.4098	.7611	4.8942 ***	.0007
	20대	496	2.6169	.5916		
	30대	97	2.7835	.4836		
	40대	61	2.7049	.5274		
	50대 이상	35	2.8000	.4058		
	Total	750	2.6373	.5884		

주) *** : $P < 0.01$, ** : $P < 0.05$, * : $P < 0.1$

<표 IV-37> 직업별 집단에 따른 편의시설 및 관리상황평가에 대한 변량분석

구 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P 값
편의시설	학생	395	1.9165	.7200	7.0666 ***	.0001
	회사원	77	2.1558	.7083		
	공무원	118	2.0847	.7688		
	자유직	164	2.2012	.7609		
	Total	754	2.0292	.7445		
관리상황	학생	391	2.5575	.6252	5.3780 ***	.0011
	회사원	81	2.7654	.5308		
	공무원	117	2.7350	.5152		
	자유직	164	2.6951	.5469		
	Total	753	2.6375	.5880		

주) *** : P<0.01, ** : P<0.05, * : P<0.1

<표 IV-38> 거주지별 집단에 따른 편의시설 및 관리상황평가에 대한 변량분석

구 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P 값
편의시설	제주	178	2.1124	.7432	1.4686	.1861
	인천	31	2.0000	.7746		
	서울	248	1.9677	.7681		
	부산	71	2.1831	.6394		
	광주	52	2.0769	.7630		
	대구	52	1.9808	.8042		
	기타	122	1.9508	.7024		
	Total	754	2.0292	.7445		
관리상황	제주	180	2.7000	.5682	2.8249 ***	.0100
	인천	30	2.3333	.7581		
	서울	246	2.6341	.5681		
	부산	72	2.5833	.6224		
	광주	53	2.8113	.4826		
	대구	52	2.6538	.5561		
	기타	120	2.5750	.6172		
	Total	753	2.6375	.5880		

주) *** : P<0.01, ** : P<0.05, * : P<0.1

<표 IV-39> 학력별 집단에 따른 편의시설 및 관리상황평가에 대한 변량분석

구 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P 값
편의시설	중졸이하	27	2.2593	.7121	2.7604 **	.0413
	고졸	302	2.0861	.7642		
	대졸	373	1.9544	.7226		
	대학원이상	46	2.0652	.7424		
	Total	748	2.0254	.7431		
관리상황	중졸이하	30	2.5000	.7311	1.8644	.1342
	고졸	299	2.6054	.6115		
	대졸	372	2.6532	.5694		
	대학원이상	46	2.7826	.4673		
	Total	747	2.6359	.5892		

주) *** : P<0.01, ** : P<0.05, * : P<0.1

(4) 假說4의 檢證

가설 4는 인구통계적 변수에 따라 국립공원 접근방식, 느끼는 매력정도, 시설에 대한 훼손의 평가정도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며, 이를 성별, 연령, 직업, 거주지, 학력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접근방식

등산하기 위해 국립공원 입구까지 이용한 교통편은 남성은 451명 중 249명(55.2%)이, 여성은 326명 중 216명(66.3%)가 버스를 이용하였고, 연령별로는 20세이하가 72.7%, 21세-30세 65.4%, 31세-40세 37.0%, 41세-50세 43.5%, 51세이상은 45.7%, 직업별로는 학생 78.7%, 회사원 48.4%, 상업 42.4%, 연구직 57.1%, 주부 40.0, 지역별로는 제주응답자의 31.7%, 서울 70.7%, 인천 56.5%, 부산 64.9%, 광주 64.3%, 대구 58.5%, 그리고 학력별로 볼 때는 중졸이하 응답자의 54.8%, 고졸응답자의 44.5%, 대졸 72.3%, 대학원 이상이 63.8%가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별로 공무원 중에서는 자가용 이용비율이 36.6%로 가장 높고, 이어서 버스이용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는 濟州道가 섬이기에 자가용의 이동성에 제한이 있어 제주도 응답자의 경우만 자가용 이용비율이 28.5%로 타지역 응답자 10%내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40> 이용한 교통편의 성별 총 구성비

구분	버스	택시	자가용	기타	Row Total
남성	249 32.0	27 3.5	56 7.2	119 15.3	451 58.0
여성	216 27.8	17 2.2	29 3.7	64 8.2	326 42.0
열간합계	465 59.8	44 5.7	85 10.9	183 23.6	777 100.0

주) 무응답 사례수 : 3

<표 IV-41> 이용한 교통편의 연령별 구성비

구분	버스	택시	자가용	기타	열간합계
20세이하	48(6.2)	0(0)	2(.3)	16(2.1)	66(8.5)
21-30세	336(43.2)	18(2.3)	49(6.3)	111(14.3)	514(66.2)
31-40세	37(4.8)	15(1.9)	19(2.4)	29(3.7)	100(12.9)
41-50세	27(3.5)	7(.9)	10(1.3)	18(2.3)	62(8.0)
51세이상	16(2.1)	4(.5)	6(.8)	9(1.2)	35(4.5)
열간합계	464(59.7)	44(5.7)	86(11.1)	183(23.6)	777(100.0)

주) 무응답 사례수 : 3

<표 IV-42> 이용한 교통편의 거주지별 총 구성비

구분	버스	택시	자가용	기타	열간합계
제주	59(7.6)	14(1.8)	53(6.8)	60(7.7)	186(23.8)
인천	27(3.5)	1(.1)	1(.1)	3(.4)	32(4.1)
서울	181(23.2)	12(1.5)	13(1.7)	50(6.4)	256(32.8)
부산	48(6.2)	5(.6)	6(.8)	15(1.9)	74(9.5)
광주	36(4.6)	2(.3)	5(.6)	13(1.7)	56(7.2)
대구	31(4.0)	4(.5)	5(.6)	13(1.7)	53(6.8)
기타	84(10.8)	6(.8)	3(.4)	30(3.8)	123(15.8)
열간합계	466(59.7)	44(5.6)	86(11.0)	184(23.6)	780(100.0)

주) 무응답 사례수 : 0

<표 IV-43> 이용한 교통편의 학력별 층 구성비

구 분	버스	택시	자가용	기타	줄간합계
중졸이하	17(2.2)	3(.4)	3(.4)	8(1.0)	31(4.0)
고졸	138(17.8)	22(2.8)	45(5.8)	105(13.6)	310(40.1)
대졸	279(36.0)	16(2.1)	28(3.6)	63(8.1)	386(49.9)
대학원이상	30(3.9)	3(.4)	9(1.2)	5(.6)	47(6.1)
열간합계	464(59.9)	44(5.7)	85(11.0)	181(23.4)	774(100.0)

주) 무응답 사례수 : 6

나. 자원에 대한 매력도

가) 자연경관

자연경관자원에 대해 느끼는 매력도를 질문한 결과 성별로는 남성이 437명 중 355명(81.2%)이, 여성은 317명 중 277명(71.6%)가 매력적이라고 응답하여 총 754명 중 582명인 77.2%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연령별로는 20세이하가 73.0%, 21세-30세 74.5%, 31세-40세 86.5%, 41세-50세 82.8%, 51세이상은 90.6%가 자연경관자원이 매력적이라고 응답하여 대체적으로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응답이 매력적이라는 비율이 높다. 직업별로는 학생 72.8%, 공무원, 82.7%, 회사원 82.4%, 상업 92.7%, 농림수축 72.2%, 연구직 81.0%, 주부 71.4%가, 지역별로는 제주응답자의 82.4%, 서울 80.1%, 인천 56.7%, 부산 79.2%, 광주 61.8%, 대구 86.5%가, 그리고 학력별로 볼 때는 중졸이하 응답자의 79.3%, 고졸응답자의 78.5%, 대졸 75.1%, 대학원 이상이 82.6%가 매력적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자연경관 매력에 대한 성별, 거주지별 응답자간에는 유의수준 $\alpha=0.01$ 수준에서, 연령별 응답자간에는 유의수준 $\alpha=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각각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IV-44> 자연경관 매력에 대한 성별 총 구성비

구분	매력적이다	보통이다	매력없다	줄간합계
남성	355(47.1)	47(6.2)	35(4.6)	437(58.0)
여성	227(30.1)	59(7.8)	31(4.1)	317(42.0)
열간합계	582(77.2)	106(14.1)	66(8.8)	754(100.0)
χ^2 10.93084***	<i>d. f.</i> 2	Significance .0042		

주) 무응답 사례수 : 26
 * : $p < 0.1$, ** : $p < 0.05$, *** : $p < 0.01$,

<표 IV-45> 자연경관 매력에 대한 연령별 총 구성비

구분	매력적이다	보통이다	매력없다	줄간합계
20세이하	46(6.1)	8(1.1)	9(1.2)	63(8.3)
21-30세	377(49.9)	86(11.4)	43(5.7)	506(67.0)
31-40세	83(11.0)	6(.8)	7(.9)	96(12.7)
41-50세	48(6.4)	5(.7)	5(.7)	58(7.7)
51세이상	29(3.8)	1(.1)	2(.3)	32(4.2)
열간합계	583(77.2)	106(14.0)	66(8.7)	755(100.0)
χ^2 16.67982**	<i>d. f.</i> 8	Significance .0336		

주) 무응답 사례수 : 25
 * : $p < 0.1$, ** : $p < 0.05$, *** : $p < 0.01$,

<표 IV-46> 자연경관 매력에 대한 거주지별 총 구성비

구분	매력적이다	보통이다	매력없다	줄간합계
제주	150(19.8)	19(2.5)	13(1.7)	182(24.0)
인천	17(2.2)	6(.8)	7(.9)	30(4.0)
서울	197(26.0)	27(3.6)	22(2.9)	246(32.5)
부산	57(7.5)	12(1.6)	3(.4)	72(9.5)
광주	34(4.5)	11(1.5)	10(1.3)	55(7.3)
대구	45(5.9)	7(.9)	0(0)	52(6.9)
기타	84(11.1)	24(3.2)	12(1.6)	120(15.9)
Total	584(77.1)	106(14.0)	67(8.9)	757(100.0)
χ^2	34.25328***	d.f.	12	Significance
				.0006

주) 무응답 사례수 : 23
 * : $p < 0.1$, ** : $p < 0.05$, *** : $p < 0.01$,

나) 동물

동물자원에 대해 느끼는 매력도를 질문한 결과 성별로는 남성이 416명 중 217명(52.2%)이, 여성은 307명 중 150명(48.9%)가 매력적이라고 응답하여 총 723명 중 367명인 50.8%가 매력적이라고 응답을 하였다. 연령별로는 20세이하가 44.3%, 21세-30세 48.1%, 31세-40세 63.6%, 41세-50세 52.8%, 51세이상은 69.0%가 동물자원이 매력적이라고 응답하였고, 직업별로는 학생 43.8%, 공무원, 53.2%, 회사원 60.0%, 상업 73.6%, 농림수축 72.2%, 연구직 55.6%, 주부 46.2%가, 지역별로는 제주응답자의 57.2%, 서울 46.2%, 인천 58.1%, 부산 45.7%, 광주 54.9%, 대구 60.4%가, 그리고 학력별로 볼 때는 중졸이하 응답자의 42.9%, 고졸응답자의 56.8%, 대졸 46.2%, 대학원이상이 56.1%가 매력적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동물자원의 매력에 대한 학력별 응답자간에는 유의수준 $\alpha=0.1$ 수준에서, 성별 및 연령별 응답자간에는 유의수준 $\alpha=0.05$ 수준에서, 그리고 직업별 응답자간에는 유의수준 $\alpha=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각각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IV-47> 동물자원 매력에 대한 성별 총 구성비

구분	매력적이다	보통이다	매력없다	줄간합계
남성	217(30.0)	84(11.6)	115(15.9)	416(57.5)
여성	150(20.7)	87(12.0)	70(9.7)	307(42.5)
Total	367(50.7)	171(23.6)	185(25.6)	723(100.0)
	χ^2 6.95536**	d. f. 2	Significance .0309	

주) 무응답 사례수 : 57
* : p < 0.1, ** : p < 0.05, *** : p < 0.01,

<표 IV-48> 동물자원 매력에 대한 연령별 총 구성비

구분	매력적이다	보통이다	매력없다	줄간합계
20세이하	27(3.7)	13(1.8)	21(2.9)	61(8.4)
21-30세	237(32.7)	121(16.7)	135(18.6)	493(68.1)
31-40세	56(7.7)	18(2.5)	14(1.9)	88(12.2)
41-50세	28(3.9)	16(2.2)	9(1.2)	53(7.3)
51세이상	20(2.8)	3(.4)	6(.8)	29(4.0)
Total	368(50.8)	171(23.6)	185(25.6)	724(100.0)
	χ^2 17.35499**	d. f. 8	Significance .0266	

주) 무응답 사례수 : 56
* : p < 0.1, ** : p < 0.05, *** : p < 0.01,

<표 IV-49> 동물자원 매력에 대한 학력별 총 구성비

구분	매력적이다	보통이다	매력없다	줄간합계
중졸이하	12(1.7)	10(1.4)	6(.8)	28(3.9)
대졸	169(23.5)	94(13.1)	103(14.3)	366(50.8)
대학원이상	23(3.2)	11(1.5)	7(1.0)	41(5.7)
Total	366(50.8)	171(23.8)	183(25.4)	720(100.0)
	χ^2 11.38184*	d. f. 6	Significance .0773	

주) 무응답 사례수 : 60
* : p < 0.1, ** : p < 0.05, *** : p < 0.01,

<표 IV-50> 동물자원 매력에 대한 직업별 총 구성비

구분	매력적이다	보통이다	매력없다	줄간합계
학생	172(23.8)	97(13.4)	124(17.1)	393(54.3)
공무원	42(5.8)	18(2.5)	19(2.6)	79(10.9)
회사원	63(8.7)	26(3.6)	16(2.2)	105(14.5)
상업	39(5.4)	8(1.1)	6(.8)	53(7.3)
농림수축	13(1.8)	3(.4)	2(.3)	18(2.5)
연구직	10(1.4)	5(.7)	3(.4)	18(2.5)
주부	12(1.7)	7(1.0)	7(1.0)	26(3.6)
기타	17(2.3)	7(1.0)	8(1.1)	32(4.4)
Total	368(50.8)	171(23.6)	185(25.6)	724(100.0)

χ^2 *d. f.* Significance
 31.71233*** 14 .0044

주) 무응답 사례수 : 56

* : $p < 0.1$, ** : $p < 0.05$, *** : $p < 0.01$,

다) 식물

식물자원에 대해 느끼는 매력도를 질문한 결과 성별로는 남성이 72.7%가, 여성은 70.7%가 매력적이라고 응답하여 총 750명 중 539명인 71.9%가 매력적이라고 응답을 하였다. 연령별로는 31세-40세가 76.6%로 식물자원이 매력적이라는 비율이 가장 높은 응답하였고, 직업별로는 회사원(81.6%)이, 지역별로는 제주응답자의 81.7%가, 학력별로는 불 때는 대학원이상이 73.3%가 매력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나타났다.

식물자원의 매력에 대한 거주지별 응답자간에는 유의수준 $\alpha=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IV-51> 식물자원 매력에 대한 거주지별 총 구성비

구분	매력적이다	보통이다	매력없다	중간합계
제주	147(19.5)	22(2.9)	11(1.5)	180(23.9)
인천	16(2.1)	9(1.2)	6(.8)	31(4.1)
서울	170(22.6)	51(6.8)	25(3.3)	246(32.7)
부산	51(6.8)	13(1.7)	8(1.1)	72(9.6)
광주	35(4.6)	4(.5)	14(1.9)	53(7.0)
대구	42(5.6)	8(1.1)	2(.3)	52(6.9)
기타	79(10.5)	17(2.3)	23(3.1)	119(15.8)
Total	540(71.7)	124(16.5)	89(11.8)	753(100.0)

χ^2 D.F Significance
41.56753*** 12 .0000

주) 무응답 사례수 : 27

* : $p < 0.1$, ** : $p < 0.05$, *** : $p < 0.01$,



라) 문화경관

문화경관자원에 대해 느끼는 매력도를 질문한 결과 성별로는 남성의 28.8%가, 여성은 29.3%가 매력적이라고 응답한 반면 매력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남성 44.6%가, 여성은 41.1%로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도 20세이하가 35.0%로 문화경관자원이 매력적이라는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게 응답하였고, 직업별로는 상업(43.1%)이, 지역별로는 제주응답자의 36.5%가, 학력별로 볼 때는 고졸 응답자가 33.2%로 매력적이라는 응답을 하여 대체적으로 문화경관에 대한 매력도가 자연경관이나 동·식물의 매력도보다 훨씬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문화경관자원의 매력에 대한 거주지별 응답자간에는 유의수준 $\alpha=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IV-52> 문화경관 매력에 대한 거주지별 총 구성비

구분	매력적이다	보통이다	매력없다	줄간합계
제주	62(8.6)	33(4.6)	75(10.5)	170(23.7)
인천	8(1.1)	7(1.0)	14(2.0)	29(4.0)
서울	61(8.5)	64(8.9)	107(14.9)	232(32.4)
부산	16(2.2)	26(3.6)	27(3.8)	69(9.6)
광주	18(2.5)	11(1.5)	22(3.1)	51(7.1)
대구	14(2.0)	18(2.5)	17(2.4)	49(6.8)
기타	29(4.0)	41(5.7)	47(6.6)	117(16.3)
Total	208(29.0)	200(27.9)	309(43.1)	717(100.0)

χ^2 d. f. Significance
 19.25335* 12 .0826

주) 무응답 사례수 : 63
 * : p < 0.1, ** : p < 0.05, *** : p < 0.01

(5) 其他分析

가. 탐방수요관리

한라산의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서 등산예약제도를 실시해야 한다는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설 환경계획연구소의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본 보고서는 한라산 환경파괴의 근본적인 원인은 등산로의 수용능력을 초과한 등산객이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라산국립공원측이 조사한 한라산내 식생훼손의 정도는 등산객에 의한 것이 2만 8천 6백평방미터로 추산하고 있다²⁶⁾. 본 실증연구에서도 탐

26) 중앙일보, 1993.9.2. 제21면.

방수요를 관리하기 위하여 예약제의 실시가 환경훼손을 막는데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6.5%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율 19.6%보다 월등히 높다. 또한 현재의 코스에 집중되는 탐방객을 분산하기 위해서 백록담 이외의 지역을 백록담에 오르는 느낌을 동일하게 갖도록 해줄 수 있는 회생지역의 선정에 대하여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1.1%로 아주 높게 나타났다. 그밖에도 自然休息年制의 실시에 74.5%가, 방문객센터 등의 이용시설확대에 72.9%, 그리고 백록담 대체물 이용의도 54.6%, 케이블카나 모노레일 등을 이용한 한라산 감상 57.5%, 등산로이용의 공원보호 기여도 67.4%, 그리고 훼손된 등반로의 보호를 위한 일시적 폐쇄 70.0% 등이 바람직하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 편의시설의 관리

한라산 국립공원이 제공하고 있는 공원내의 편의시설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주차공간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43.7%였고, 화장실시설 34.7%, 식음료시설 16.0%, 안내표시시설 31.6%, 안전시설 29.5%가 좋다고 응답하였고 반면 식음료시설(46.6%), 화장실시설(28.5%) 등은 좋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 관리상황

한라산 국립공원 이용시 탐방객이 느낀 공원내의 관리상황은 다음과 같다. 즉 매표원은 친절하다고 느낀 비율은 55.7%였고, 공원이 청결성하다고 느끼 비율은 65.5%, 훼손지역 있다는 50.9%, 재방문 하고 싶다는 67.8%, 쓰레기처리가 잘된다고 느낀 응답자는 55.6%, 공원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야 한다고 한 응답은 72.2%, 관리사무소의 보수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87.2%, 현재의 등산로 소재로 돌아나 흠이 적합한지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46.5%, 그리고 새로운 등산로 소재의 이용에 대해서는 60.8%가 찬성 또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 分析結果의 要約

탐방객들은 한라산 보호 및 가치증대에 대해 기여하는 중요도순위에서 1위로 쓰레기처리를, 2위로 산불관리를, 그리고 3위로 수목의 도벌 및 도채방지 등으로 인식하고 있다.

휴지를 버린 경험에 있어서 연령별 응답자간에는 유의수준 $\alpha=0.1$ 수준에서, 성별 응답자간에는 유의수준 $\alpha=0.05$ 수준에서 그리고 직업별, 거주지별, 학력별 응답자간에는 유의수준 $\alpha=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각각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환경훼손의 경험에 있어서 직업별 집단간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거주지별 및 학력별 응답자간에는 유의수준 $\alpha=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각각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등산로 이탈을 경험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연령별 응답자간에는 유의수준 $\alpha=0.05$ 수준에서, 성별, 직업별, 거주지별, 학력별 응답자간에는 유의수준 $\alpha=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각각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거주지별 응답자간에는 유의수준 $\alpha=0.1$ 수준에서 공원내 안내시설을 귀중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는 질문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각각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공도덕에 어긋난 경험이 있는가에 대하여 성별, 직업별, 거주지별 응답자간에는 유의수준 $\alpha=0.01$ 수준에서, 학력별 응답자의 집단간에는 유의수준 $\alpha=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각각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별집단에 대해서 편의시설이나 관리상황에 대한 평가가 유사하게 나타나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연령별 집단간에는 편의시설 및 관리상황평가에 대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직업별 집단간에는 편의시설 및 관리상황평가에 대하여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거주지별 집단간에는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통계적인 차이는 없고 관리상황평가에 대해서는 지역별 집단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력별 집단간에는 편의시설에 대하여 $\alpha=0.05$ 수준에서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관리상황에 대해서는 학력별 집단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탐방객들이 공원에 접근시 이용한 교통편은 버스가 가장 많고(59.7%), 한라산 자원 중 자연경관에 매력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8.0%, 식물 36.7%, 동물 25.9% 그리고 문화경관에는 12.8%가 매력적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등산로로 이용한 주요 코스는 어리목(52.7%)이며, 하산코스로도 역시 어리목(44.6%)으로 나타났고 가장 이용하지 않는 곳은 등·하산 코스 모두 돈네코였다.

4. 效率的 管理方案의 提言

한라산 국립공원의 중요한 관리문제는 식생훼손이나 쓰레기처리, 등산로의 파괴 등 다양하게 많으나 한정된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따라서 실증분석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탐방객을 줄이기 위한 豫約制와 그 影響을 研究해 볼 필요가 있다. 한라산의 탐방객은 주로 제주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온 경우(76.2%)이므로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심한 불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전의 활발한 홍보활동이 필요하고 또한 탐방시기가 집중되는 달에는 어리목과 영실과 같은 탐방객이 과다한 코스만을 예약제로 실시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볼만 하다.

둘째로 探訪客이 利用하는 地域의 集中補修이다. 탐방객의 국립공원 이용이 공원훼손의 원인이나 공원이용이 훼손의 요인이 되지 않는다면 국립공원설정 취지에 따라 공원이용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용과 보호가 이율배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의 조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탐방객의 숫적 감소를 유도함과 아울러 이들에 의해 훼손되는 지역의 피해를 극소화해야 한다. 여기에는 탐방객의 고의적인 것은 계도에 의해 점진적으로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피해를 입은 부분은 복구하거나 또는 집중 피해지역에 피해가 급진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도록 하는 소재 따위를 이용하는 것이다.

셋째로 탐방객의 이용의 편의성만을 고려하여 행해지는 計劃들은 재차 再考할 필요가 있다. 접근성의 용이성을 위한 도로의 개설을 제한하거나, 과다한 관광객

의 유인이 되는 사항들의 역제가 필요하다.

넷째로 이용객의 白鹿潭頂上訪問의 欲求를 分散시킨다. 즉 특정지역의 개발로 그 지역이 일부 훼손되더라도 장기적이고 전반적인 관점에서 한라산의 주요 요체가 되는 부분의 보호가 보장될 만큼 편익을 제공해 줄 수 있다면 그곳을 희생지역으로 하여 백록담방문의 육구를 스포츠활동 및 휴양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을 포함한 다양한 편의시설이 설비된 곳으로 유도한다.

다섯째, 국립공원의 중요성을 널리 인식시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탐방객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탐방수요가 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국립공원이 주는 편익을 설명하고 그 편익이 공원보호에 의해서만 재사이클화 될 수 있음을 전국의 국립공원 관리차원에서 인식시킨다.

여섯째, 관리기구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관리기구의 전문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현재 한라산 국립공원의 관리기구는 관리소장 밑에 2개과(관리과와 보호과) 및 2개 지소(성판악지소와 영실지소)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관리과의 경우 영국에서와 같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18명의 인원을 크게 확보하고 또한 순산(巡山) 및 도벌·도채에 대한 관리에서 사법권을 부여하는 등 권한을 대폭 강화해 줄 필요가 있고, 보호과의 경우는 산림의 보호와 산림보호를 위한 연구부서로 전문화하고 연구부서에 의한 연구에 따라 산림보호가 이루어지는 합리적인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론적인 고찰과 실증분석의 결과 국립공원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장단기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첫째, 短期的 方案으로 한라산의 훼손부분이 급심한 곳을 훼손의 방지 내지 훼손의 최소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첫번째로 등산로의 훼손은 관음사 지구의 야영장시설공사 등을 실시하여 등산객을 분산시키고 바람직한 야영행태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로는 1일탐방을 실시한다. 즉, 등산객에 의한 인위적인 자연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산로 입구에서 안전한 복장과 장비를 휴대하여 산행을 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1일등산원칙으로 등·하산시간을 철저히 행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셋째로는 自然休息年制를 실시한다. 즉, 암반, 낙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훼손에 의한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연자원 및 생태계의 최소한의 자연회복을 시킬 휴식기간이 필요하다.

둘째, 長期的 方案으로서 한라산이 수용할 수 있는 適正能力을 測定하여 이를 토대로 탐방객을 수용한다. 한라산의 인위적인 훼손이 탐방객의 집중에 의한 토약의 가속적 침식임을 감안하면 훼손지역의 복구 및 확산을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은 탐방객의 일시적 집중을 규제하는 것이다. 특히 어리목과 영실코스로 등반하는 탐방객은 한라산 방문객의 95%에 이르고 있어 이들의 80%가 쉼새오름 대피소를 경유하고 이곳을 휴게공간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훼손정도가 심화되는 것이다.

둘째, 케이블-카 등의 長期的 次元의 自然保護施設을 導入한다. 영실, 어리목 등 탐방객이 집중된 코스에 대한 이용객의 분산을 유도하여 집중이용으로 인한 자연환경훼손을 방지하며, 백록담 정상등산 일변도의 탐방행태를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케이블-카가 설치된 공원은 국립공원 3개소, 도립공원 4개소, 스키장 7개소, 기타 10개소 등에 설치되어 있고, 외국의 경우 유럽에서는 19세말부터 설치되어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하고 있으며 목축, 산림, 산악공원, 스키장 레저용 등으로 이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1960년대초부터 산악공원, 스키장 유원지 등에 설치 운용함으로써 자연보전과 생태계 보호에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 기본적으로 케이블-카의 설치는 자연생태계의 보호와 자연의 편익 이용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 ① 기존 등산로에 대한 압박을 줄이고 관광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안을 강구한다.
- ② 노선은 기암절벽, 기생화산, 설경, 단풍 등 경관의 매력도와 접근의 용이성, 자연훼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③ 이용대상 범위는 가족단위 및 신혼부부, 단체관광객, 외국인 등으로 다양한 계층을 수용할 수 있게 한다.

셋째, 自然休息年制의 추가 실시 및 預約制의 活性化이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自然休息年制가 다소 실효를 거둬들여 따라 등산객에 의해 인위적으로 훼손이 심한 어리목코스 및 영실코스를 대상으로 추가 自然休息年制의 실시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부분의 탐방객은 성판악의 진입로 개설, 확·포장 및 관음사 지구 야영장 조성, 어승생악 자연학습원 조성, 케이블-카 시설 등의 대체적 방안을 검토하여 유인한다. 또한 단거리 등산코스 및 계절별, 시기별로 집중되는 이용객

을 분산유도함으로써 자연을 보호할 수 있으므로 대상지역을 등산일자 및 예약순위에 따라 인원을 조정, 통제할 필요가 있다. 등산예약제는 적정이용으로 인한 훼손을 최소화하고 산행질서 확립 및 자연보호사상을 고취하며 환경오염의 방지로 생태계의 자연복원을 기대할 수 있다.

넷째로 頂上探訪 登山路의 合理的 調整이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코스는 어리목-윗세오름-서북벽, 어리목-방아오름-남북벽, 영실-방아오름-남북벽, 성판악-동벽, 관음사-동북벽, 돈내코-남벽 등이 있으며, 특정 코스에 탐방객이 집중됨으로써 이를 보호하고 각 탐방로의 훼손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즉 어리목 및 영실-장구목-서북벽, 관음사-동북벽, 돈내코-남벽의 코스는 일부 自然休息年制로 폐쇄하던 것을 완전 폐쇄하고, 단기적으로는 어리목 및 영실-윗세오름까지만 허용하며, 성판악 및 관음사-동벽은 허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어리목 및 영실-윗세오름-방아오름-남벽-정상까지 적정인원만 허용하고, 남벽 정상은 훼손지역을 복구하여 생태계를 회복한 후 영구적인 조망시설을 고려하며, 남벽과 동벽에 각각 상당기간 윤회적으로 자연휴식년을 실시하여 최소한의 적정인원허용과 최소의 탐방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정상보존의 합리적인 방안일 것이다.

다섯째로 漢擊山 觀音寺地區 展示室 및 訪問客案内센터를 設置한다. 한라산 국립공원의 4계절 공원특색을 탐방객에게 소개함으로써 탐방객의 등산욕구를 충족시키고, 등산객을 분산 유도함으로써 정상주변 훼손방지와 공원의 합리적 이용 방법을 홍보하여 각종 문제를 사전에 방지한다. 특히 관음사지구는 산록도로변에 인접하여 접근성이 좋고 공원보호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야영장이 시설되고 자연보호구역이 있어 공원자원 등 종합안내 및 홍보를 위한 전시실 및 방문객센터의 설치로는 적합한 지역이다.

여섯째로 어승생악과 같은 위치에 自然學習園을 조성한다. 탐방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리목 등산로입구와 어승생악 주변에 청소년 및 노약자를 위한 자연학습원을 조성함으로써 무절제한 자연훼손을 방지하고 탐방객을 분산 유도함으로써 한라산 등산로 주변과 정상훼손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어리목 등산로 입구와 어승생악 주변은 주목, 서어나무, 졸참나무, 때죽나무 등 많은 식물이 자생하고 있고, 어승생악 정상에는 둘레 800m, 깊이 25m, 넓이 30,000평의 분화구가

있어 백록담을 연상케 하는 곳이다. 그 외에도 이곳에는 전적지가 있으며, Y계곡, 백록담의 경관, 바다, 제주시, 북제주군, 성산포 일대를 조망할 수 있는 위치이다. 따라서 앞으로 공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공원의 환경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여 국립공원의 자연적, 역사적 특징과 정보를 탐방객이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환경교육의 장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굴 및 벙커를 보수하여 산교육장으로 활용하며 편의시설, 수중안내, 이용안내프로그램 제작 등 자연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산행욕구를 충족시키고 집중되고 있는 등산코스 및 백록담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V. 結 論

濟州道の 관광산업 규모가 점차 방대해짐에 따라 도내에 위치한 국립공원의 이용 및 이에 따른 시설 등이 증가해 가고 있어, 그 효율적인 공원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될 시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국내 타 국립공원이 일부 상업시설의 허용으로 그 훼손 정도가 급격히 심화되고 있는데 비해 아직 예방할 기회가 높은 한라산의 경우에 보호하의 개발이 널리 인식될 필요가 있다.

本稿는 이러한 環境變化에 부응하여 國立公園의 적정한 利用과 保護를 위한 효율적인 管理方案을 模索하는데 그 目的이 있으며, 研究便宜上 考察의 主要範圍를 漢拏山國立公園으로 하였으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外國의 그것과 比較考察도 竝行하였다.

국립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방안모색을 위한 연구내용으로는 實態 및 管理體系를 포함한 國內·外 國立公園의 現況, 漢拏山 國立公園의 現況 그리고 漢拏山國立公園 探訪客의 行態를 고찰하였다. 특히 한라산 국립공원 탐방객의 행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라산보호에 기여하는 변수에 대하여 重要度順位, 環境毀損經驗 등이 포함된 探訪客의 行態, 국립공원의 편의시설과 管理狀況에 대한 評價, 國立公園 接近方式, 느끼는 魅力程度, 공원시설에 대한 훼손의 평가정도 등에 대한 인구통계적 변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가설을 설정하였고, 이에 따른 설문조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탐방객들은 한라산보호 및 가치증대에 대해 기여하는 중요도 순위에서 1위로 쓰레기처리, 이어 산불관리, 수목의 도벌·도채방지순으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 휴지를 버린 경험에 있어서 직업별, 거주지별, 학력별 응답자간에는 유의수준 $\alpha=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각각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고, 환경훼손의 경험에 있어서는 거주지별 및 학력별 응답자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등산로 이탈의 경험에 대해서는 성별, 직업별, 거주지별, 학력별 응답자간에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공도덕에 어긋난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성별, 직업별, 거주지별 응답자간에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셋째, 편의시설이나 관리상황에 대한 평가에 대해 연령별, 직업별 집단간에는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거주지별 집단간에는,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통계적인 차이는 없고 관리상황평가에 대해서는 지역별 집단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넷째, 탐방객들이 공원에 접근시 이용한 교통편은 버스가 가장 많고, 한라산 자원 중 자연경관에 매력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8.0%, 식물 36.7%, 동물 25.9% 그리고 문화경관에는 12.8%가 매력적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등산로로 이용한 주요 코스는 어리목이며, 하산코스으로도 역시 어리목으로 나타났고, 가장 이용하지 않는 곳은 등·하산 코스 모두 돈내코 코스였다.

한편 本稿의 研究結果 국립공원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장단기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短期的 方案으로 한라산의 훼손부분이 극심한 곳에 대한 훼손의 방지 내지 훼손의 최소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등산로의 훼손의 방지를 위해 관음사지구에 야영장시설공사 등을 실시하여 등산객을 분산시키고 바람직한 야영 행태를 유도할 필요가 있고, 1일탐방을 실시해야 하며, 自然休息年制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長期的 方案으로서 한라산이 수용할 수 있는 適正能力을 測定하여 이를 토대로 탐방객을 수용해야 하고, 케이블-카 등의 長期的 次元의 自然保護施設을 導入해야 하며, 自然休息年制의 추가 실시 및 預約制의 活性化를 기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頂上探訪 登山路를 合理的으로 調整해야 하고, 漢拏山 觀音寺地區 展示室 및 訪問客案内센터를 設置해야 할 것이며, 어승생악과 같은 위치에 自然學習園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의 관리업무는 이제 정부안에서 소속을 옮기거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사이에 위탁의 폭을 논의할 시기는 지났으므로 재정부담이 따르는 모든 운용업무와 전국적으로 형평성이 필요한 관리업무는 모두 중앙부서가 직접 그 예산과 인력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 국제적인 기준을 고려해 볼 시기이다. 또한 국민공유자원의 최상의 관리를 위해서는 공원창설 취지에 맞는 대폭적인 權限委任과 管理廳의 一元化, 그리고 열악한 勤務條件의 改善과 정부의 현실에 맞는 과감한 投資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러한 환경적응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산하에 국립공원관리청을 신설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며 각 국립공원마다 미국의

공원경찰제도(Park Ranger)를 도입하거나 전문가(Specialist)를 확보하여 운용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더 바람직한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연구를 위해 선정된 漢拏山國立公園은 타지역 국립공원과는 그 성격에 차이가 있으므로 표본에서 나타난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고려할 여지가 남아 있다는 것이고, 둘째로 본 연구는 주로 국립공원의 이용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자연현상적 측면을 고려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며, 셋째로 설문 조사는 1년 중 특정시점에 이루어져 계절적 영향을 받음으로써 표본속성의 편기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이다. 더 나아가 더 입체적인 연구와 연구결과를 얻기 위해 한라산 국립공원의 개발과 관리는 탐방객의 행태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연구 및 자료축적에 기초를 두고 행해져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1. 單行本 및 論文

- 1) 고동희, “자연보전형 관광지관리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2.
- 2) 김장수, “국립공원과 휴양시설의 조화”, 한국국립공원협회, 국립공원 제27호.
- 3) 나승포, “우리나라 국립공원정책의 재정립방향”, 국립공원협회, 14회 자연공원세미나, 1993.
- 4) 노용희, “자연공원관리의 취약성”, 제10회 자연공원학술세미나 주제논문, 한국국립공원협회, 1989.
- 5) 박문규, “외국국립공원기행”, 국립공원 제56호, 한국국립공원협회, 1992.
- 6) 안원태, “국립공원의 합리적인 보호와 이용-국립공원의 기능최적화방향설정-”, 한국국립공원협회, 국립공원 제54, 55호, 1992.
- 7) 양병이, “자연공원의 미래지향적 관리방안”, 국립공원 54, 55호, 한국국립공원협회, 1992.
- 8) 이경재, “영국국립공원의 관리실태”, 국립공원 제46호, 1990.
- 9) 이경재·오구균, “한라산 보전계획보고서”, 1991.
- 10) 정권섭, “국립공원 관리상의 제문제와 합리적 타개방안”, 국립공원관리공단.
- 11) 국립공원, “환경원년의 자연공원관리방향”, 제 47, 48호, 1990.
- 12) 국토개발연구원, “자연공원의 기능정립과 관리합리화 방안”, 1989.
- 13) 내무부, “국립공원자연자원조사-한라산 국립공원”, 1992.
- 14) 제주도, “한라산 국립공원 백록담지구 훼손지 복구공법 연구보고서”, 1986.
- 15) 제주도, “한라산 국립공원 접근로 및 이용방안 개선타당성 조사용역보고서”, 1987.
- 16) 제주도,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학술조사보고서”, 1985.
- 17) 한라산국립공원, “한라산 등산로훼손지 복구용역보고서”, 1991.
- 18) 문경일·엄정국, 「SPSS/PC 활용」, 영진출판사, 1989.
- 19) 채서일·김범중·이성근, 「SPSS/PC를 이용한 통계분석」, 학현사, 1992.
- 20) 국립공원관리공단(홍보실), 「세계의 국립공원」, 국립공원관리공단, 1993.

2. 外國文獻 및 論文

- 1) Hiram M. Chittenden, *Yellowstone National Park*, 5th ed., Cincinnati, 1905.
- 2) John A. Baden and Donald Leal, *The Yellowstone Primer*, PRI for Public Policy, San Francisco, California.
- 3) Rand McNally, *Pocket National Parks*, 1991.
- 4) Richard L. Stroup, "Rescuing Yellowstone from Politics: Expanding Parks while Reducing Conflict".
- 5) 일본자연공원실무 제1법규, 평성4년
- 6) 大崎清見, "日本國立公園의 過去와 現在", 제10회 자연공원학술세미나 주제는 문, 한국국립공원협회, 1989.

3. 其他 資料 및 統計資料

- 1) 건설부, 한라산국립공원계획, 1987.
- 2) 국립공원 제27호 1984.
- 3) 국립공원, 제39, 40호, 1988.
- 4) 국립공원, 제53호, 1992.
- 5) 국립공원, 제56호, 1992.
- 6) 동아대백과사전 Vol.12, 1989.
- 7) 자연보존 제3,4,33-51호. 1972-1985.
- 8)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1991.
- 9)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경제현황」, 199.
- 10) 조선일보 1993년 8월 15일자 17면.
- 11) 중앙일보, 1993.9.2. 제21면.
- 12) U.K. Countryside Commission.
- 13) U.S.D.A. Forest Service, 1976.

Summary

A Study on the Effective Management of National Parks:
Concerning Halla-san National Park

By Sang-lin Koh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Han, Chang-Young)*

As people have more time and money to spend for recreational activities, they have a tendency to enjoy their life in natural surroundings such as national parks. Korea has grown rapidly during the last 30 years in the economic field and today, people have enough money and time to consider enjoying their lives.

As more people visit national parks more frequently, national parks have started to become seriously polluted. Therefore, an effective management policy is required to protect the original condition of national park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find a better system to manage national parks so that national parks can also be developed to maximize the utility value of parks and preserved them at the same time.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is study consists of 5 chapters:

- 1) Introduction
- 2) The condition of national parks
- 3) The management systems of national parks in Korea

4) Empirical Research concerning Halla-san National Park

5) Conclusions

This study uses two methods, a theoretical approach and an empirical approach. That is, domestic and foreign books and data were used for the former and a questionnaire survey was used for the latter. One thousand visitors to Mt. Halla were given questionnaires of which 809 were returned and of which 780 were used for empirical analysis.

Frequency, T-test, One-way ANOVA and Crosstabs by a statistical package, SPSS/PC (Ver. 3.1) were used to analyze each variable.

The findings and conclusion are summarized as follo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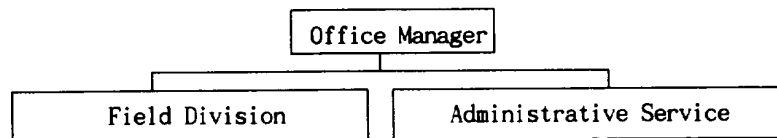
Major Contents of Chapter 2 and 3 are as follows:

- 1) In the USA, managing resources, camping, visitors and etc. is managed by a specialist of each field and the 92 areas represent five categories of the national park system: national parks, national recreation area, national lakeshores, national rivers and national seashores.

There are 50 national parks in the USA and each park has more than one visitor's center. There are 244 superintendents overseeing those parks.

Those parks hire specialists who are called Park Rangers. They have more than a B.A. degree and work in a specific field such as training, surveying, fire management, et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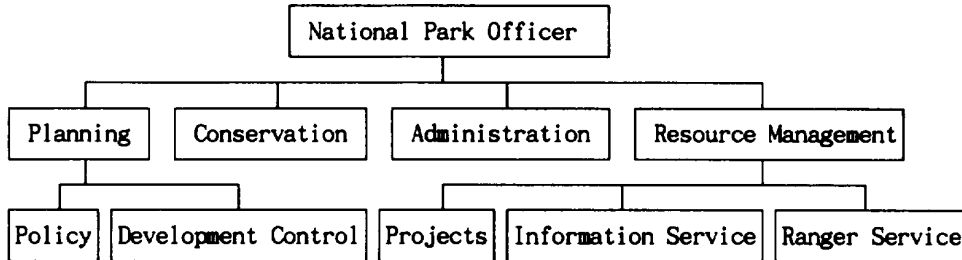
A typical example of a small national park in the USA is as follow:



- 2) In England, the National Parks Commission which was renamed as the Countryside Commission in 1968, designated 10 national parks between 1951 and 1957 under the National Parks and Access to the Countryside 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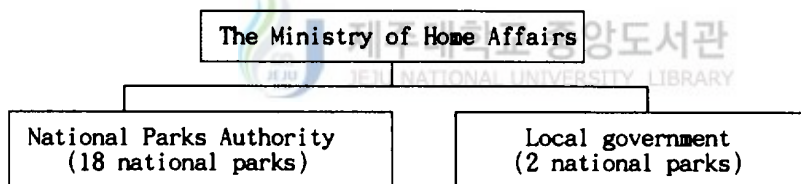
There are 11 national parks: Brecon Beacons, Dartmoor, Exmoor, the Lake District, Northumberland, the Peak District, North York Moors, Pembrokeshire Coast, Snow Donia, Yorkshire Dales and The Broads. The Broads National Park was designated in 1988.

A typical example of the national park system in England is as follow:



3) In Korea, there are 20 national parks. 18 of which are managed by the National Parks Authority established in 1987. Two national parks, Kyongju and Halla-san National Parks and a part of the Hallyo-haesang National Park are managed by the local governments.

The management system of national parks in Korea is as follow:



After doing the data analysis of the empirical survey, the following are suggested:

- 1) Research of a reservation system and its potential effect is required to maintain the proper volume of visitors at specific periods for certain courses such as Orimok and Youngsil.
- 2) Concentrated repair works using proper materials for trails are needed to avoid damage not only by visitors but also by heavy rains and/or other weather conditions.

- 3) Plans focused on the convenience of visitors such as new roads for easier access should be considered.
- 4) Visitors should be given alternative destinations within the park by developing various areas to save the main parts of the mountain through long-term planning.
- 5) Programs to let people know how important national parks are should be prepared.
- 6) Management of the mountain should be specialized.

Limits of this thesis are as follows:

- 1) As the survey was done in a specific area, there may be difficulties in generalizing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research when using them for other national parks.
- 2) The data may have bias as they were collected during a specific period of the year.
- 3) This study is concentrated on national park visitors. So for further study, the natural and ecological aspects should also be considered.



設 問 紙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더 나은 한라산국립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국립공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설문에 대한 여러분의 정성스런 응답은 더 정확한 결과를 얻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피곤하시더라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993. 5.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 전공

고 상 린

※ 각 문항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느끼시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I. 한라산의 접근성

1. 시내에서의 (교통편)출발시간은? (____시 ____분)
2. 이용한 교통편은?
①()버스 ②()택시 ③()자가용 ④()기타_____

II. 한라산의 보전상태(자연적인 면) 등

3. 한라산의 다음 자원 중 귀하가 느끼는 매력정도를 번호상에 표시하신다면?

←매우 매력적

매력을 못느낀다 →

- | | |
|---|---------------------------|
| (1) 산악:
백록담, 사계비동산, 만세동산,
어승생오름, 윗새오름, 성널오름(1,215m),
사라오름, 삼각봉 등 | ①.....②.....③.....④.....⑤ |
| (2) 계곡:
탐라계곡, 영실계곡, 개미계곡,
어승생계곡, 성판악계곡, Y계곡,
구구계곡 등 | ①.....②.....③.....④.....⑤ |
| (3) 기암:
영실기암, 오관룡, 서북벽, 남북벽,
구린굴, 용진굴 | ①.....②.....③.....④.....⑤ |
| (4) 사찰: 관음사, 천왕사, 석굴암 등 | ①.....②.....③.....④.....⑤ |
| (5) 천연기념물: 제주도 한라산, 왕벚나무 등 | ①.....②.....③.....④.....⑤ |

4. 다음 사항의 관리는 한라산보호 및 가치증대에 대해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지 못하다 →

- | | | | | | |
|------------------------|---|---|---|---|---|
| (1) 쓰레기의 처리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이용객의 배설물처리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지피식생의 훼손방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수목의 도벌, 도채방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소나 말의 방목금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등반로 및 주변지역의 토양침식방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등반로의 노면상태보수 | ① | ② | ③ | ④ | ⑤ |
| (9) 기반암의 붕괴억제 | ① | ② | ③ | ④ | ⑤ |
| (10) 백록담 등의 수량감소억제 | ① | ② | ③ | ④ | ⑤ |
| (11) 공원내 상업적 시설금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12) 음료수 공급시설설치 | ① | ② | ③ | ④ | ⑤ |
| (13) 안내판설치 | ① | ② | ③ | ④ | ⑤ |
| (14) 통신시설설치 | ① | ② | ③ | ④ | ⑤ |
| (15) 필요한 정보제공 | ① | ② | ③ | ④ | ⑤ |
| (16) 특정 등반로에 이용객 집중억제 | ① | ② | ③ | ④ | ⑤ |
| (17) 산불관리철저 | ① | ② | ③ | ④ | ⑤ |
| (18) 하천수나 지하수의 오염방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19) 야영, 취사 등의 금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20) 탐방객 수통제 | ① | ② | ③ | ④ | ⑤ |

5. 귀하가 이용한 코스의 훼손 정도는?

←매우 심각한 정도다 전혀 훼손되지 않았다 →

- | | | | | | |
|---------|---|---|---|---|---|
| (1) 등산로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하산로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백록담 | ① | ② | ③ | ④ | ⑤ |

III. 한라산의 관리상태(인위적인 시설물 등)

6. 한라산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비싸다 매우 저렴하다 →

① ② ③ ④ ⑤

7. 국립공원이 제공하는 다음의 편의시설은 어떠했습니까?

	아주 좋음	좋음	보통	나쁨	아주 나쁨
(1) 주차공간 -----	()	()	()	()	()
(2) 화장실 -----	()	()	()	()	()
(3) 대피시설 -----	()	()	()	()	()
(4) 기념품점 -----	()	()	()	()	()
(5) 식음료점 -----	()	()	()	()	()
(6) 안내표지 -----	()	()	()	()	()
(7) 안전시설(기둥, 계단)	()	()	()	()	()

8. 국립공원 관리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아주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		
(1) 매표원은 친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2) 공원은 청결하다.	①	②	③	④	⑤
(3) 훼손지역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다시오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5) 쓰레기처리는 잘 된다.	①	②	③	④	⑤

IV. 한라산의 중요성

9. 한라산은 관광자원(등산, 여행, 휴양)으로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중요하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
①	②	③	④	⑤		

10. 한라산은 제주도민의 여가선용지(야유회, 등산 등)으로써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중요하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
①	②	③	④	⑤		

V. 탐방객의 자체평가

11. 국립공원을 이용할 때 자신의 다음사항에 대해 그 실천정도를 평가하신다면?

	아주 그렇다		보통			아주 그렇지 않다	
(1) 휴지를 버린적이 있다	()	()	()	()	()	()	
(2) 사진촬영시 환경훼손경험이 있다	()	()	()	()	()	()	

(2) 탐방객의 등산로이용에 의한 한라산 감상

← 보호에 대한 기여가 매우 클것이다 전혀 기여치 못할 것이다 →
①-----②-----③-----④-----⑤

19. 귀하가 이용한 곳의 보수의 긴박성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등산로

← 보수가 시급하다 전혀 보수할 필요가 없다 →
①-----②-----③-----④-----⑤

(2) 하산로

← 보수가 시급하다 전혀 보수할 필요가 없다 →
①-----②-----③-----④-----⑤

(3) 백록담

← 보수가 시급하다 전혀 보수할 필요가 없다 →
①-----②-----③-----④-----⑤

20. 훼손된 등반로의 보호를 위해 일시적으로 폐쇄하는데 대한 귀하의 생각은?

← 적극 찬성한다 적극 반대한다 →
①-----②-----③-----④-----⑤

21. 자연적 훼손에 대한 관리소의 적극적인 보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 적극 보수해야 된다.
- ② () 보수해야 된다.
- ③ () 보통이다.
- ④ () 통제만 한다.
- ⑤ () 자연상태로 그냥둔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2. 현재 돌이나 흙으로 된 한라산 등산로는 등반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주 그렇다 전혀 그렇지않다 →
①-----②-----③-----④-----⑤

23. 한라산 등산로의 돌이나 흙대신 고무밧줄을 엮어 만든 소재 따위를 등산로에 설치하면 한라산 보호 및 탐방객 편의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아주 그렇다 전혀 그렇지않다 →
①-----②-----③-----④-----⑤

VII. 기타사항

24. 귀하가 본 공원이용시 느끼신 가장 불편사항을 제시한다면?

25. 탐방객에 의한 가장 큰 피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VIII. 탐방객의 인구통계적 변수에 관한 문항

26.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7. 귀하의 연령은?

- ①() 20세 이하 ④() 41~50세
②() 21~30세 ⑤() 51세이상
③() 31~40세

28. 귀하의 직업은?

- ①() 학생 ③() 회사원 ⑤() 농림수축산업
②() 공무원 ④() 상업 ⑥() 연구직
⑦() 주부 ⑧() 아직없음, 기타 _____

29. 귀하의 현재 거주지는?

- ①() 제주 ③() 서울 ⑤() 광주
②() 인천 ④() 부산 ⑥() 대구
⑦() 대전 ⑧() 기타 _____

30. 귀하의 학력은?

-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대졸 ④() 대학원졸이상